



한눈에 보는 사회

2009 OECD 사회지표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Korea Policy Centre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한 눈에 보는 사회 : 2009 OECD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 Social Indicators)는 영어와 불어로 OECD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원본의 저작권은 OECD에 있습니다.

본 한국어판은 파리의 OECD와 계약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에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의 품질 및 원본과 일치 여부는 OECD 한국센터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Originally published by the OECD in English and in French under the titles:

- 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 SOCIAL INDICATORS
- Panorama de la société 2009 : LES INDICATEURS SOCIAUX DE L'OCDE

©2009 OECD

All rights reserved.

©2009 OECD/Korea Policy Centre -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for this Korean edition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OECD, Paris.

The quality of the Korean translation and its coherence with the original tex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OECD/Korea Policy Centre -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한눈에 보는 사회

2009 OECD 사회지표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화로 인한 경제, 사회 및 환경과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30개 민주국가의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유일한 포럼이다. 또한 OECD는 기업지배구조, 정보경제 및 인구고령화로 야기되는 과제 등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회원국 정부가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국내외 정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증거의 틀을 제공한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OECD 업무에 일부 참여한다.

OECD는 출판물을 통하여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이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린다.

역자 서문

이 책은 OECD가 회원국의 사회 핵심지표를 요약 출판하는 'Society at a Glance'의 번역본으로서, 국문으로는 세 번째로 출간되는 것입니다. 역자가 속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사회정책본부는 국외적으로 아시아 지역 비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역량구축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OECD 출판물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번역작업은 감독위원회의 정밀한 작업을 거친 2007년판의 어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새로이 추가된 어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번역으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 및 영문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영문을 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확한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번역은 고은경 연구원이 전문번역을 담당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은지 연구원, 중앙대학교의 차승연 선생님께서 아낌없는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원고의 편집에는 신수아 요원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진광현 부분부장, 윤기중 연구원, 김유강 연구원이 많은 지도를 주셨습니다.

2009년 8월 30일

OECD 대한민국센터 사회정책본부 연구원 고 은 경

본부장 윤 현 덕

서 문

본 보고서는 격년으로 출간하는 OECD 사회지표를 정리한 ‘한 눈에 보는 사회’의 5차 개정판이다. 이는 사회복지 및 동향 관련 양적 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2001년, 2003년, 2005년 및 2006년판에 발표된 지표들도 일부 보충하였으며, 신장지표, 지각된 건강상태, 청소년 위험행동 및 집단 따돌림 등 새로운 지표들이 추가되었다. 또한, 새로운 주요 사회지표들을 개발하여 사회적 웰빙과 그 동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그 뿐만 아니라, OECD 사회지표의 구성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와 OECD 국가의 여가 시간을 다룬 장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판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들을 포함한 모든 지표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OECD 웹사이트 (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에 게재되어 있다.

본 지표의 저자는 Simon Chapple과 Maxime Ladaique이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OECD 사회정책국 내외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Francesca Colombo, Michael De Looper, Marco Mira d’ Ercole, Justina Fischer, Michael Forster, Pauline Fron, Rie Fujisawa, David Jonathan Gonzalez-Villascan, Ingrid Herrbach, Maria del Carmen Huerta, Herwig Immervoll, Gaetan Lafortune, Pascal Marianna, Marlene Mohier, Dominique Paturot, Dominic Richardson, Olivier Thevenon이 본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OECD 사회정책국장인 Mark Pearson은 본 보고서 작업을 최초로 진행하고 꾸준히 감독하였다.

목 차

제1장. 주요 사회지표	9
서론	10
OECD 국가의 주요 사회지표	10
8개의 주요 지표	12
각주	17
제2장. 특별 포커스: OECD 국가의 여가 측정	19
여가 시간의 경제이론	21
잔여 유급근로 시간 동향	22
생애에 걸친 시간의 분배	25
1일 평균 여가	25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한 여가 시간 동향	29
여가 분배 패턴	31
여가활동의 종류	35
기타활동에 사용한 시간에 대한 만족도	36
삶의 만족도 및 시장소득 측정치와 비교한 여가 시간	37
의무 휴가 및 여가 시간	39
결론	41
각주	42
참고문헌	42
부록 2.A1. 생활시간조사의 주요 특징	44
제3장. OECD 사회지수의 해석.	51
사회지표의 목적	52
OECD 사회지표의 구성	52
지표의 선정과 설명.	55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59
제4장. 일반지표	61
1. 1인당 순국민소득	62
2. 출산율	64
3. 이민	66

4. 결혼과 이혼	68
제5장. 자활 지표	71
1. 고용	72
2. 실업	74
3. 보육	76
4. 학업성취도	78
5. NEET	80
6. 노동 활동 중단 연령	82
7. 교육비 지출	84
제6장. 형평성 지수	87
1. 소득 불평등	88
2. 빈곤	90
3. 아동 빈곤	92
4. 최저생계급여의 적절성	94
5. 공공 사회지출	96
6. 총 사회지출	98
제7장. 보건 지표	101
1. 기대 수명	102
2. 지각된 건강상태	104
3. 영아 보건	106
4. 비만	108
5. 신장	110
6. 정신 건강	112
7. 장기요양 수혜자	114
8. 보건 의료비 지출	116
제8장. 사회통합지표	119
1. 삶의 만족도	120
2. 직업만족도	122
3. 범죄피해	124
4. 자살률	126
5. 집단 따돌림	128
6. 위험행동	130

국가코드

AUS	호주
AUT	오스트리아
BEL	벨기에
CAN	캐나다
CZE	체코 공화국
DNK	덴마크
FIN	핀란드
FRA	프랑스
DEU	독일
GRC	그리스
HUN	헝가리
ISL	아이슬란드
IRL	아일랜드
ITA	이탈리아
JPN	일본
KOR	한국
LUX	룩셈부르크
MEX	멕시코
NLD	네덜란드
NZL	뉴질랜드
NOR	노르웨이
POL	폴란드
PRT	포르투갈
SVK	슬로바키아 공화국
ESP	스페인
SWE	스웨덴
CHE	스위스
TUR	터키
GBR	영국
USA	미국

제1장

주요 사회지표

서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사회지표는 생활수준과 근로환경 평가를 하던 기존의 시장 소득 지표를 더욱 개선하고자 개발되었다. 오늘날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가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은 OECD 각 회원국의 사회환경과 사회환경 개선 대책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렇게 풍부한 정보는 큰 대가가 따른다. 독자들은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를 단시간에 보고 각국의 사회환경이 어떻게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에 대한 간략한 청사진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주요 지표의 하위 지표들은 사회환경을 보다 간간하게 설명해준다. 이 하위 지표는 독자에게 여러 OECD 회원국이 직면한 사회 분야에서의 일부 핵심적인 과제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발전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한다.¹

본 장에서는 주요 지표들을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의 핵심 부분으로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주요 사회지표의 선택과 구성을 위한 접근법도 설명한다.

OECD 국가의 주요 사회지표

표1.1과 1.2는 8개의 주요 사회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에서 사용된 4개의 핵심 카테고리에 각각 해당하는 2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표는 독자들이 어떤 한 시점(표1.1)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표1.2)의 관점 모두에서 각 회원국의 사회환경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표1.1에서 “신호등” 표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OECD 각 국가의 가장 최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원”은 성취도 상위 삼십분위에 속하는 국가를 나타내고, “마름모”는 하위 삼십분위, “삼각형”은 성취도 중간에 위치한 사십분위에 속한 국가들을 나타낸다.

표 1.2에서 “화살표”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최근의 성취도 변화를 나타낸다. “위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는 성취도 상위 삼십분위에 속하는 국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는 성취도 하위 삼십분위,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화살표”는 성취도 변화가 중위권인 사십분위에 속한 국가들을 각각 나타낸다.

질적 정보이므로 지표값은 제시되지 않았다.² 관련 지표로써, 표1.1과 1.2(오른쪽)는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기준으로한 달러(USD) 표시 국민순소득 NNI(표 1.1)와 1인당 실질 GDP 상승률(국민순소득 NNI 상승률은 오직 17개국에서만 집계 가능하였기 때문임)(표1.2)을 포함한다.

표 1.1. 최근의 주요 사회지표

아래 표는 특정 시점에서 각 국가의 성취도를 나타낸 것으로 “녹색 원”은 상위 삼십분위에 속한 국가들, “붉은 마름모꼴”은 하위 삼십분위에 속한 국가들, 그리고 “노란 삼각형”은 중위 삼십분위 해당 국가들을 표시함.

	자활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		소득
	인구 대비 고용비율	문자 독해율이 낮은 학생비율	소득 불균형의 지니계수	성별 임금차	65세 남성의 기대수명	영아사망	주관적 웰빙	범죄 피해를	달리기준 구매력지수
									2007년
호주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벨기에	◆	▲	▲	●	▲	▲	●	▲	▲
캐나다	●	●	▲	▲	●	◆	●	▲	●
체코	▲	◆	●	▲	◆	●	▲	..	◆
덴마크	●	●	●	●	◆	▲	●	◆	●
핀란드	▲	●	●	▲	▲	●	●	▲	▲
프랑스	▲	▲	▲	●	●	▲	▲	●	▲
독일	▲	▲	▲	▲	▲	▲	▲	▲	▲
그리스	◆	◆	▲	▲	▲	▲	◆	●	▲
헝가리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일본	▲	▲	▲	◆	●	●	▲	●	▲
한국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폴란드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스페인	▲	◆	▲	▲	●	▲	▲	●	▲
스웨덴	●	●	●	▲	▲	●	▲	◆	●
스위스	●	▲	●	▲	●	▲	●	▲	●
터키	◆	◆	◆	..	◆	◆	◆	..	◆
영국	▲	▲	◆	▲	▲	▲	▲	◆	▲
미국	▲	▲	◆	▲	▲	◆	▲	▲	●

NNI: 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750484867>

표1.1은 다양한 패턴을 보여준다. 대부분 국가는 다양한 수준(녹색, 노란색, 붉은색)의 성취도를 보여주었다. 오직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및 스웨덴만 “붉은색”을 갖고 있지 않다. 독일, 멕시코, 터키, 영국, 미국에는 “녹색”이 하나도 없다. 모든 지표가 녹색을 나타낸 국가는 없었으나,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최대 5개의 녹색을 가졌다.

사회환경 지수의 변화를 보면 국가 간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2에서 보여지 듯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지표에 걸쳐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그리스는 붉은색 화살표가 하나도 없고, 호주, 캐나다, 체코, 아이슬랜드는 녹색 화살표가 하나도 없으며 터키는 노란색 화살표가 하나도 없다. 폴란드는 데이터 상의 모든 헤드라인에서 강력한 진전을 보이며 6개의 녹색 화살표를 기록했다.

표 1.2. 최근의 주요 사회지표상의 상대적 진전

화살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위로 향하고 있는 녹색 화살표”는 성취도 상위 3개국, “아래로 향하고 있는 붉은색 화살표”는 하위 3개국, “오른쪽으로 향하는 노란색 화살표”는 성취도 중위권 4개국을 나타낸다.

	자활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		소득
	인구 대비 고용비율	문자 독해율이 낮은 학생비율	소득 불균형의 지니계수	성별 임금차	65세 남성의 기대수명	영아사망	주관적 웰빙	범죄 피해율	달러기준 구매력지수
	변화 2007/2003	변화 2006/2003	변화 2004-5/2000	변화 2006/early 2000s	변화 2006/2000	변화 2006/2000	변화 2006/2000	변화 2005/2000	변화 2006/2000
호주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벨기에	→	→	→	→	↑	→	↑	↓	↓
캐나다	→	→	↓	→	→	↓	↓	→	→
체코	→	↓	↓	→	→	→	→	→	↑
덴마크	→	↑	→	→	→	→	→	→	→
핀란드	↑	↑	→	→	↑	→	↑	→	→
프랑스	↓	↓	→	↓	↑	→	→	↑	↓
독일	↑	↑	↓	↓	↑	→	↑	→	↓
그리스	↑	→	↑	→	→	↑	→	→	↑
헝가리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일본	→	↑	→	↓	→	↓	↓	↑	↓
한국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폴란드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스페인	↑	↓	→	→	→	→	→	↑	→
스웨덴	→	→	↑	↓	↓	↓	→	↑	→
스위스	↓	↑	→	→	↑	↓	↓	↓	↓
터키	↓	↑	→	→	↓	→	↑	→	↑
영국	↓	↓	↑	↑	→	↓	→	→	→
미국	↓	→	↓	↑	↓	↓	↓	↓	→

주: 데이터 가용성 때문에 변화가 관찰된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변화란 산술적 변화를 의미하며 범죄피해율이 제외된다.(연간 평균 변화). 일부 국가의 범죄피해 데이터는 2000년 이전부터 마련된 것이다. 8장의 CO3에 관한 논의를 참조. 레벨 데이터에 비해 호환성이 낮을 수 있음.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810385458>

8개의 주요 지표

단순히 몇 개의 주요 지표로 사회환경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경우에 있어 목표는 다음과 같다. i) 결과를 기술하는 것; ii) OECD 사회환경 지표 분류의 4가지 영역에 포함된 다양한 측정치들을 알려주는 것(자활, 형평성, 보건 및 사회 통합); iii) 가능한 많은 OECD 국가 지표를 다루는 것 iv) t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상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것.

지표의 선정은 통계적 분석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접근법은 ‘한 눈에 보

는 사회지표’에서 다루는 모든 결과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각 영역 내의 다른 지표들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하나의 대안적 접근법은 각 영역 내의 기초지표들의 적절한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 특정한 종류의 변수 분석에 의존하는 것이다.

지표가 선정되면, 이 지표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표들은 0-1 사이에 위치할 수 있도록 “표준화(normalised)” 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는 사회지표의 4가지 영역에 속하는 혼합 지수의 생성을 허용하거나, 4개의 영역을 합산한 합계 지수의 생성을 허용한다.³ 그러나 투명성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한다.

상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데이터 입수가능성(availability)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도 한다. 첫째, 정의와 출처의 변경은 ‘한눈에 보는 사회’에서 다룰 수 있는 일정한 형태의 지표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다수의 지표가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예측 가능한 주기를 두고 업데이트되지 않으며, 일부 국가의 지표만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지표가 그 영향이 이미 다른 지표(예, 기대수명)에 의해 기록된 매우 특정한 결과(예, 자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주요 지표를 선정할 때에는 통계적 범위를 이용하기 보다는 회원국 간의 논의 과정에서 도달한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다.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달성을 위해 채택된 지표들은 정상화를 거치지 않은 비가공(raw) 형태로 제시된다. 그러나 선택된 지표들의 산술값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질적 표지들이 이용되었다. 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영역에 포함되는 지표의 수에 제한을 두었다.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4개의 영역으로 분류된 사회지표(자활,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에 각 두 개의 주요 지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국의 사회환경을 비교하고 사회환경의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8개의 주요 지표가 선정된 것이다. 주요 지표를 선정하는데 지침이 된 질적 논의는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자활

사람들의 자활은 직업에 대한 접근성과 능력에 달려있다. 일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결과의 적절한 지표는 **노동 연령 인구 대비 고용률**이다. 이 지표는 비교 가능한 노동력 설문조사의 정의에 기반한 것으로 모든 OECD 회원국이 매년 이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실업률 등 노동시장 불황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와 비교해 볼 때, 고용률은 직업전망이 좋지 못할 때 스스로 노동시장을 떠나려는 개인들의 결정에 영향을 덜 받는다.

현재 개인의 기술과 역량을 측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방법은 노동 가능연령 인구의 평균 학교 교육 연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표는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재화 형성을 무시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등한시한다.⁴ 나아가, 노동 연령 인구의 기술이 그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기술은 부분적으로 고용률에 포함된다.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그들이 가진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고용 전 역량은 미래 노동시장 전망 지표 및 생애 기회 지표를 제공한다. 15세 인구의 역량은 OECD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PISA)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3년마다 현장 조사된 비교 가능한 설문조

사 모듈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OECD 국가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사용된 지표는 **1단계 또는 그 이하의 읽기 능력을 갖춘 15세 학생의 비율**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정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저 수준의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역량 측정을 위한 다른 PISA 측정법과 비교해볼 때 이 지표는 1단계 또는 그 이하의 읽기 능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이들은 성인기에 도달했을 때, 고용이 되지 않거나 급여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회 보장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형평성

형평성은 소득,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범위의 성과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여러 국가의 형평성을 다루고,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형평성 측정치는 거의 없다. 선택된 두 가지 지표는 소득 불평등과 남녀 임금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국에 거주하는 개인의 임금 격차는 삶의 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이다. 이러한 격차가 너무 크다면, 이는 형평성이라는 공유된 개념과 충돌할 수 있다. 가구 가처분 소득의 분배에 관한 데이터는 OECD가 5년마다 수집한다. 이 데이터를 통해 모든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 비교가 가능하며, 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가의 변화(2000년 이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이 지표는 **가구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이다. 이 지표는 가구 소득의 분배를 간단히 요약해 나타내며, 상대적 빈곤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지니계수와 그 변화는 국가 차원에서 빈곤과 같은 다른 불평등 수치와는 완벽한 상관관계를 이루지 못한다(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지니계수의 변동과 빈곤도의 변동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예외임). 따라서 이러한 기타 불평등 척도로 지니계수를 선택한 것은 주요 지표상의 국가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지니계수는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도 있다.

소득 불평등 지표는 동일한 가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용 자원을 공유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척도는 모든 OECD 국가에서 중요한 형평성이라는 요소인 남녀 간의 자산 차이를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성별 격차를 나타내기 위해 보고된 지표는 **정규적으로 일하는 여성과 남성간의 소득 중간 값 비율**이다. 이것이 여성이 직면한 노동시장 불이익 요소이며 국가 간 비교가 쉽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한편, 이는 가족 내에서 소득을 공유하는 남성과 여성의 균등화라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성별 임금 차는 19개 OECD 국가의 OECD 소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알 수 있다.

보건상태

보건 상태의 두 가지 주요 척도는 사망률과 질병률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포괄적이고 정기적인 질병률 측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⁵ 이러한 이유로 사용된 두 가지 지표는 연령대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인들과 관련해 사용된 지표는 **65세 인구의 기대 수명**으로 OECD 보건 데이터에서 이 지표가 제공된다. 이 지표의 작은 단점은 전체 노인 인구의 기대 수명을 다루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과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매년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 아동들과 관련해서는 **영아 사망률** 지표가 이용되는데 이는 신생아 1,000명 중 1세 이하에 사망하는 아동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영아 사망률의 한 가지 잠재적 문제점은 국가 간 조산아의 사망을 등록하는 방

법의 차이가 있어 데이터 호환성에 있어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과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7장의 HE3.1 지표에 대한 논의 참조).

사회통합

사회 통합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사회 통합은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 참여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 통합 부족은 자살, 위험행동 또는 범죄 등 다양한 병리현상을 통해 드러난다.

개인들의 공동체 생활 참여 또는 타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포괄적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 결과, 몇 가지 특징과 개인적 특성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기여를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통합의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는 각국의 **평균적 삶의 만족도**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은 2006 갤럽 월드 폴의 국가별 스코어에 근거한다.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측정할 데이터의 출처는 다양하다(박스 1.1 참조). 이 지표가 개인의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와 타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유일한 간접적 척도인 반면, 제공된 다른 지표들은 직관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스 1.1. 삶의 만족도 변화 측정

2009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에서 삶의 만족도 수준을 조사하는데 사용된 2006 갤럽 월드 폴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대기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데이터는 다른 출처에서 제공되었다. 최초 출처는 행복에 대한 세계 데이터베이스(WDH)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이다(www1.eur.nl/fsw/happiness/hap_nat/nat_fp.htm). 데이터는 2008년 10월 3일과 4일에 WDH 웹사이트에서 발췌되었다.

삶의 만족도의 변화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동안 조사되었다. 이 기간은 만족도에 변화가 생길 만큼 충분히 긴 기간이다. 또 다른 이유는 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2006년이 갤럽 설문조사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데이터는 28개 OECD 회원국에서 수집 가능하다. WDH는 유로바로미터 설문조사에서 발췌된 20개 국가의 연대기별 데이터를 제공한다.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럽 국가들이다. 영국에 대한 자료는 Great Britain 섬에 대한 자료만 제공된다. 그 외 4개 국가는 월드 벨류 서베이(캐나다, 한국, 멕시코, 미국)에서 발췌된 데이터만 제공한다. 노르웨이와 스위스의 데이터는 유러피안 소셜 서베이에서 제공되었다. 호주의 데이터는 호주 연합 웰빙 지수에서, 일본의 데이터는 라이프 인 네이션 서베이에서 인용되었다. 아이슬란드와 뉴질랜드의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았다.

박스 1.1. 삶의 만족도 변화 측정(계속)

유로바로미터 일본 데이터에서와 같이 1-4의 척도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며, WDH가 제공한 변형된 0-10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월드 밸류 서베이는 1-10의 척도를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WDH가 제공한 변형된 0-10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호주와 노르웨이의 데이터는 변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영어로 번역된 질문들은 설문조사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유로바로미터의 질문 내용은 “당신의 삶에 어떻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인 반면 월드 밸류 서베이는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전인격적 인간으로서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떻게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시한다. 호주 설문조사는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요즘 전인격적 인간으로 당신의 삶에 어떻게 만족/불만족하십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의 설문조사는 월드 밸류 서베이의 질문 내용과 동일하고 일본 설문조사는 유로바로미터의 질문과 같다.

필요에 따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터키의 자료는 2001년에서 2006년에 걸친 변화를 나타내며, 멕시코 역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일본의 데이터는 2001년-2007년, 한국의 데이터는 2001년-2005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노르웨이는 2002년-2006년, 스위스는 2000/03-2006/07년까지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미국은 1999년-2006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했다. 나머지 17개국의 자료는 모두 2000년-2006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계절성 역시 추가적인 제약이었다. 유로바로미터 데이터는 2000년 4월 또는 2000년 4-5월, 2006년 봄에 수집되는 WDH에서 발표된다. 4개 국가의 2001년-2006년까지의 데이터인 유로바로미터 데이터는 2001년 10월과 2006년 봄을 비교하고 있다. 호주 데이터는 2000년 9월과 2006년 10월을 비교한 반면 일본 데이터는 2000년 9월과 2006년 7월을 비교했다. 스위스 데이터는 2002년 9월과 2003년 2월 사이, 그리고 2006년 2월과 2007년 4월 사이 수집되었다. 한국의 2001년 자료는 11월에 수집되었다. 2005년 한국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노르웨이의 데이터는 2002년 9월과 2006년 8월-12월에 수집되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대한 추가적 연구는 상기 언급된 다양한 절충안에서 데이터의 평균 품질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러한 데이터 상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상세한 국가 순위 데이터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한다.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최종적 삶의 만족도 데이터(대부분 2006년 자료, 2005, 2007년 자료도 포함)간의 상관관계는 갤럽 폴 데이터($r=0.81$)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터키와 멕시코는 예외이다.

박스 1.1. 삶의 만족도 변화 측정(계속)

데이터 상에서 가장 큰 변화가 보고된 것은 유로바로미터 상의 터키의 삶의 만족도 상승인데, 터키의 삶의 만족도는 2000년 4.6에서 2006년 6.1로 상승했다. 1-10까지의 삶의 만족도 척도를 이용한 터키의 두 번째 데이터(월드 밸류 서베이)도 이와 일치하는데, 2000년 5.6에서 2007년 7.5로 더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유로바로미터 2006 서베이는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보다 터키를 더 높은 순위에 올렸으나, 갤럽 월드폴에서 터키는 2006년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서 사용된 대부분의 서베이는 표본크기가 작다(수천 명 이내).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해 발표된 자료 중 어떤 것이 통계적으로 더 의미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회 통합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주요지표는 범죄피해율로 이전 1년간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국제 범죄피해 조사에서 인용한 데이터는 가장 최근의 26개 OECD 국가의 자료를 담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지표는 모든 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10가지 범죄 카테고리를 의미한다.

Notes

1. 주요 지표는 OECD의 다른 업무에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OECD의 환경지표인 ‘한 눈에 보는 환경’은 OECD 장관들이 대중을 위한 정보 전달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추천한 10개의 핵심 환경지표를 포함한다.
2. 주요 지표의 산술 값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아래의 상세한 지표와 관련한 장을 참조하거나 OECD 웹사이트(www.oecd.org/els/social/indicators)를 참조하기 바란다.
3. 16 개의 OECD 사회지표에 근거한 “종합” 지수의 예는 2006 한 눈에 보는 사회 제 2장에 기술되어 있다.
4.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실시 가능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2003년 실시된 OECD 성인 식자율 및 생활 기술 설문조사(ALLS,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 Survey)는 5개 OECD 국가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OECD 성인 역량의 국제적 평가 프로그램(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es)은 미래의 전체 성인 인구의 역량 지표를 허용한다.
5. 질병률 측정치는 자가보고 건강 상태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변수에 대한 정보는 OECD 보건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데이터들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기적 비교를 충분히 할 수는 없다.
6. 이러한 이유로, 아래 표 1에서 제시된 지표들은 노인 남성만을 다루고 있다. 명확한 대안은 노인 여성의 기대 수명 지표를 제시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경험을 합한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2장

특별 포커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여가 시간의 양과 질은 여가가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만족도로 연결되므로 직접적인 만족도로 연결되므로 개인의 웰빙(well-being)에 중요하다. 또한, 어떤 점에서 여가는 신체와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 여가는 여가를 직접 즐기는 사람 외에도 다른 이들의 웰빙에도 기여한다. 어떤 한 개인이 여가를 즐기면, 수많은 방법으로 다른 이들과 좋은 일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관계와 가족 기능의 향상, 그리고 (최소한 특정 종류의 공유된 여가로부터 기인하는) 사회 자본 네트워크의 형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의 여가 시간 패턴은 사회 모니터링의 중요한 부분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가(leisure)란 정확히 무엇인가? 여가는 시간, 활동 또는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를 통하여 정의될 수 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가는 의무 또는 강요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가 시간은 “자신을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요구하는 행위와 자신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전혀 할 필요가 없는 행위”로 정의되었다(Burda 외, 2006, p. 1).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는 여가로 인정되는 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한 개인이 의무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하지 않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여가는 보통 “여유롭다(leisurely)”고 여겨지는 특정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보다 완벽한 정의는 텔레비전 시청, 스포츠 또는 운동에 참여하기, 독서, 영화 감상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가 활동으로 꼽는 행위를 근거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되어 질 수 있는데, 이는 재미 있고 만족스러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실제 여가의 측정은 이 모든 정의를 기초로 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여가 시간의 경제적 결정 요소에 대한 짧은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그 다음에는 OECD 국가에서 유급 근로에 종사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잔여 시간으로서의 여가에 대해 알아본다. 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이상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며, 이는 특히 무급 근로에 대한 국가 간 차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잔여 시간을 기반으로 한 접근법은 OECD 국가의 횡단면/연대기별 여가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여가 시간의 추가적인 분류는 성인의 생애 주기에 걸친 매우 광범위한 시간 분배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 작업은 보통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무 교육 이전 시기, 학교 교육을 받는 시기, 노동 시장 진입 이전 시기, 유급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시기, 근로 시기 및 여성과 남성의 은퇴이후시기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비교할만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OECD 18개 국가의 경우, 하루 동안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여가 연구를 하기 위하여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가 이용되었다(본 장의 부록에 18개 생활시간조사의 몇 가지 세부 비교 사항을 포함함). 이러한 생활시간조사는 직업에 종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의 시간 분배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시장 내에서의와 시장 외에서의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한다. 응답자들이 기술

한 행동은 “근로 시간”, “가사 시간” 또는 “여가 활동 시간” 등 몇 개의 일반적인 카테고리 코드로 코드화되었다. 방법과 접근법은 어느 정도 다르지만, 본 장에서 사용한 생활시간조사는 “여가” 카테고리를 취미, 텔레비전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친구 및 가족과의 친목 도모, 문화 행사 참여, 행사 주최 그리고 스포츠 활동 등과 같이 비강제적 활동들의 총합으로 정의한다. 모든 설문 조사는, 사건이 일어난 오랜 후에 기억해 낸 결과가 아닌, 사람들이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 조정 후, 국가 간 여가 수준과 동향의 비교가 가능하다. 본 장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별과 연령 카테고리에 따른 여가 분배 패턴에 중점을 두었다.¹ 이 파트에서는 또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가 활동의 종류와 여가 활동 달성을 통해 얻는 만족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여가와 웰빙의 다른 척도, 그리고 여가와 유급 휴가에 대한 정책 선택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하였다.

여가 시간의 경제 이론

19세기 말 베블렌(Veblen)의 유한계급론(Theory of the Leisure)이 발표된 후, 경제학자와 기타 사회과학자들이 여가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신고 전 전통 관점에서의 노동력 공급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노동/여가 선택의 이론적, 경험적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전통적으로 다른 방법의 시간 사용을 무시한다. 이 접근법은 신고전적 경제학의 제한된 낙관화 기술의 측면에서 유급 근로와 여가를 부분 집합으로 포함하는 그 외 모든 활동에 사용된 시간의 합계(“잔여시간(residual time)”)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여가를 보다 복잡한 방법으로 다루는 생활시간 기준의 현대적 취급법은 Gronau(1976)가 고안했다. Mincer의 초기 연구를 인용해 Gronau는 무급 휴가(가계 생산)와 여가 활동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유급 근로/잔여 시간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정당한 이유는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서로 상충하는 시간 사용(가계 생산, 여가, 수면 등) 간 잔여 시간 분배의 안정성이 가정되었다는 점에 근거한다고 제안했다. Gronau는 여가, 가계 생산, 유급 휴가라는 3개의 요소로 구분되는 공식적인 모델을 발전시켰다. 그의 모델은 유급휴가를 통해 취득한 시장화된 상품과 가정에서 생산된 상품은 서로 완벽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시장 임금의 증가는 가계생산의 감소를 가져온다. 여가와 시장 활동에 미치는 임금 효과는 불확실하다. 소득 증가는 여가 시간을 증가시키고, 유급 근로를 감소시키나, 가계생산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데이터를 이용한 Bloch와 Gronau의 경험적 연구는 커플간의 여가가 남편의 임금 소득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부인의 임금 소득과는 부정적 관계가 있으며, 비급여(non-wage) 소득과는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제시한다. 자녀, 특히 미취학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여가 시간이 감소한다(Gronau, 1976, 표1).

가계생산을 통합시키기 위한 확장된 노동 공급 모델에는 Chiappori(1997) 와 Apps와 Rees(1996, 1997 및 2002)가 포함된다. 시장 활동, 가계생산, 여가 시간과 더불어, Gronau의 모델은 Solberg와 Wong(1992)이 연구한 직무 관련 여행 시간(work-related travel time)도 포함시키고자 확장되었다. 이들의 경험적 결과는 그들의 모델 예측과 상충하지 않으며, 저자들은 그 주된 이유가 시장 활동과 가계생산 간의 상호 완벽 대체라는 가정(Gronau와 공유한 가정)을 위반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상기 모델 중 어느 것도 여가에 수면을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Biddle과 Hamermesh (1990)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수의 노동 공급 모델은 무급 근로와 수면을 제외한 여가에 정해진 양의 시간이 분배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수면은 고정된 생물학적 요소이나 이론과 근거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Biddle과 Hamermesh는 이론적, 경험적으로 수면 시간은 다른 시간 사용의 형태와 함께 최소한의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한 자격으로, 몇몇 최근의 생활시간조사는 모든 형태의 수면을 여가로 분류하고 있다(Aguiarand Hurst, 2007; Engler and Staubli, 2008 참조).

잔여 유급 근로 시간 동향

단순히 유급 근로에 사용되지 않은 시간을 최대 여가 시간으로 간주함으로써 분석이 시작된다. 이 접근법에는 무급 근로와 출퇴근에 사용된 시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나,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비교의 근거가 되는 근로 시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 간 비교와 시간 변화에 따른 비교가 모두 가능하다. 근로 외 잔여 시간(residual time-not-worked)이라고 여가를 처음 정의함으로써, 연구 대상 국가의 범위는 좁지만, 여가 수준과 동향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견고한 개념적 접근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정규직 종사자의 연간 총 유급 근로 시간을 추산하고, 이에 따라 잔여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표 2.1참조). 물론, 이 접근법의 명확한 한계는 각국의 비교용 인구 다수의 여가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 잔여적 가치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표 2.1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 있다. 첫째, 각 국의 고용 인구의 연간 근로 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구 대상 국가의 잔여 여가의 표준 편차는 175시간 또는 주당 4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4주이다. 미국이 최저 잔여 여가를 나타낸 반면, 노르웨이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잔여 여가가 적은 다른 국가로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있다. 잔여 여가가 많은 국가로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 노르딕 국가와 서부 유럽 국가들이 있다.

만약 여가가 유급 근로 외의 활동에 소비된 시간으로만 인식된다면, 연간 근로 시간의 변화는 당연히 가용 여가 시간의 양의 변화에 반영될 것이다. 표 2.2는 1970년부터 2005년까지 OECD 국가의 근로 시간 평균 증가율을 조사한 것이다. 선택된 5년간 평균은 높은 빈도의 직무 주기의 변동을 상당부분 제거한다. 분명히 데이터는 완벽하지 못하며, 특히 초기(1970-85)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서 갖추어지지 못하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비율로 근로 시간의 감소 패턴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 1인당 유급 근로 시간이 상승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일부 계층에서 “시간 부족(time crunch)”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에서 유급 근로 인력의 환경 변화에서 발생하는 시간 부족의 개념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은 6개 OECD 국가에서 약 30년에 걸친 장기간의 연간 근로 시간 동향을 나타내기 위해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캐나다와 미국은 1980년 이후 1인당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 시간을 기록하며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패턴 역시 북미와 유사하다. 일본의 고용 인구 근로 시간은 급격히 감소해 미국, 캐나다, 영국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데이터를 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전혀 안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 종속 근로자(dependent employee)의 일반적 근로 연수 분석, 2006

정규직과 동등한 노동자의 평균 실질 연간 근로시간을 구성 요소별로 분해함

연간 근로 시간 ¹	연간 잔여 여가	주요직업의 시간외 근무 = 초과시간 + 가변시간 (예, 변경가능한 시간) + 기타				추가적인 일자리의 근로시간	연간 근로 주수	휴일 및 휴가 주수	휴가가 아닌 이유로 1주 이상 결근하는 주수	휴가가 아닌 이유로 1주 이내 결근하는 주수	질병이나 육아로 인한 결근 ²
		모든 직업에 있어서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된 직업에 있어서의 주당 일상 근로시간	(c) = (d)+(e)+(f)	(d)						
(a) = (c)*(g)	(b) = (365*24) - (a)	(c) = (d)+(e)+(f)	(d)	(e)	(f)	(g) = 52 - [(h) + (i) + (j) + (k)]	(h)	(i)	(j)	(k)	
시간		주당근로시간				근로 주수/비근로 주수					
호주(2005)	1733	7027	36.4	47.6
오스트리아	1590	7170	38.8	37.5	0.7	0.5	41.1	7.4	1.7	0.7	1.2
벨기에	1461	7299	36.0	35.4	0.3	0.4	40.5	7.1	2.2	0.4	1.8
캐나다(2005)	1579	7181	36.3	35.6	..	0.7	43.5	3.8	2.2	1.0	1.5
체코	1754	7006	41.3	40.4	0.7	0.2	42.5	6.3	1.6	0.2	1.5
덴마크	1367	7393	36.2	34.6	0.9	0.7	37.8	7.4	3.4	1.1	2.4
핀란드	1517	7243	38.6	36.9	1.2	0.4	39.4	7.1	2.4	1.6	1.5
프랑스	1459	7301	37.3	36.4	0.6	0.3	39.1	7.0	2.2	1.7	2.0
독일	1478	7282	36.1	34.3	1.4	0.3	41.0	7.5	1.7	0.6	1.1
그리스	1783	6977	40.0	39.6	0.1	0.3	44.5	6.7	0.3	0.2	0.3
헝가리	1889	6872	41.3	40.6	0.3	0.4	42.6	6.2	1.5	0.2	1.4
아이슬란드(2006)	1748	7012	43.9	41.3	1.2	1.4	39.9	6.2	2.4	1.6	2.0
아일랜드	1543	7217	35.8	35.0	0.5	0.3	43.2	5.7	1.6	0.3	1.3
이탈리아	1536	7224	37.3	36.8	0.3	0.2	41.2	7.9	1.4	0.3	1.2
룩셈부르크	1541	7219	37.7	36.7	0.8	0.2	41.0	7.4	1.6	0.5	1.6
네덜란드	1325	7435	31.6	29.5	1.6	0.5	41.9	5.3	2.2	0.9	1.6
노르웨이	1290	7470	35.7	33.1	1.9	0.7	36.1	6.5	4.4	1.7	3.3
폴란드	1806	6954	41.5	40.0	0.4	1.1	43.5	6.2	1.3	0.1	1.0
포르투갈	1675	7085	40.0	39.0	0.2	0.7	41.9	7.3	1.5	0.2	1.1
슬로바키아	1775	6985	40.8	40.3	0.3	0.2	43.5	6.9	0.7	0.1	0.7
스페인	1601	7159	39.1	38.2	0.6	0.3	41.0	6.8	1.9	0.5	1.8
스웨덴	1386	7374	37.5	35.6	1.3	0.6	36.9	6.8	3.3	1.8	3.2
스위스	1618	7142	37.8	34.3	2.9	0.6	42.9	6.0	1.4	0.9	0.9
영국	1530	7230	37.5	36.6	0.6	0.3	40.8	6.5	2.1	1.3	1.2
미국 ³ (2005)	1896	6864	41.3	38.5	2.7	..	45.9	3.8	1.6	..	0.7
OECD25	1595	7165	38.2	36.9	0.9	0.5	41.6	6.5	1.9	0.8	1.5
변동계수	0.11	0.02	0.07	0.08	0.81	0.62	0.06	0.16	0.44	0.75	0.47

1. OECD 사무국이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고용 인구의 연간 실질 근로 시간을 추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위해 OECD 고용 전망 2004(OECD Employment Outlook 2004)의 부록 2.A1 참조. 이 표에 제시된 모든 유럽 국가들의 피고용인 1인당 연간 근로 시간 추산을 위해 동일한 방법이 사용됨.
2. 이 기간은 이미 h,i 컬럼에 포함되어 있으나, 호주를 제외하고는 실제보다 50% 가량 적게 신고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 두 번 포함됨 (부록 2.A1참조)
3. 이 추정치는 총 정규직 고용을 나타냄. 휴가 외의 이유로 인한 한 주 전체 결근이 보고됨.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for European countries based on European Labour Force Surveys results and EIRO (2005). Estimates for Australia, Canada, United States based on ECO/CPE/WP1(2007)11/ANN2.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1047830221>

표 2.2. 5년간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근로 시간 증가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호주	-0.2	-0.2	-0.1	-0.1	0.0	0.0	-0.7
오스트리아	-0.2	0.3
벨기에	-0.5	-0.9	-1.5	0.1
캐나다	-0.6	-0.7	-0.1	0.0	-0.1	-0.1	-0.3
체코	0.3	-0.9
덴마크	-2.4	-0.3	-0.5	-1.1	-0.2	0.7	0.3
핀란드	-0.9	-0.5	-0.4	-0.5	0.1	-0.3	-0.4
프랑스	-1.0	-0.7	-1.2	-0.3	-0.6	-0.7	-0.4
독일	-0.8	-0.5
그리스	-0.4	0.1	0.0	-0.3
헝가리	-0.4	0.6	0.2	-0.7
아이슬란드	-1.5	-1.5	-0.1	-0.2	-0.1	0.6	-1.0
아일랜드	0.2	-1.2	-1.7	-0.8
이탈리아	-1.3	-0.6	-0.6	0.1	-0.5	0.0	-0.5
일본	-1.2	0.1	-0.3	-0.6	-1.5	-0.7	-0.5
한국	0.1	-1.5	-0.2	-1.1	-1.4
룩셈부르크	0.0	-0.5	-0.7	-1.1
멕시코	0.3	0.2
네덜란드	-1.6	-0.3	0.0
뉴질랜드	0.3	-0.1	-0.2
노르웨이	-1.2	-1.8	-0.5	-0.5	-0.2	-0.4	-0.5
폴란드	0.1
포르투갈	-0.7	-1.4	-0.1
슬로바키아	-0.7	-0.8
스페인	-1.5	-0.3	-0.1	0.0	-0.5
스웨덴	-1.6	-1.1	0.3	0.3	0.8	0.0	-0.5
스위스	-1.0	-0.8	-0.8	-0.4	0.0	-0.2	-0.3
터키
영국	-0.6	-1.2	-0.1	0.1	-0.3	-0.4	-0.4
미국	-0.7	-0.3	0.2	-0.1	0.1	-0.1	-0.4
OECD	-1.1	-0.7	-0.4	-0.3	-0.3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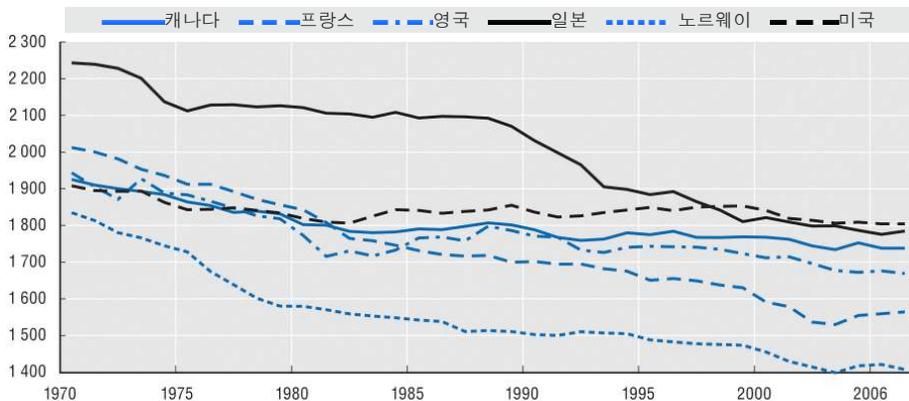
.. 자료없음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1055031276>

그림 2.1. 1970-2006: 장기간에 걸친 연간 근로 시간의 감소

일부 OECD 국가의 전체 노동 인구의 연간 근로 시간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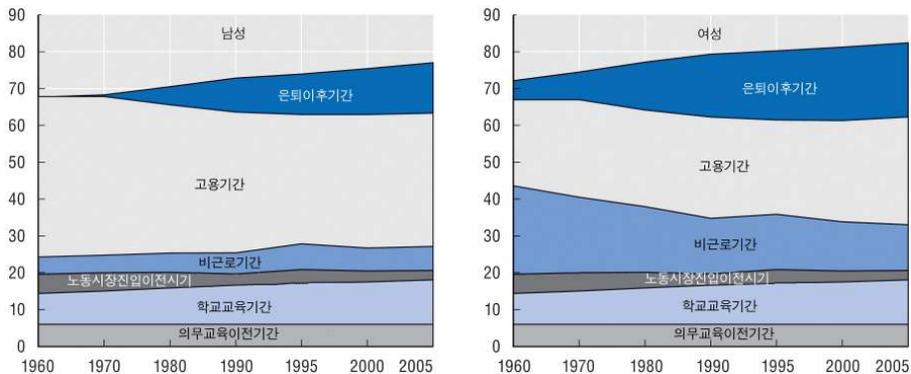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525556001>

생애에 걸친 시간의 분배

생활시간조사(time-use survey)의 여가 패턴 연구를 위한 두 번째 맥락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애 주기에 걸쳐 종사했던 “주요 활동(main activity)”에 대한 연구이다. 횡단면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 내용(contextualisation)은 생애에 걸친 시간 사용(time-use)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이는 어떤 한 사람(예, 15세)이 겪을 노동시장결과 및 출산율과 관련한 생애(예, 15-64세) 경험이 현재 그 연령대(15-64세)에 있는 인구의 오늘날 행동을 보고 짐작할 수 있다는 강한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근원적 가정은 기대 수명 또는 총출산합계를 계산의 근거가 되는 가설과 동일하다.

사람의 생애 주기가 각기 다른 주요 활동에 소비한 연수로 분해되는지 보여주는 그림 2.2가 주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나타내는 데이터는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 OECD 국가의 평균에 근거한 것으로 몇 가지 기초가 튼튼한 패턴들을 강조한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패턴은 남성의 유급 휴가 연수의 지속적 감소와 동시에 여성의 유급 휴가 연수 증가일 것이다. 기대 수명 증가의 결과로 은퇴 이후 기간의 증가 추세 역시 나타나고 있다. 빠른 은퇴 연령과 기대 수명 증가라는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 여성의 빨라진 은퇴 연령과 은퇴 이후 기간의 증가도 관찰되었다. 여성의 교육 시간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의 여성 교육 격차 해소를 분리시키기 위한 추가 연구가 예정되어 있다.

그림 2.2. 전형적 OECD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이 다른 활동에 소비한 연수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526737374>

1일 평균 여가

상기 분석은 1년간 OECD 국가 간 유급 근로 시간의 평균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나아가, 연간 평균 근로 시간은 지난 30년간 감소해왔다. 그러나 연간 근로 시간의 감소가 반드시 사용 가능한 여가 시간의 대칭적 증가를 의미하는가? 대답은 “아니다”이다. 대상 인구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모든 잔여 시간이 여가에 소비되었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잔여적 접근의 약점은 명백하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약점은 점진적으로 전형적인 한 해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부분적인 직관을 제공할 뿐이다. 사람들이 여가를 위해 따로 분배하는 시간의 유형적 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조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2. 특별 포커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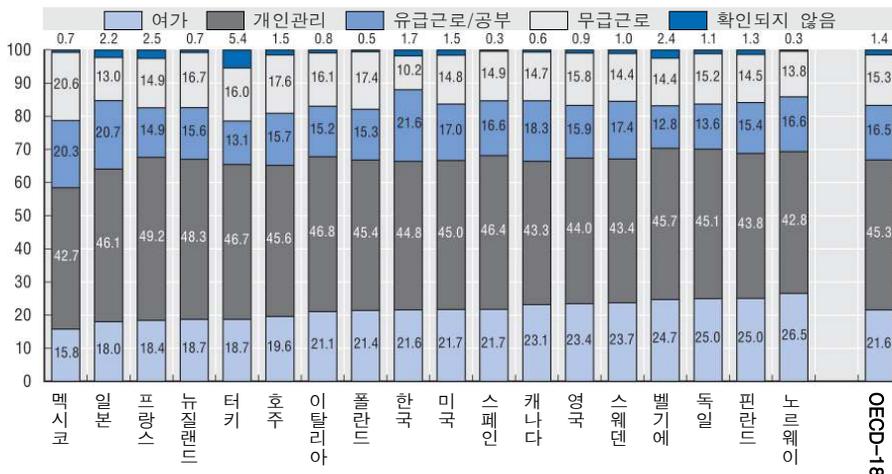
한 개인이 평균 1년간 평균 1일 여가에 사용한 시간의 비중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인이 다른 주요 활동 중에서 24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사용된 접근법은 하루의 시간을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이다. 5개의 시간 카테고리는 1) 좁은 의미에서의 여가, 2) 유급 근로, 3) 무급 근로, 4) 개인 관리(personal care), 그리고 5) 기타 시간(고려 또는 정의되지 않은 시간의 사용)이다. 이제까지 완전한 방법적 표준화와 호환성은 생활시간조사(time-use survey)를 통해 달성할 수 있었고, 국가 간 비교는 평균 일일 동안 사람들이 시간을 나누는 방법에서 관찰된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유념해야 할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생활시간조사의 결과는 질병 및 휴가 시 시간 분배 측정의 측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시간조사는 OECD 전체국가 중 60%만 제공할 수 있으며 (본 장에서는 18개국의 조사를 분석하였다.) 조사의 방법도 상당히 달랐다. 안타깝게도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의 기존 생활시간조사를 포함하기에는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했다.

“유급 근로(paid work)”는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를 포함하고, 직장에서 보낸 시간,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 구직시간, 학교에서 보낸 시간, 학교 통학시간 및 재택 유급 근로 시간으로 분류된다. “무급 근로(unpaid work)”는 모든 가사 노동(허드렛일, 요리, 청소, 육아, 가족 및 가족 외의 사람 돌보기, 자원봉사, 쇼핑 등)을 포함한다. “개인 관리(personal care)”는 수면, 식사, 기타 집안일, 의료 및 개인 서비스(위생, 몸단장, 병원 방문, 미용실 방문 등)를 포함한다. “여가”는 취미 활동, 게임,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 사용, 기분 전환을 위한 정원 가꾸기, 스포츠, 친구 및 가족과의 친목 도모, 행사 참여 등을 포함한다. “기타 시간”은 상기 언급된 모든 활동을 제외한 활동을 포함한다.

그림 2.3은 18개 OECD 국가에서 사람들은 개인 관리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 관리에 사용된 시간 비중의 격차는 6퍼센트 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캐나다, 스웨덴, 멕시코가 43%로 최저, 프랑스는 49%로 최고를 기록했다.

그림 2.3. 평균 하루 동안 여가와 기타 행위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

OECD 18개국의 15세 이상 응답자가 주요 활동에 소비한 24시간의 시간별 분류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528164155>

개인 관리를 구성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모든 국가에서 개인 관리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수면이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사람들은 일일 평균 8시간 22분의 수면을 취한다. 따라서 수면은 OECD 국가에서의 개인관리 시간의 77%를 차지한다. 두 번째 주요 구성 요소는 모든 OECD 국가(식사 시간이 다른 개인 관리 시간과 분리되어 계산되지 않은 관계로 터키는 제외된다)에서 개인 관리 시간의 14% 또는 1시간 37분을 차지하는 식사이다. 이에 따라, 수면과 식사는 평균적으로 개인 관리 시간의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개인 관리 시간에는 “개인, 의료, 가사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 마지막 카테고리는 개인위생, 병원 방문, 머리 자르기, 차수리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수면, 식사, 음주, 개인위생이 여가 시간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늦잠, 친구, 가족과 긴 점심시간 보내기, 머리 감기 또는 자르기 서비스) 개인 관리와 여가의 구분에 있어 자의성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개인 관리에 이어, 여가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카테고리로 나타났는데 OECD 18개국에서 평균 전체 시간의 22%를 차지한다. 여가 시간은 노르웨이가 전체 시간의 27%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가 1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의 양은 벨기에, 독일, 핀란드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정 반대로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에서는 여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일본과 멕시코는 유급 근로 시간의 비중이 여가 시간 비중보다 높은 유일한 두 국가이다. 한편 한국은 유급 근로와 여가 활동 비중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15개국은 모두 여가 시간 비중이 유급 근로 시간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평균적으로 OECD 18개국에서, 유급 근로 시간은 여가 시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이는 경미하다.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이탈리아, 폴란드, 벨기에,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무급 근로에 유급 근로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멕시코는 무급 근로 시간이 여가 시간보다 더 많은 유일한 국가로 나타났다.

4개의 가장 큰 시간 카테고리(여가, 개인 관리, 유급 근로, 무급 근로) 중, 여가 시간의 비중이 국가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멕시코와 노르웨이 양국 간 여가 시간 비중은 11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다. 무급 근로 시간의 비중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최저)과 멕시코(최고) 간 11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기록했다. 유급 근로 시간 비중의 차이는 이보다 적어 벨기에(최저)와 한국(최고) 간 9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 관리와 여가의 경계의 자의성이 이미 논의된 점을 고려할 때, 여가에 소비한 시간을 측정하는 대안적 방법은 개인 관리 시간을 최저 국가 수준(멕시코의 경우 하루 전체 중 평균 42.7%)으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개인 관리 시간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의 비율은 필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최저치를 제시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폭 넓은” 정의에 따른 여가로 분류되는 것은 그림 2.3에서 이미 측정되고 보고된 “좁은 의미의” 여가에 “잉여” 개인 관리 시간을 최저 국가 비율로 나눈 것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여가” 계산법의 결과는 그림 2.4에 나타나있다. OECD 18개국의 평균 여가 시간이 전체 시간의 21.6%(“협의”의 여가)에서 24%(“광의”의 여가)로 상승했다. 국가 간 차이도 상당히 커서 멕시코는 일일 평균 여가에 소비하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16%로 가장 적었고, 벨기에의 경우 전체 시간의 27%를 기록해 11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타 국가들 간에는 여가의 동일성이 더 컸다.

2. 특별 포커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여가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 순위에도 상당한 차이가 생겼다.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는 프랑스(9단계 상승), 이탈리아(6단계 상승), 뉴질랜드(5단계 상승)이다. 이 세 국가는 OECD 여가 평균의 평균 이하에서 평균 또는 평균 이상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폭넓은 여가 시간의 측면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국가는 캐나다(6단계 하락), 스웨덴과 한국(각각 4단계 하락)이다.

그림 2.4. 여가의 정의가 확장됨으로써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국가순위가 변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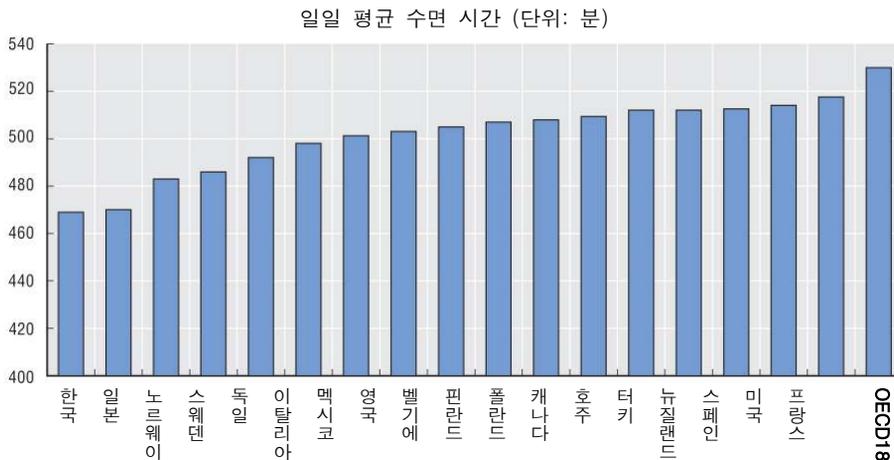


각주: “넓은 의미의 여가”는 최저 국가 수준에 맞추어 기준화된 일일 개인 관리 시간 수준을 의미한다. 모든 잉여 개인 관리 시간은 초기 여가 가치로 재 할당된다.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604870643>

그림 2.5. 프랑스인들의 수면 시간이 가장 길다.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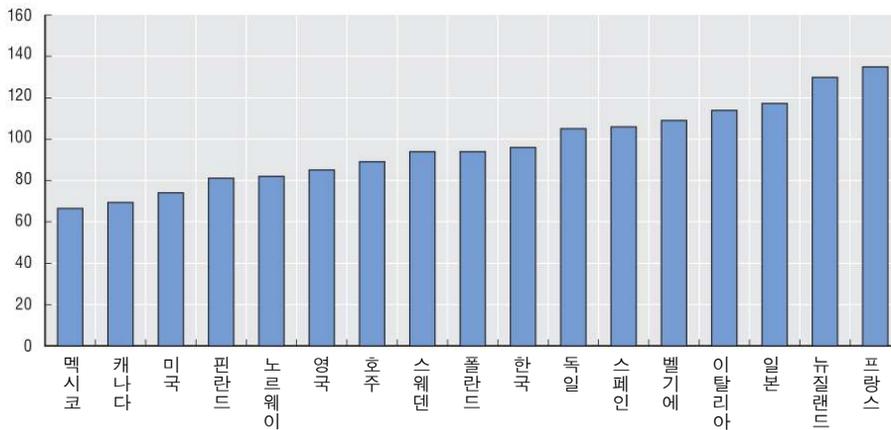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614043010>

프랑스의 경우, 큰 폭의 변화의 직접적 이유는 매우 높은 개인 활동 시간 비중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치인 49%를 기록했는데 이 중 일부가 여가 시간으로 재분배되었다. 이와 같은 높은 개인 관리 시간 비중의 측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인들의 높은 수면량이다(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면이 개인 관리로 분류되어 있음). OECD 국가별 수면 데이터는 아래 그림 2.5와 같다. 평균적인 프랑스인은 OECD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적은 한국인에 비해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긴 수면 시간을 갖는다.

많은 문화권에서 이미 여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관찰된 또 다른 중요한 개인 활동은 식사이다. 그림 2.6은 식사 시간이 가장 긴 나라와 가장 짧은 나라 간에 일일 평균 1시간 30분의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확장된 여가 순위에서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는 프랑스, 뉴질랜드인데 두 나라 모두 식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매일, 프랑스인들은 멕시코, 캐나다, 미국인들의 2배에 달하는 식사 시간을 갖는다.

그림 2.6. 프랑스인들은 식사와 음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일일 평균 식사 시간 (단위: 분)



각주: 터키의 시간 사용 조사 데이터는 개인, 의료, 가사 관리를 식사 및 음주와 분리하지 않고 있어, 터키는 표에서 제외되었다. OECD 평균에 근거하여 식사와 음주 시간으로부터 개인, 의료, 가사 관리를 분리한 임시 데이터에 의하면 터키는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621131285>

개인 관리 중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카테고리는 “개인, 의료, 가사 서비스”이다. 이러한 활동에 소비한 시간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핀란드는 일일 43분, 한국은 일일 77분으로 나타났다. (표 2.7 참조)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한 시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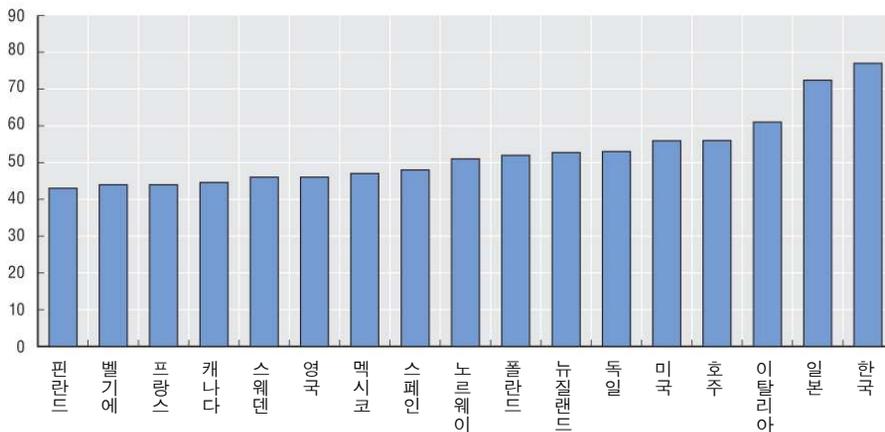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모든 성인에게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가의 패턴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좁은 측정이 이용됨).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시간 사용 조사를 실시했던 일부 국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²이

2. 특별 포커스: OECD 국가의 여가 수준 측정

포함된다. 매 국가마다, 제공할 수 있는 장기 데이터의 최대 기간 범위와 빈도는 다르다. 모든 경우에, 빈도는 낮으며 이에 따라 중단면 시간 추세에 대한 결론은 조심스럽게 도출되어야 한다. 그림 2.8은 지난 40년 동안 상기 언급된 국가가 경험한 여가에 할당된 시간 비중의 각기 다른 변화 추세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여가에 소비된 시간의 비중이 감소했는데, 영국도 이 보다는 덜 두드러지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노르웨이의 경우, 데이터가 제공된 기간 전체에 걸쳐 여가 패턴에 큰 변화가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긴 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제공한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유럽의 OECD 국가보다 기본적으로 여가 시간이 적기는 하지만 여가 시간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자발적, 비자발적 여가 시간의 변화는 조명할 수 있으나, 비즈니스 주기에 따른 여가 활동의 변화를 연구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충분한 빈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그림 2.7. 일본과 한국은 개인, 의료, 가사 서비스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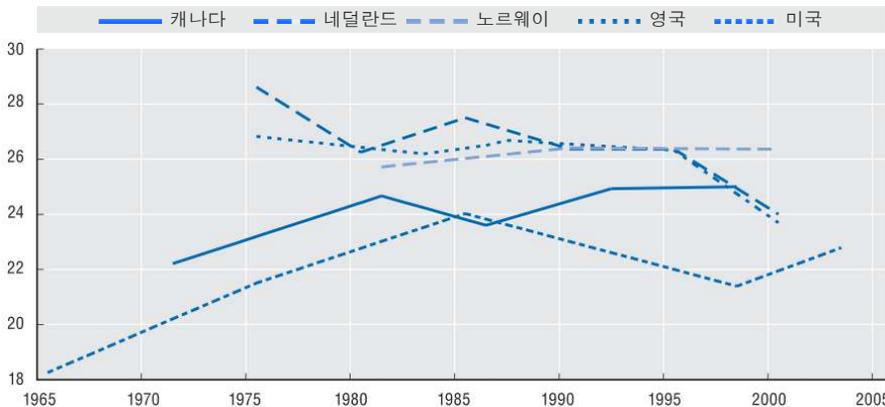
일부 OECD 국가의 전체 노동 인구의 연간 근로 시간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http://dx.doi.org/10.1787/548662533470)

그림 2.8. 시간 사용 조사에 나타난 시간 동향

5개 OECD 국가의 일일 평균 여가 시간 비중의 장기적 동향 (단위: 퍼센트)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http://dx.doi.org/10.1787/548718113783)

여가 분배 패턴

인구학적 특징과 여가

여가 활동에 소비한 시간이 각기 다른 사회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섹션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다른 사회 계층의 여가 패턴에 대해 알아본다.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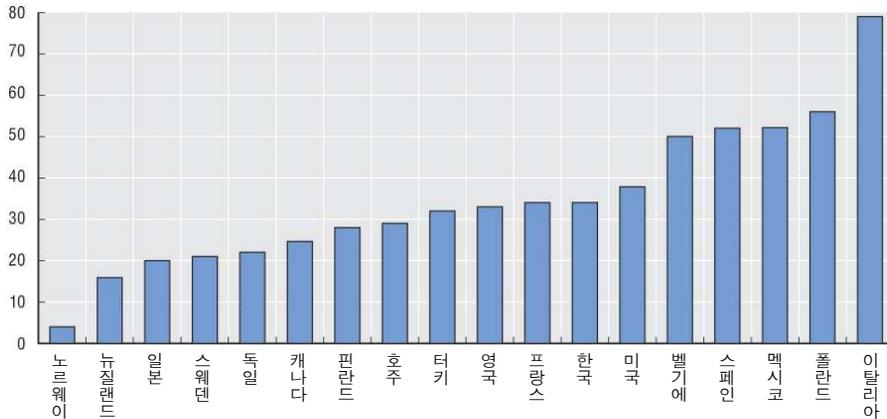
OECD 국가 전체에서 남성과 여성 간 여가 시간의 양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유급, 무급, 전체 근로의 성별 차에 대한 비교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가의 성별 차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적었다. Burda외의 연구자들(2007)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의 시간 사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에서 여가 시간의 성별 차는 미미하다.” 는 결론을 도출했다. Burda 등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미미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들은 한 해를 기준으로 한 여가 시간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분/1일 단위를 이용해 성별 차를 보고했다.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그러나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성별 차가 가장 낮은 노르웨이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연간 55시간 더 많은 여가를 누린다. 대부분의 정규직 유급 근로자가 매년 일주일 간의 추가 휴가를 “미미” 하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Burda 등이 보고한 일일 기준 여가 시간의 성별 차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표 1.1과 표 1.2),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네덜란드는 연간 116시간, 미국 128시간, 스웨덴 134시간, 영국 170시간, 독일 176시간, 덴마크 195시간, 벨기에 213시간, 핀란드 225시간, 프랑스 280시간, 이탈리아 444시간의 성별 차가 있었다.

OECD 18개국의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한 아래의 그림 2.9에서 남성이 보편적으로 여성에 비해 좁은 의미의 여가로 분류되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Burda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아래 표에서 노르웨이의 경우 성별 차는 통계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하루에 몇 분 이내). 이와 반대로, 이탈리아 여성의 경우 남성에게 비해 일일 평균 여가 시간이 80분 가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urda (2007, pp. 4-5)의 연구는 이미 이탈리아 여성의 높은 무급 근로 시간 비중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탈리아 남성의 경우 텔레비전 시청 시간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 여성의 추가 근로 시간 중 대부분이 집안 청소 사용된다.

그러나 여가 시간의 성별 차는 시간이 “여가” 혹은 “개인 관리” 중 어떤 방법으로 분류되는 지에 따라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개인 관리는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림 2.10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여성이 일일 평균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벨기에, 미국 등의 경우 특히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남성이 여성보다 개인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국가는 이탈리아, 폴란드, 한국, 멕시코로 조사되었다. 멕시코의 경우, 남성의 개인 관리 시간이 특히 더 길어서 평균 일일 30분가량 더 많았다.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멕시코 남성의 일일 평균 수면 시간이 여성보다 25분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인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수면 시간이 OECD 평균을 조금 밑돌고 있다.)

그림 2.9.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린다.

여가 시간의 성별 차(단위: 분), 양의 값은 남성 우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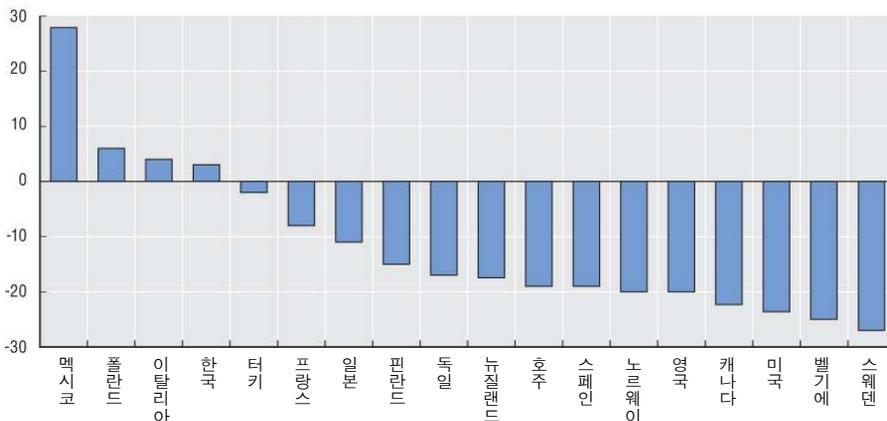
각주: 협의의 여가 정의가 이용됨.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724153767>

그림 2.10. 남성은 여성보다 개인 관리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적다.

개인 관리 시간의 성별 차 (단위" 분/1일), 양의 값은 남성 우위를 나타냄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733815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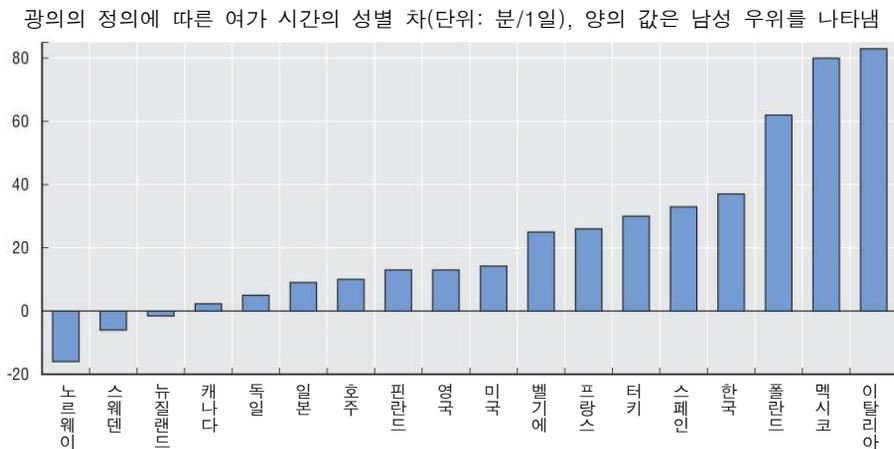
폭넓은 정의에 따른 여가의 성별 차를 살펴보기 위해, 일일 개인 관리 시간이 최저 국가 수준에 맞추어 다시 표준화되었다. (멕시코 여성의 경우 602분) 이를 초과하는 남성, 여성의 개인 관리 시간은 여가로 재 할당된다. 이러한 재조정은 남성과 여성 간의 폭넓고 더 나은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2.11).

여가와 유사한 성격의 개인 관리 시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에서 남성들은 여전히 여성에 비해 폭넓은 의미의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차는 멕시코와 이탈리아에서 특히 강하게 두드러졌다. 그러나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3개 국가에서는 여성이 폭넓은 의미의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일 평균 16분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갖는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 우위는 실질적 중요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남성에게 유리한 여가의 성별 차는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다수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한국은 협의의 정의에 따른 여가 시간에 대한 기준에 존재하는 성별 차가 개인 관리의 성별 차를 포함시킴으로써 증가한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가에 대한 광의, 협의의 정의를 적용한 것과 관계없이 대부분 국가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은 여가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³

여가 시간의 성별 차를 고려함에 있어 발생하는 또 다른 한계는 쇼핑을 여가 활동으로 분류하는가에 대한 성별차이다. 상기 분석에서, 모든 쇼핑은 무급 근로로 분류되었다. 이로 인해, 여가 시간이 감소했고, 나머지 카테고리들은 동일하다.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알려진 또 다른 사실을 여성이 남성보다 쇼핑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남성은 일일 평균 43분 쇼핑을 하는데 비해 여성의 59분간 쇼핑을 한다. 독일의 경우, 남성은 46분 그리고 여성은 66분, 이탈리아의 경우, 남성은 33분 그리고 여성은 53분,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우 남성은 36분 그리고 여성 53분의 쇼핑 시간을 기록했다(Burda 외, 2007, 표 1.1).⁴ 쇼핑시간 중 일부가 여가로서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여성에게서 쇼핑을 여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2.11.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넓은 의미(broadly-defined)에서의 여가를 누린다.



각주: “광의의 정의에 따른 여가(Broadly-defined leisure)”는 최저 국가의 수준에 맞추어 기준화된 일별 수준과 성별 차를 고려한 수준의 개인 관리를 의미하며, 잉여 개인 관리 시간은 양성의 당초 여가가치에 따라 재할당된다.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741477728>

연령대별 여가 패턴

생애 주기에 걸친 여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인간의 생애 주기를 나타내는 종단면

(longitudinal)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수집이 불가능하다. 데이터의 부재로, 연령대별 섹션 간 시간 사용 데이터가 여가가 개인의 생애 주기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준다. 예상한 대로, 청소년층과 특히 노년층은 노동 연령대 인구보다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에서 분석된 18개 OECD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는 다른 연령대의 인구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여가에 소비했다. 여가에 소비한 시간의 퍼센티지는 캐나다, 노르웨이, 폴란드가 39%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65세 이상 인구의 여가 시간이 가장 적은 멕시코의 경우는 25%를 기록했다.

15-24세 인구의 여가 시간 비중은 일반적으로 노동 연령 인구의 여가 시간 비중보다 높았다. 예상한 대로, 청년들의 여가 시간 비중이 25-44세 인구의 여가 시간 비중보다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놀라운 것은 45-64세 인구와 비교했을 때, 아마도 이 연령대의 인구의 대부분 또는 모두가 아직 공식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여가 시간의 비중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연령대가 높은 노동 연령 인구의 가족 내 아동의 부재가 이들이 연령대가 낮은 노동 연령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강력한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핀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는 청소년의 여가 시간이 하루 전체 시간 중 평균 30% 또는 그 이상의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청소년의 여가 시간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로 OECD 18개국 평균을 밑도는 9퍼센트를 기록했다.

표 2.3. 청년층과 노년층이 노동 연령 인구에 비해 여가 시간이 많다

연령대별 인구의 여가 시간 비율, 하루 전체 시간 중 여가 시간의 퍼센티지

	15-24	25-44	45-64	65세이상
호주	27	17	22	34
벨기에	28	23	29	38
캐나다	27	18	23	39
핀란드	30	23	27	38
프랑스	27	22	25	37
독일	29	23	29	37
이탈리아	30	21	25	37
일본	21	16	19	34
한국	24	22	25	33
멕시코	18	11	16	25
뉴질랜드	30	20	22	35
노르웨이	29	24	28	39
폴란드	28	22	26	39
스페인	28	20	26	35
스웨덴	29	21	25	38
터키
영국	27	22	26	36
미국	27	20	23	37
OECD18	27	20	25	36

각주: 이 표는 노르웨이의 개인관리 수준을 최저수준으로 이용하고, 잉여 개인관리 시간은 여가로 분배함으로써 얻어진 폭넓은 여가 수준을 이용하고 있다.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1073760502>

특정 공공 정책이 개인의 직업 생활에 대한 보다 균형적인 접근법을 추진했거나, 최저 세율이 매우 높은 국가에서는 25-44세 연령대 인구가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리는 경향이 있었다: 노르웨이(24%), 핀란드, 벨기에, 독일(각 23%)이 25-44세 연령대 인구의 여가 활동에서 선두에 있다(Parnanen 외, 2005).

여가활동의 종류

인기있는 여가 활동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OECD 각국의 국민들이 즐기는 여가 활동에는 큰 차이가 있는가? 표 2.4는 여가에 소비된 시간을 다음과 같이 5개 주요 여가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집에서의 멀티미디어 오락(집에서 텔레비전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기타 여가 활동(다양한 취미 생활, 인터넷 사용, 전화 통화 등), 친구 방문 및 친목도모(사적, 공적 장소를 모두 포함) 사회 행사 참여(콘서트, 극장, 박물관 등), 스포츠(개인 또는 단체로 정기적인 신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OECD 18개국에서 평균적으로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가 전체 여가 시간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장 인기 있는 여가 활동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 시청은 멕시코가 48%로 가장 높았고, 뉴질랜드가 25%로 가장 낮았다.

표 2.4. 조사 대상 OECD 국가에서 텔레비전 시청이 선호되는 여가활동으로 나타난다.

전체 여가 시간 중 각기 다른 여가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

	TV,라디오 시청	기타 여가 활동	친구 방문, 유흥	행사 참여	스포츠
호주	41	47	3	2	6
벨기에	36	42	8	8	5
캐나다	34	34	21	2	8
핀란드	37	40	7	8	8
프랑스	34	45	6	7	8
독일	28	46	4	15	7
이탈리아	28	48	6	10	8
일본	47	42	4	0	6
한국	35	41	16	1	7
멕시코	48	33	10	4	5
뉴질랜드	25	45	24	2	5
노르웨이	31	33	14	15	8
폴란드	41	38	6	8	6
스페인	31	41	4	12	12
스웨덴	31	42	7	11	8
터키	40	25	34	0	2
영국	41	39	7	10	4
미국	44	32	16	2	5
OECD18	36	40	11	6	7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conclusions derived from these figures should be tentative: national time-use surveys' methodologies differ in the way they choose to include or exclude the measure of secondary activiti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1081652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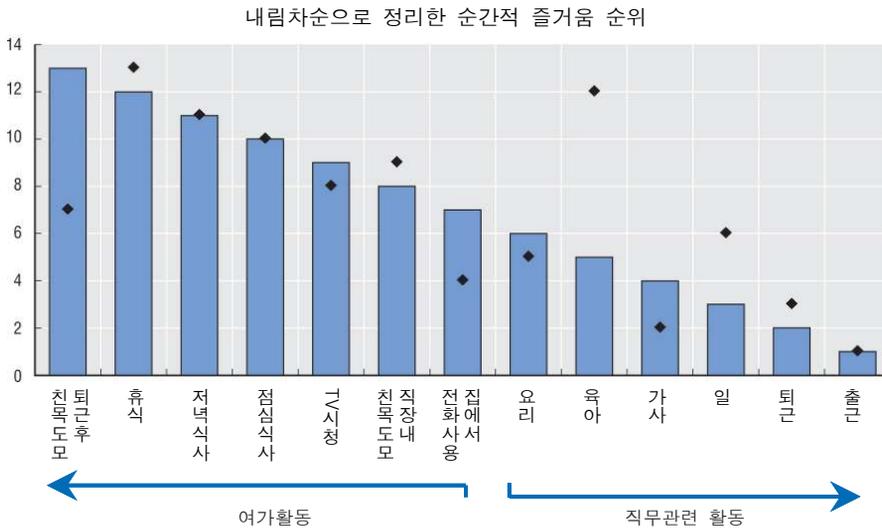
평균적으로 “기타 여가 활동”도 매우 인기가 높다. 이러한 인기는 기타 여가 활동 카테고리인 취미 생활, 컴퓨터게임, 기분 전환용 인터넷 사용, 전화 통화, 예술, 공예, 애완동물 산책시키기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카테고리라는 점에 일부 기인한다. 기타 활동은 이탈리아 국민들의 여가 시간 중 48%를 차지하는 반면, 터키 국민들의 여가 시간 중 25%만을 차지한다. 카테고리로서의 크기를 고려할 때, 다른 카테고리를 주요 하위 카테고리 별로 제시하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위 카테고리 분류는 주요 하위 카테고리의 정의가 국가별로 충분한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한 관계로 불가능하다.

친구 방문 또는 친목 도모는 터키는 최고치인 34%, 호주의 경우 최저치인 3%를 기록해

국가 간 차이가 매우 크다.⁵ 문화 행사 참여, 스포츠 활동 참여 등 보다 “적극적” 형태의 여가는 모든 조사대상 OECD 국가에서 그다지 큰 인기가 없는 편이었다. 문화 행사 참여 또는 주최는 독일과 노르웨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행해지는 반면, 일본, 한국, 터키에서는 흔하지 않다. 스포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는 여가 시간의 12%, 벨기에,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기타활동에 사용한 시간에 대한 만족도

그림 2.12. 여가활동 만족도가 직무 관련 활동 만족도보다 높다(미국).



각주: 상기 접근법은 “웰빙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행동 자체에서 생성되는 일련의 만족감”이라는 Juster(1985; p.333)의 독창적 연구를 발전시킨 것이다. 행동에서 발생하는 만족감을 평가하기 위해, Juster는 응답자들에 직업 또는 자녀 보육 등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0에서 10의 척도를 이용해 만족도를 매길 것을 요구했다. 이후의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만족도 평가가 활동의 특정 순간에 종속된 단편적 평가와 편차가 있으며 이는 중요하고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rueger 외 연구자들은 특정 일자의 실제 행사와 상황에서 연상된 감정적 경험과 더 긴밀하게 연결된 시간 일기법, 일상재구성방법(Day Reconstruction Method, DRM)을 이용했다. DRM은 종이와 펜을 이용해 작성하는 질문지로서 개인에게서 이전 날짜의 일기 정보를 처음으로 떠올리도록 한다. 메모된 각 에피소드에 대해 개인은 행동의 특성을 기재하고, 존재 또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감정의 정도를 기재한다. 개인들은 감성의 몇 가지 차원에서의 강도의 측면에서 매 에피소드 당시 그들의 감정 상태를 묘사한다. 감정에는 긍정적(예, “행복”, “자아 만족”, “친밀함”) 감정과 부정적 감정(예, “우울함”, “분노”, “좌절”)이 있다. 따라서 DRM은 경험 샘플과 시간 일기 등의 요소를 조합하며, 구체적으로 정확한 감정적 연상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OECD calculations from data in Krueger et al. (20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756102110>

상기 언급된 다양한 활동들은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 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않는다(즉, 본 장의 서론에서 언급된 여가에 대한 “정신 상태(state of mind)” 접근법) 웰빙과 여가 활동에 대한 시간 분배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조사와 만족 조사

(Krueg 외, 2008)라는 두 가지 출처에서 인용된 정보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특정 활동의 성취에 대한 만족 수준을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그림 2.12는 응답자들이 성취된 활동(“평가적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 또는 응답자들이 여전히 특정 활동(“순간적 데이터 포착”)을 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을 하도록 요구 받았는지에 따른 활동의 순위의 변화를 나타낸다. 데이터와 조사 모두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범위까지 다른 OECD 국가들이 유사한 패턴을 따르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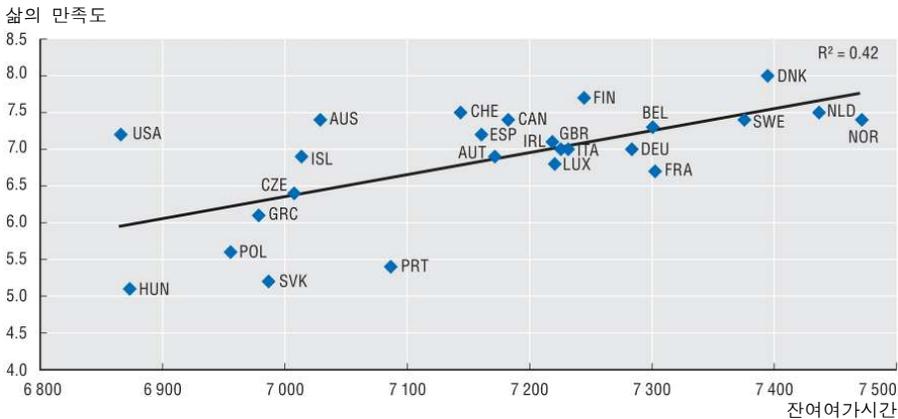
상기 측정치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휴식과 퇴근 후 친목 도모가 출퇴근에 비해 훨씬 더 선호되었다. 예상한 대로, 텔레비전 시청, 식사(시간 사용 접근법은 전통적으로 식사를 개인 관리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휴식, 동료들과의 친목 도모는 순간적 데이터 측면에서 꾸준히 높은 수준의 선호도를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직장 또는 가족에 대한 의무적 활동은 순간적 즐거움의 척도에서 순위가 매우 낮았다.

대부분의 활동의 순위는 응답자의 평가적 판단에 따라 순위가 달라졌다. 그 중 두드러진 것은 자녀 보육은 현재의 평가적 판단으로써 가장 즐기는 여가 활동으로 인식된다. 일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퇴근 후 친목 도모나 가사 노동과 같은 일부 활동 역시 높은 불일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경우 현재의 평가적 판단보다는 과거 회고적 평가적 판단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즐거움을 갖는 여가활동이다.

삶의 만족도 및 시장소득 측정치와 비교한 여가 시간

여가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여가 시간이 국가 차원에서 다른 웰빙 측정치와의 상관관계의 정도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웰빙에 대한 두 가지 대리 측정치를 여가 시간의 두 가지 측정치와 비교했다. 선택된 두 가지 웰빙 측정치는 전통적인 시장 소득 측정치(이 경우, 1인당 국민순소득-NNI)와 주관적 웰빙 측정치(갤럽 월드 폴 2006, 삶의 만족도 데이터)이다. 주요 여가 측정치 두 가지는 총 연간 시간에서 연간 총 근로 시간을 빼서 계산된 잔여분과 폭넓은 시간 사용 측정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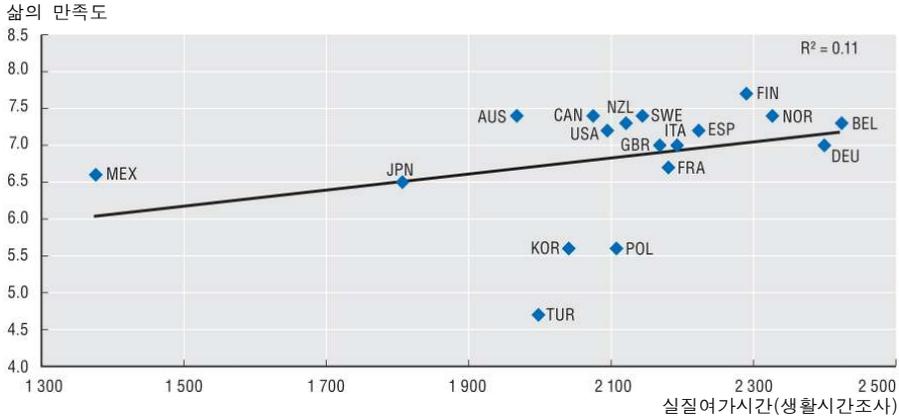
그림 2.13. 잔여 유급 근로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출처: Data from the 2006 Gallup Life-satisfaction Survey and other OECD data.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European Labour Force Surveys results and EIRO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761055333>

그림 2.14. 폭넓은 여가 시간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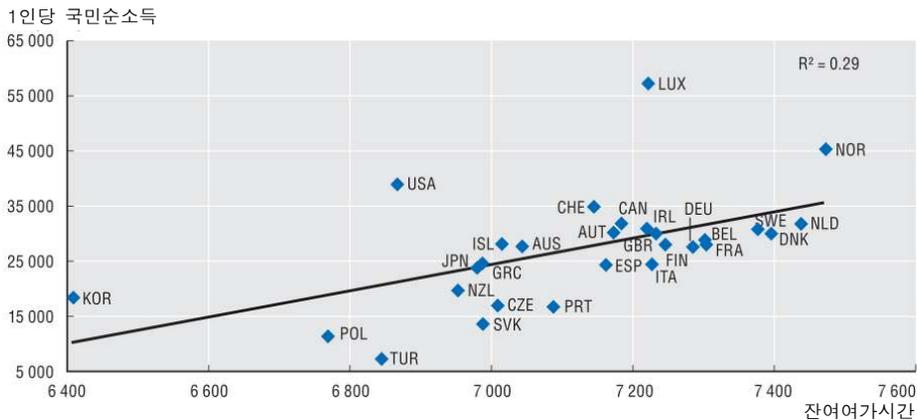


출처: Data from the 2006 Gallup Life-satisfaction Survey and other OECD data.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770544734>

그림 2.13과 2.14는 평균적 국가 차원의 삶의 만족도가 잔여 여가 시간이든 실제 여가 시간이든 여가 시간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잔여 여가의 수준을 고려할 때 삶의 만족도가 낮은 국가에는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가 포함된다. 반면, 여가의 양을 고려했을 때, 미국, 호주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시간 사용 방법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의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 시간 사용법을 고려했을 때, 폴란드, 터키, 한국은 특히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그림 2.15. 잔여 유급 근로 시간은 1인당 국민순소득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각주: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는 2005년 자료를 사용함.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6 where available), data from the 2006 Gallup Life-satisfaction Survey, the European Labour Force Surveys results, and EIRO(2006 where avai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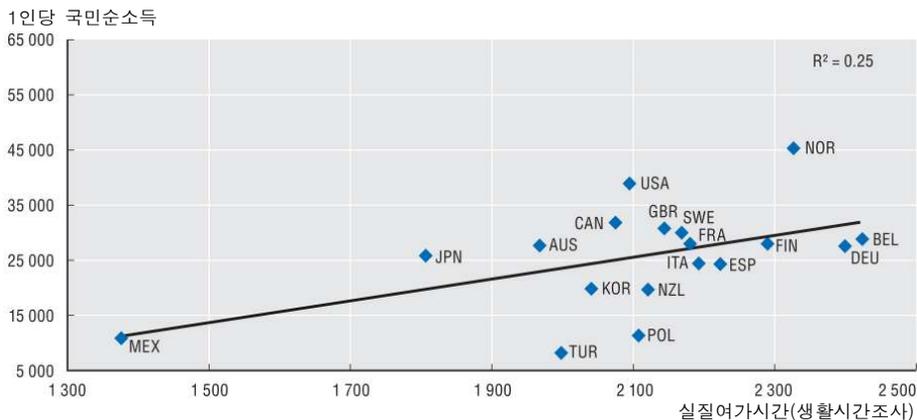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775647222>

보다 전통적인 시장-소득 기준 웰빙 측정으로 돌아가서, 그림 2.15와 2.16은 여가 시간과 1인당 국민순소득수준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상관관계는 잔여 여가 시간 및 실질 여가 시간 모두와 긍정적이며, 여가가 일반 재화로서의 특성을 지닌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의무 휴가 및 여가 시간

정책적으로 보다 흥미로운 것은 법률상의 최저 유급 휴가와 유급 휴가, 여가 시간의 양(잔여 여가 또는 시간 사용 측정에서 파생된 여가 시간) 간의 관계이다. 유급 휴가에 대한 공적 규제의 일차적 목적은 아마도 가용 여가 시간의 양을 늘리는 동시에, 가족과 친구들이 보다 쉽게 여가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사회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OECD 국가에 걸쳐 의무 유급 연차와 유급 공휴일의 수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유급 휴가가 없는 반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1년의 10%가 유급 휴가이다(그림 2.17).⁶

그림 2.16. 폭넓은 여가 시간은 1인당 국민순소득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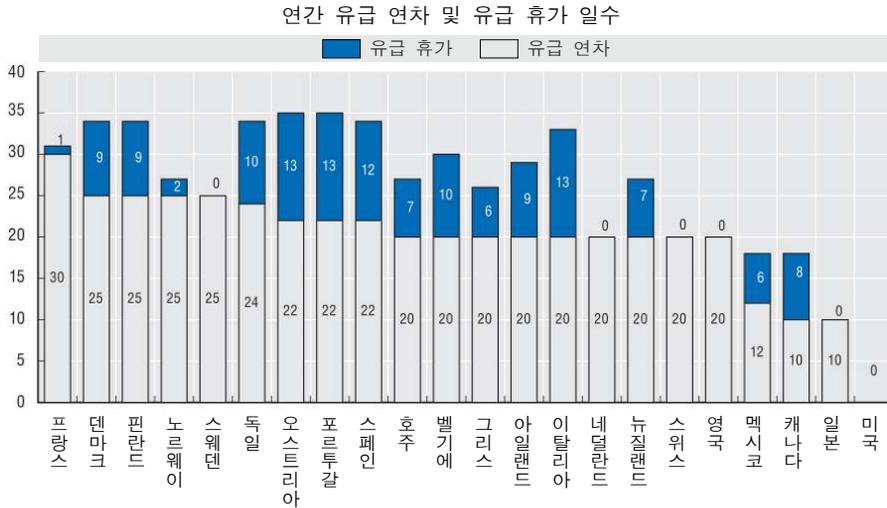
각주: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는 2005년 데이터를 이용했다. 2005년 이후 멕시코의 NNI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다. 2006-04 1인당 GDP 데이터를 이용해 2006년 NNI를 추정하였다.

출처: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6 where available).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European Labour Force Surveys results and EIRO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783364748>

이러한 정책적 불일치가 국가별 여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으나, 최저 유급 휴가 또는 유급 공휴일을 보장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자동적으로 여가를 더 즐기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그림 2.18은 총 연차(유급 휴가와 유급 공휴일의 합)의 수준과 잔여 여가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정책적으로 규제되는 휴가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총 연차 일수를 OECD 18개국에 대해 조사한 그림 2.19에서 제시된 우수한 여가 시간 사용법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 상관관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실제로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상관관계에 대한 불가피한 인과적 효과의 기록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기는 하지만, 유급 휴가에 대한 규제 정책은 국민들이 누리는 여가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2.17. OECD 국가의 유급 연차 및 유급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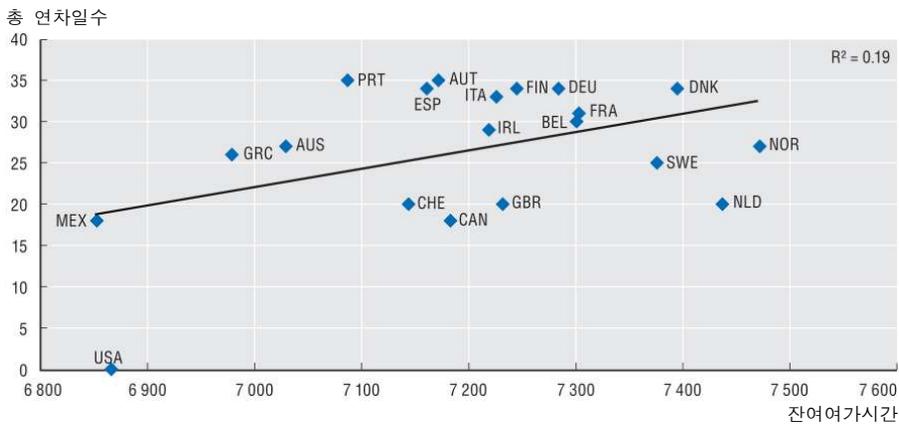


각주: 일부 국가의 법은 근무일을 지칭하고, 기타 국가의 법은 달력상의 날짜 또는 주를 지칭한다. 이 비교는 주5일 근무라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고용주에게 법적으로 유급 연차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물론, 그림 2.17의 국가들의 고용주 중 다수는 단체 또는 개인과의 계약에 근거해 법으로 규정된 최저 유급 연차보다 더 많은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법이 어느 한 종류의 혜택을 위한 법적 최소한의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요소는 미국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미국의 법은 유급 공휴일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출처 참조.

출처: Schmitt and Ray (2007), with the exception of Mexico, which is an OECD Secretariat-collected fig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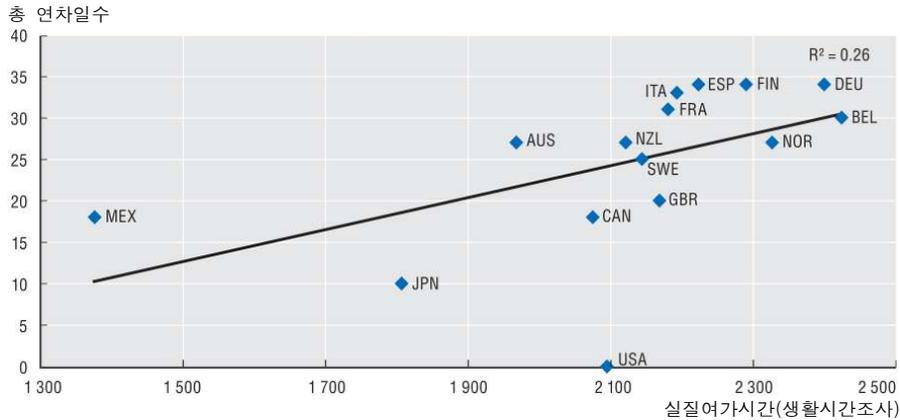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802823410>

그림 2.18. 잔여 유급 근로와 규제된 유급 휴가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875301686>

그림 2.19. 광의의 여가 시간과 규제를 받는 연차 일수 간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각주: 일부 국가의 법은 근무일을 지칭하고, 기타 국가의 법은 달력상의 날짜 또는 주를 지칭한다. 이 비교는 주5일 근무라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졌다.

출처: Schmitt and Ray (2007) and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and multinational time-use surveys (2006 where availabl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8881462071>

결론

본 장에서는 OECD 국가 간 비교 할 때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여가를 살펴보았다. 생활시간조사(time-use survey)에서 발췌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여가의 의미를 점진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여가”를 “근로에 사용되지 않은 시간(time not worked)”이라는 간단한 초기 정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작함으로써 여가의 경험적 측정과 관련한 개념적 이슈가 주목 받았다. 특히 초점을 맞추어야 할 포인트는 “여가”의 정의(광의 및 협의에서의 정의)를 달리 했을 때 여가 수준(level) 간의 순응성(malleability)과 추세이다. 본 장의 주요 결론은 “여가”와 같은 어려운 개념의 분석에 있어서는 개념적 정의가 극히 중요하며, 전반적인 국가 순위와 일부 사회인구학 패턴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활시간조사의 데이터는 OECD 국가의 국민들의 실제 생활환경을 모니터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생활 방식과 여러 활동 중에서 특정 활동을 선택한 그들의 결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 경제 현상의 해석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처럼,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는 정부기관, 특히 공공 정책의 조언, 이행,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정부기관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Callister, 2004).

정책 입안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정책을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한다. 여가와 관련된 정책도 이와 달라서는 안 된다. 현재 정책 선택은 직접적이고 미묘한 방법을 통해 여가 시간에 영향을 준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비근로 마진, 그리고 그로 인한 최대 가용 여가 시간은 가처분 소득 수준(소득 효과를 통해)과 한계 유효 세율(근로의 비근로 대체에 영향을 준다)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보다 일반적으로, 아동 및 방과 후 시설부터 고등 교육에 대한 공공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정책들은 유급 근로/비근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다. 세계 혜택과 더불어 노동시장과 상품 시장 규제는 둘 다 OECD 국가들의 가용

여가 시간의 양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노동시장과 관련해 공휴일과 최저 연간 휴가는 자주 규제를 받는다. 상품 시장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여가 기회 향상을 위해 쇼핑 시간과 영업 일자가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정책들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에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다.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한 여가 시간의 국제 비교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OECD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연구자들은 여러 회원국 간 여가 시간 비교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OECD 차원에서의 여가 비교 연구의 이해 증진을 위한 명확한 다음 단계는 현재 이러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회원국들에게 정기적으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생활시간조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Notes

1. 소득 수준별 시간 사용 비교는 상당히 흥미롭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국가 간 소득 측정 표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보다 최근에 발표된 연령대의 변화, 인구의 교육 분포, 자녀수의 변화 등을 고려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Engler와 Staubli (2008)의 연구를 참조. 저자들은 동일한 5개 국가의 25년에 걸친 기간의 자료를 이용했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이 기간 동안 이들 국가들은 여가 시간을 합산해 왔다는 것이다.
3. 이 결과는 부유한 국가에서의 효과적인 여가의 양성 평등을 강조한 Burda 외(2007)의 연구 결과와 상충한다. 이 결론은 또한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생활 시간조사에서 조사된 여가 측정치의 성별 차를 보고한 Engler와 Staubli(2008)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와도 상충한다. 이들은 상기 5개 나라에서 여성이 주당 여가 시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의 연구는 “여가”의 개념에 두 가지 정의를 사용했다. 첫 번째 정의는 전체 시간에서 유급 근로와 무급 근로(출퇴근 시간 포함) 시간을 뺀 잔여 시간이다. 두 번째는 교육, 개인 서비스 받기, 종교/공동체/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빼고 정원 가꾸기 시간을 더한 시간이다.
4. Engler와 Staubli(2008)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남성과 여성 모두 Burda 외(2007)의 연구가 보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주당 2시간 이상을 초과)을 쇼핑에 쓴다고 보고한다.
5. 문화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친구, 가족 방문에 소비하는 시간의 양은 터키와 유사하다는 것은 여가 생활에 대한 데이터의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6.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차와 유급 공휴일 간의 차이는 연차는 낼 수 있는 시기가 자율적인 반면 유급 공휴일의 날짜는 보통 정해져 있다. 또한, 달력의 주기성으로 인해 유급 공휴일은 주말이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일부 국가에서는 주말에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말에 연차를 내지 않는다.

참고문헌

Aguiar, M. and E. Hurst (2006), "Measuring Trends in Leisure: The Allocation of Time Over Five Decad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12082, Cambridge MA, March.

- Aliaga, C. and K. Winqvist (2003), "How Women and Men Spend their Time", *Statistics in Focus: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Eurostat, Luxembourg.
- Apps, P.F. (2003), "Gender, Time Use and Models of the Household", IZA Discussion Paper No. 796,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Bonn, June.
- Apps, P.F. and R. Rees (1996), "Labour Supply, Household Production and Intra-family Welfare Distribu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0, pp. 199-209.
- Apps, P.F. and R. Rees (1997), "Collective Labour Supply and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5, pp. 178-190.
- Apps, P.F. and R. Rees (2002), "Household Production, Full Consumption and the Costs of Children", *Labour Economics*, Vol. 8, pp. 621-648.
- Biddle, J. and D. Hamermesh (1990), "Sleep and the Allocation of Ti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5, pp. 922-943.
- Burda, M.C., D.S. Hamermesh and P. Weil (2007), "Total Work, Gender, and Social Norms", IZA Discussion Paper No. 2705,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Bonn, March.
- Callister, P. (2004), "Time-Use Data and Work-Life Policy Development", *Social Policy Journal of New Zealand*, No. 22, July.
- Causa, O. (2008), "Explaining Differences in Hours Worked among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596, OECD, Paris.
- Chiappori, A. (1997), "Introducing Household Production in Collective Models of Labour Suppl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5, No. 1, pp. 191-209.
- Engler, M. and S. Staubli (2008), "The Distribution of Leisure Time across Countries and Over Time", Department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2008-14, University of St. Gallen, Switzerland.
- Gronau, R. (1976),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NBER Working Paper No. 137, Cambridge, MA, May.
- Koreman, P. and A. Kapteyn (1987), "A Disaggregated Analysis of the Allocation of Time within the Househol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5, No. 2, pp. 223-249.
- Krueger, A.B., D. Kahneman and D. Schkade (2008), "National Time Accounting: The Currency of Life", third draft of unpublished paper, March 31.
- Parnanen, A., H. Sutela and S. Mahler (2005), *Combining Family and Full-Time Work*,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Report No. TN0510TR02, Dublin.
- Ramey, V.A. and F. Neville (2006), "A Century of Work and Leisure", NBER Working Paper No. 12264, Cambridge, MA, May.
- Schmitt, J. and R. Ray (2007), *No Vacation Nation USA -- A Comparison of Leave and Holiday in OECD Countries*,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European Economic and Employment Policy Brief No. 3-2007, Washington, May.
- Solberg, E. and D. Wong (1992), "Family Time-use, Home Production, Market Work and Work-Related Travel",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27, No. 3, pp. 485-510.
- Veblen, T. (1899),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Penguin Classics.

부록 2.A1

생활시간조사의 주요 특징

이 부록에는 OECD 사무국이 본 장에 포함시키는데 적절하다고 인정한 생활시간조사의 일부 특징들을 기재하였다.

현황

생활시간조사생활시간조사는 사람들이 여러 일상적 활동에 어떻게 시간을 정확히 분배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일차적 통계 수단이다. 이 서베이는 특정 기간 동안 1년 또는 몇 년에 걸쳐 일상 활동에 대해 일기를 기록해 온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이 활동은 국가 통계청에 의해 다시 코드가 매겨져 일련의 기술적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잘 설계된 서베이는 총 하루 24시간(또는 1,440분)동안의 활동을 분류한다.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해왔다. 몇몇 국가 통계 기관에서는 대규모의 생활시간조사를 최근 몇 십 년간 실시해왔다.

대부분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는 1년 전체에 걸친 시간분배에 대해 신뢰할만한 측정치를 제공할 만큼 규모가 방대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의 정확성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조사 특징의 차이, 표본 일수의 차이, 활동의 분류에 사용된 카테고리 등이 결과의 국가별 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에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표본 설계.** 본 장에 포함된 모든 생활시간조사는 기관화되지 않은 거주자들 중 국가별 대표 표본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조사는 표본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작위 표본에 의존한 일부 조사와 대규모 인구 조사에서 발췌된 사전에 만들어진 표본을 이용한 서베이가 있다. 국가별 조사는 생활시간조사의 표본 크기(약 4,000명에서 200,000명), 표본에 포함된 응답자의 연령(몇몇 예외가 있으나 보통 15세 또는 그 이상), 응답률(높은 무응답률 때문에 일부 조사는 잠재적 무응답자를 고려해 완성된 생활시간조사 일기의 수를 재조정함)에 따라 다르다. 또한 생활시간조사는 수집된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정의되었는가(예, 근로인력 상태), 그리고 각 활동을 고려한 맥락적 정보(예, 어디서 이 활동이 이루어졌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의 측면에서 다르다.

- 활동 분류.** 모든 조사는 응답자의 구두, 서면을 통한 행동의 묘사를 일련의 포괄적 카테고리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체제는 서베이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로 인해 디테일의 정도가 다른 분류가 가능하다.* 카테고리 분류의 차이는 특정 활동을 더 넓은 카테고리로 분류하려는 선택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일부 서베이는 모든 구매 활동을 “쇼핑”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지만, 다른 서베이에서는 구매의 목적에 따라 활동을 다르게 분류한다(다시 말해, 식료품, 사무용품, 가전제품, 서비스 등). 일부 서베이는 스포츠와 자원 봉사 활동을 “친목 도모 및 여가”라는 큰 카테고리로 분류하지만, 개인 여가 활동(컴퓨터 게임)을 집단 여가 활동(스포츠 경기 참여)을 분리한다. 일부 서베이는 시민 활동과 종교 활동을 “기타 활동”에 포함시키지만, 이러한 활동 전체를 생략시키는 서베이도 있다. 어떤 서베이에서는 서베이 응답에 사용된 시간을 포함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서베이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서베이에서는 여행에 사용한 시간을 별도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키지만 여행의 목적에 따라 분리하는 경우도 있으며(예, 직장에서의 출퇴근은 “업무 관련 활동” 카테고리에 분류되고 휴가 때 떠나는 여행은 “친목 도모 및 여가” 카테고리에 분류된다), 어떤 서베이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여행 시간을 더 넓은 카테고리에 분류시키기도 한다.
- 일기를 작성한 날의 수.** 각 참여자가 작성할 일기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적 선택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 생활시간조사 (American Time-Use Survey, ATUS)는 각 응답자에게 하루 동안의 시간별 일기를 완성할 것을 요청하지만, 대부분의 서베이는 일반적으로 이틀 동안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다. 응답자 전체 표본에서 예외성은 평균화되어야 하지만, 특정 일자에 다양한 활동에 소비된 시간은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대변하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응답률이 낮다는 단점은 있으나, 며칠에 걸친 시간-예산 정보는 며칠 동안 활동들이 어떻게 조화되었는지와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도록 해준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응답자로부터 단일한 보고를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각 응답자로부터 여러 개의 보고를 받는 것의 상대적 가치는 조사의 일반 목표에 따라 다르다.
- 조사가 실시된 기간.** 시간 사용 응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간 예산이 완성되는 주간 동안 사람들이 하는 활동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추산치는 한 해 전체의 시간 사용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이처럼 생활시간조사는 각 조사의 대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 조사는 한 해 전체에 걸쳐 실시되고, 조사가 실시된 해의 모든 기간에 걸친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한다. 다른 조사들은 1년 중 특정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는데 공휴일이나 근로자들의 연차 기간 등 계절 변동 요소를 피해 선택된 기간에 조사가 주로 실시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현장 근무 기간이 한 해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현장 근무 기간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선택은 일반적으로 조사의 목적, 통계 기관의 실질적 역량, 재정적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진다.

* 예를 들어 미국 생활시간조사(ATUS)는 기본 코드가 17개 상위 수준 카테고리로 합쳐지는 3단으로 구성된 6자리 코딩 시스템으로 시작된다: 1) 개인관리 활동(주로 수면); 2) 가사 활동; 3)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돕기; 4) 가족 구성원 외의 사람을 돌보거나 돕기; 5)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활동; 6) 교육; 7) 소비자 구매(예, 식품 쇼핑); 8) 전문적, 개인적 관리 서비스 구매(예, 의사 방문); 9) 가사 서비스 구매; 10) 정부 서비스 및 시민 의무 획득; 11) 식사와 음주; 12) 친목 도모, 휴식, 여가; 13) 스포츠, 운동, 레크리에이션; 14) 종교, 영적 활동; 15) 자원 봉사 활동; 16) 전화 통화; 17) 여행.

- **2차 활동의 기록.** 조사는 또한 동시에 수행된 활동이 있을 경우, 이를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사람들이 특정 시점에 한 가지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코드가 매겨진다. 그러나 일부 경우, 조사는 동시에 일어난 활동(예, TV 시청을 하면서 요리하기, 다른 종류의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질문을 포함시킴으로써, “1차” 활동과 “2차” 활동을 구분한다. 동시에 일어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도 대부분의 통계기관은 응답자의 1차 활동 기술의 코딩에 있어 단일적 형태를 취하고, 그 후 보다 상세한 하위카테고리의 기본적 코드를 생성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한 가지 제약은 “1차” 활동이 세심하게 기록되는 반면 “2차” 활동은 간과되기 쉽다는 것이다. 2차 활동의 비교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빨래를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옮기는 활동과 같이 시간이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활동들이 비교 통계를 생성할 만큼 잘 보고되느냐 하는 것이다. 2차 활동의 생략으로, 다른 활동과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특정 활동에 소비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원래보다 적게 보고된다.
- **배우자에 의한 활동의 기록.** 또한 국가별 조사는 정보가 같은 가구 내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입수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서베이는 가구당 한 사람이 데이터를 기록하지만, 다른 국가들(예, 호주, 독일, 한국)은 결혼한 커플의 경우 양측 배우자 모두가 일기를 기록한다. 양측 배우자가 함께 기록한 일기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측정한다는 목적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두 배우자의 시간 사용(예를 들어,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소비하는 공통의 시간) 사이의 상호 작용을 조명한다. 다른 경우, 이러한 부가적 정보의 혜택은 응답률과 데이터 정확성 측면에서의 잠재적 비용이 상각된다.

표 2.A1.1. 국가별 생활시간조사의 방법적 문서

서비스명	기관	연도	웹사이트 (데이터 및 서류)	평가기간	대상인구	표본크기	일기의 종류와 작성일자	다른데이터특징
호주 생활시간조사	호주통계청	2006	www.abs.gov.au/AU SSTATS/abs@.nsf/l aest/products/4153.0 Main%20Features220 06?opendocument& abname=Summary& rodno=4153.0&issue =2006&num=&view=	13-평균일수의 공휴일과 화교법칙을 포함한 13일	People aged 15 years, 개인주거지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오직외 국인주거지가 아닌 거주하는 사람, 비호주인 및 토착민 광물채를 포함한 기구는 제외)	약 3,900가구	5분간의 고정된 주기에 따른 2일간의 일기	정부는 인터넷, 스스로 작성한 일기에서 부분적으로 인수를 1차 활동과 2차활동의 분류, 행동을 제한 사람과 행동이 발생한 곳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 어디서 행동이 발생했는지 기재함.
벨기에	Eurostat and NSO	2005	www.testh2.scb.se/t us/fus/	1년	2개의 서베이 대상집단 개인거주에 거주하는 별기에 인구에 포함되는 12세 이상 인구	총기포부에 포함된 35,000가구	각 응답자가 이를 본의 일기를 작성, 하루 24시간을 커버함	일상 생활에서 무작위로 뽑은 순간을 포착하여 연구하므로 대표성이 없음
캐나다	일반사회(특별모 들)	2005	http://cansim2.statca n.ca/cgiwin/cnsmcqi. exe?Lang=E&RootDir =CII/8result/templat e=CII/OIL_pick&Array_ Pick=1&Arrayid=1130 001	1월부터 11월까지의 표본크기와 동일한 11개월 (12월 중순까지 단정됨)	전화가 없는 사람(인구2%)와 혼대혼만 있는 사람(약5%)을 제외한 캐나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비기관 거주자	25,000명	컴퓨터의 지원을 받는 전화 인터뷰(CATI)	하위표본이 "문화, 스포츠 활동참여" "사회적 네트워크와 시행" "운동에 대한 특별 모듈을 세움
핀란드	Eurostat and NSO	1998	www.testh2.scb.se/t us/fus/	1년	개인거주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인구와 가족집체	12,512명의 개인을 포함한 4,800가구 (그중 10,978명이 10세 이상 인구임)	각 응답자가 이를 본의 일기를 작성, 하루 24시간을 커버함	일상생활에서 무작위로 뽑은 순간을 포착하여 연구하므로 대표성이 없음
프랑스	Eurostat and NSO	1998	www.testh2.scb.se/t us/fus/	1년	가구 인구에 포함되는 15세 이상 인구, 기관거주자 제외	16,462명을 대표하는 12,512명의 거주자 이중 10,978명이 최종 표본에 포함됨	각 응답자가 이를 본의 일기를 작성, 하루 24시간을 커버함	일상생활에서 무작위로 뽑은 순간을 포착하여 연구하므로 대표성이 없음
독일	Eurostat and NSO	2002	www.testh2.scb.se/t us/fus/	1년	일정한 주거가 없고 그들끼리 또는 유사기관(군대, 음식지관, 등)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10세 이상 인구를 포함한 개인가구	최종표본 5,443가구	각 응답자가 이를 본의 일기를 작성, 하루 24시간을 커버함	일상생활에서 무작위로 뽑은 순간을 포착하여 연구하므로 대표성이 없음
이탈리아	Eurostat and NSO	2003	www.testh2.scb.se/t us/fus/	1년	고령자를 포함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3세 이상 가구구성원 (나이제한선은 없음)	55,760명의 개인을 대표하는 21,075가구	각 응답자가 이를 본의 일기를 작성, 하루 24시간을 커버함	일상생활에서 무작위로 뽑은 순간을 포착하여 연구하므로 대표성이 없음

표 2.A1.1. 국가별 생활시간조사의 방법적 문서(계속)

사베이명	기관	연도	웹사이트 (데이터 및 서류)	평가기간	대상인구	표본크기	일기의 종류와 총 작성일자	다른데이터특징
일본 Survey on Time Use and Leisure Activities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al Research Training Institute	2006	www.stat.go.jp/Engl/ sh/data/shakai/ c_0000/e02cb_0000 /e02cb_0000.html	200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기간 중 연속 2일	일본거주 외국인용 포함한 10세 이상 모든인구	200,000명용 대표하는 80,000가구	두가지 집의: 집의 A: 사전 코딩법을 채택 집의 B: 더 상세한 시간 사용을 조사함	매15분마다 시간 사용을 기록하는 스케줄이 응답자에게 배포됨
한국 Time Use Survey	한국통계청	2004	www.nso.go.kr/eng2 006/e02_0000/e02 c_0000/e02cb_0000 /e02cb_0000.html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	10세 이상 인구	약 12,7507가구	10세 이상인구의 일주일 일기(수 화목, 동시활동용 기록, 지정된 2일간 10분추가마다 기록하는 구조)	표본프레임이 다용도 가구 표본에서 생성된 이 표본가구는 2000년 인구 및 주거 센서스에서 추출됨
멕시코 시간사용국가서베 이(Encuesta Nacional sobre Uso del Tiempo, ENUT)	멕시코 통계청(INEGI)	2002	www.inegi.gob.mx/e st/proyectos/espan ol/proyectos/metadata es/encuestas/enut_2 310.asp?s=est&c=54 40	28일	영토 내의 일정한 개인 주거지에 거주하는 멕시코인	5,45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함	ENUT 는 가구소득과 지출에 대한 국가서베이의 모듈임(Encuesta Nacional de Ingresos y Gastos de los Hogares, ENIGH)	
뉴질랜드 생활시간조사(TU S)	뉴질랜드 통계청(SNZ)	1999 (one off)	www2.stats.govt.nz/ domino/external/omn i/omni.nsf/outputs/IT me+User+Survey	1998.7~1999.6	개인 주거지에 거주하는 12세 이상 비기관 거주인구	8,500명의 표본 중 선택된 7,2007가구	데이터는 4가지 기본 카테고리에 초점을 둔(예택된 시간, 필요한 시간, 자유시간)	
노르웨이 유람생활시간조사 (HETUS)	Eurostat and NSO	2001	www.testn2.scb.se/t us/tus/	1년	9-79세의 모든 노르웨이 등록인구(60-66세 인구의 표본이 추가됨)	6,470명의 주표본	각 응답자가 이를 본의 일기를 작성 하루 24시간을 커버함	일상 생활에서 무작위로 짧은 순간을 포착하여 연구하므로, 대표성이 없음
폴란드 유람생활시간조사 (HETUS)	Eurostat and NSO	2004 (one-off)	www.testn2.scb.se/t us/tus/	1년	15세 이상 인구의 6개 사회경제적 계층을 대표하며 선정된 가구의 구성원	선택된 10,2567가구	각 응답자가 이를 본의 일기를 작성 하루 24시간을 커버함	평일 하루와 평일 이전 또는 평일 다음 주말 하루 (토요일이나 일요일)가 각 주 표본 가구에, 무작위로 함당됨

표 2.A1.1. 국가별 생활시간조사의 방법적 문서(계속)

서비스명	기관	연도	웹사이트 (데이터 및 서류)	평가기간	대상인구	표본크기	여가의 종류와 총 작성일자	다르데이터특징
스페인 유럽생활시간조사 (HETUS)	Eurostat and NSO	2003	www.testh2.scb.se/t us/tus/	1년	거주가구 중 10세 이상 모든 가구구성원	46744명을 대표하는 20603가구	간 응답자가 이를 본의 필기를 작성, 하루 24시간을 커버함	1년 중 모든 날이 포함됨
스웨덴 유럽생활시간조사 (HETUS)	Eurostat and NSO	2001	www.testh2.scb.se/t us/tus/	1년	서베이기간 중 20-84세의 스웨덴 등록인구	3980명을 대표하는 21387가구	각 응답자가 이를 본의 필기를 작성, 하루 24시간을 커버함	가구표본은 개인표본을 추출하고, 선별된 개인데이터를 피트너의 데이터와 합친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가구표본에 포함된 개인은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없고, 응답한 개인의 수만 파악가능하다.
터키 생활시간조사	터키 통계청(Turkstat)	2006	www.turkstat.gov.tr/P reHaberBulteni.do? id=528	1년	15세 이상의 가구구성원	11815명의 15세이상 가구구성원 중 50702명의 선택된 가구를 인터뷰함	두개의 일기: 하나는 평일용 대체 하나는 주말용임 24시간의 일상 활동이 매 10분 단위로 기록됨	
영국 유럽생활시간조사 (HETUS)	Eurostat and NSO	2001	www.testh2.scb.se/t us/tus/	2000.6~ 2001.7	선택된 가구의 8세 이상 모든 members aged 8 and over in 8 가구구성원 (최종 데이터메이스는 10세 이상 인구만 포함함)	11 8547개의 표본가구 sampled가 20991건의 일기를 작성 작성	각 응답자가 이를 본의 일기를 작성, 하루 24시간을 커버함	일상생활에서 무작위로 뽑은 순서를 포착하여 연구하므로, 대표성이 없음
미국 미국생활시간조사 (ATUS)	노동통계청(BLS)	2005	www.bls.gov/tus/	1년	개인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	약13 000명	지정된 사람은 일주일 중 활동을 보고함 년째를 해당반응 표본의 25%가 주말에 활동함	응답자 편의에 따라 답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 보고일자가 사전report at their 사전에 지정됨
다국적 생활시간조사(MT US)	시간사용 연구센터	2006	www.timeuse.org/mt us/	1년	20-59세 인구		모든 입력된 일기는 7일 기준으로 구성되고 작성된것으로 이에 근거해 평균이 계산됨	MTUS데이터는 20개국으로 구성되고 장기적으로 확정됨

제3장

OECD 사회지표의 해석

사회지표의 목적

한 눈에 보는 사회 2009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 각국의 과거 지표 및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사회발전에 있어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가?
- 사회 발전 촉진에 있어 사회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첫 번째 사회 발전과 관련한 질문은 오랜 시간에 걸쳐 OECD 각국의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안정적인 기반 뿐 아니라 보건, 교육, 경제적 자원의 향상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사회적 효과와 관련한 질문은 한층 더 어렵다. 각국은 정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핵심적인 문제는 정책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냐 하는 것이다. 지표들은 이러한 평가에 도움이 된다. 각 국의 사회적 성과를 변화시키려는 자원을 비교하고, 이러한 자원을 사회적 성과와 대조해 보는 것이 첫 단계이다. 이러한 비교가 정책 효과의 포괄적 평가와는 거리가 있으나, 지표들은 평가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OECD 사회지표의 구성

여기서 적용된 구조는 완전한 사회지표 구조가 아니지만, 단순한 지표 목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 구조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성과 평가의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 경험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 구조는 특히 환경지표와 관련한 OECD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압력-상태-대응(Pressure-State-Response)” (PSR 평가체계)로 알려진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인간 활동은 환경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천연 자원과 환경 상태(상태)에 영향을 주며, 사회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하도록 촉구한다(사회적 대응). PSR 구조는 이러한 의사 결정자들과 대중이 간과했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사회지표에 대한 유사한 접근법이 이 보고서에서 소개된다. 지표들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첫 번째 기준은 이러한 지표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한다.

* PSR 구조는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사용한 추진력-상태-대응(DSR) 모델과 유럽 에너지지구에서 사용된 “추진력-압력-상태-영향-대응”(DPSIR) 모델의 근원이 되는 접근법의 변형이다.

- **사회 현황(Social Context)**은 직접적인 정책 목표는 아니지만 사회 정책의 맥락의 이해에 있어 필수적인 변수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은 직접적인 정책 목표는 아니지만 보건, 조세 또는 연금 정책 대응이 만들어지는 사회 현황과 관련이 있는 정보이다. 다른 지표들과 달리 사회 현황지표는 “좋다” 또는 “나쁘다”로 명확하게 해석될 수 없다.
- **사회 상태(Social status)** 지표는 정책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사회 성과를 묘사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인구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묘사한다. 원칙적으로, 선택된 지표들은 쉽고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들은 빈곤율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을 선호할 것이다.
- **사회적 대응(Societal response)** 지표는 사회가 사회 상태 지표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 대응은 정부 정책 관련 지표를 포함한다. 비정부 기관, 가족 및 폭넓은 시민사회의 부가적 활동 역시 사회적 대응이다. 사회적 대응 지표를 사회상태 지표와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초기지표를 얻을 수 있다.

사회지표는 상기 세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고, 사회 현황과 사회 상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출산율은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인구 증가 지지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사회 정책 맥락의 부분이다. 이와 유사하게, 가족 붕괴는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 정책의 실패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명백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사용된 사회 현황, 사회 정책 및 사회적 대응 지표의 중요한 한계는 이 보고서에서 각 지표들이 국가 수준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같이 연방제의 수준이 높은 회원국에서, 지표들은 연방 내의 현황과 성과, 사회적 대응이 다른 지역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 지표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한계를 유념해야 한다.

OECD 구조의 두 번째 기준은 지표들을 다양한 정책 분야에 따라 분류한다. 사회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의 분류를 위해 사회 정책의 4가지 포괄적인 목표가 사용되었다.

- **자활(Self-sufficiency)**은 사회 정책의 근본적 목표이다. 이는 OECD 사회 보건 정책 장관 성명에도 잘 나타나 있다(www.oecd.org/socmin2005).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 경제참여 및 일상 활동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자활을 촉진할 수 있다.
- **형평성(Equity)**은 사회 정책의 또 다른 장기적 목표이다. 형평성의 성과는 주로 개인과 가족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측면에서 측정된다.
- **보건 상태(Health status)**는 보건 시스템의 근본적인 목표이지만, 보건 상태 향상은 보건을 사회 정책의 핵심적 목표로 만드는 보건 상태의 사회적 결정 요소에 대한 폭넓은 포커스를 필요로 한다.
- **사회 통합(Social cohesion)**은 각국의 사회 정책의 포괄적 목표로 인식된다. 사회 통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회 통합 부족을 알리는 증상은 다양하다. 사회 통합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OECD 사회지표의 구조는 간단한 “매트릭스”(표 3.1)로 표시된다. 표 3.1은 한 눈에 보는 사회의 이전 판 및 현재 판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지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표 3.1. 5개 버전의 한눈에 보는 사회에 포함된 사회지표 (2001, 2003, 2005, 2006, 2009)

사회통합	현황			
	자활 (SS)	형평성(EC)	보건 (HE)	사회통합 (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 이민 ● 출산율(2001, 2005, 2006, 2009) ● 결혼과 이혼(2001, 2005, 2006, 2009) ● 연령부양비(2001, 2003, 2005, 2006) ● 난민 및 망명자(2001) ● 한부모가정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 실업 ● 취업모(2001, 2003, 2005) ● 실업가구(2001, 2003, 2005, 2006) ● 학업성취도(2001, 2003, 2005, 2009) ● NEET(2001, 2005, 2009) ● 노동활동중단연령(2001, 2005, 2009) ● 교육비용(2006) ● 교육(2001,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불평등(2001, 2005, 2009) ● 빈곤(2001, 2005, 2009) ● 아동빈곤(2005, 2009) ● 노인소득(2003, 2005) ● 저임금고용(2001) ● 성별임금차(2001, 2006) ● 복지부족(2006) ● 빈곤지속(2006) ● 세대간 이동(2006) ● 주택비용(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수명(2001, 2005, 2006, 2009) ● 건강보장 기대수명(2003, 2005) ● 인지도 건강상태(2009) ● 영아사망률(2001, 2005, 2009) ● 저체중 출생아(2003, 2006, 2009) ● 비만(2003, 2009) ● 정신건강(2009) ● 잠재수명연수(2001, 2003) ● 무장애기대여명(2001) ● 사고(2001) ● 질병으로 인한 결근(2006) ● 건강불평등(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 삶의 만족도(2005, 2006, 2009) ● 범죄피해(2001, 2003, 2009) ● 직업만족도(2009) ● 학교 내 집단 따돌림(2009) ● 위험행동(2009) ● 사회적 고립(2001, 2005) ● 집단소속감(2001, 2005) ● 신대출산(2003, 2005) ● 약물복용 및 관련사망(2001, 2005) ● 파업 및 직장폐쇄(2001, 2003, 2006) ● 투표(2001, 2006) ● 정소년 범죄(2003) ● 정치제도신뢰(2006) ● Work accidents(2001,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생계급여의 적절성 ● 활성화 정책(2001) ● 교육비 지출(2001, 2009) ● 유아교육 및 보육 ● 성인문해율(2001) ● 노동조사제작(2001, 2006) ● 장애를 가진 학생(2003) ● 성인장애인지원(2002) ● 장애인 근로자(2003) ● 최저생계급여(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회지출 ● 총사회지출 ● 민간사회지출(2001, 2005) ● 급여수급(2001, 2005) ● 소득불평등(2006) ● 최저임금(2001) ● 노령임금대체율(2006, 2005) ● 연금약정(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료비 지출 ● 보건의료비 조달 책임(2003, 2001) ● 장기요양수혜자(2001, 2005, 2006, 2009) ● 보건인프라(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감자(2001, 2003) 	

데이터는 한 눈에 보는 사회에 포함된 도메인을 참고하였음. 이탤릭체로 표시된 지표들은 5개 버전의 한눈에 보는 사회에 모두 포함된 지표들임. 각 지표 도메인에 사용된 명칭은 2009년판에 사용된 명칭임. 일부 지표는 한 카테고리에서 다른 카테고리로 이동되었을 수도 있음.

지표의 선정과 설명

OECD 국가들은 사회지표의 수집과 발표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 이 보고서에 기재할 지표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문제들이 고려되었다.

- 각 국가 간 지표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의 최소 기준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각 지표가 다루는 분야에 대한 최상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제시된 지표들은 “절대적” 비교 가능성이 있는 지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독자들에게 사용된 데이터의 성질과 비교 가능성의 한계에 대한 주의를 주었다.
- 데이터가 제공 가능한 국가는 최소 몇 개국인가?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제공 가능한 지표들만을 포함하고 있다.
- 국가별 수준에서 어떠한 분류가 사용되어야 하는가? 사회지표는 사람들의 나이, 성별, 가족 타입 등 하위 카테고리에 따른 성과로 분석될 수 있다. 여기에서 실용주의가 적용된다: 제시된 분류는 지표에 따라 달라진다.

이 보고서의 제4-8장은 선정된 각 지표의 정의와 측정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핵심적 증거를 기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표들은 한 가지 또는 다른 형태로 이미 존재한다. 일부는 OECD 발간물에 정기적으로 발표된다(예, 노동인구 통계,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 OECD 보건 데이터). 기타 지표들은 한시적으로 수집된다.

개별 지표들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 정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지표들은 한 가지 이상의 카테고리 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움 없이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쩌면 사회 통합, 자활, 보건 지표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지표들은 일차적으로 가장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카테고리에 분류되었다.

이 보고서 전체에서, 각 지표와 관련된 코드(예, GE1)는 그 지표를 해당 정책 분야(아래 표의 목록에서 제시된 정책 분야)와 연관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지표에 번호를 매기는 것은 상호 참조를 간략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지표의 명칭과 코드는 “한 눈에 보는 사회”의 이전 판에서 사용된 것들과 다를 수 있으나, 관련 분야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반 현황지표(GE)

사회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비교해보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성과가 좋지 않거나,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특정 분야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넓은 맥락에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OECD 각국의 국민소득 수준은 각기 다르다. 소득과 건강과의 연관관계가 있다면, 사회적 대응과 관계없이 부유한 국가들은 빈곤한 국가에 비해 보건 상태가 더 좋을 것이다. 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과 비례해서 증가한다면(이는 사실로 드러났음), 부유한 국가들은 빈곤한 국가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보건비용(국민소득 대비 퍼센티지 기준)으로 지출한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건강 상태 지표와 보건 지출 지표가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정책의 영향을 고려할 때 데이터 배후의 일반적 현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회환경지표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지표들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

회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 보호와 교육의 질, 양, 특성에 영향을 주는 1인당 순국민소득(GE1)의 해석뿐 아니라 출산율(GE2), 이민(GE3), 결혼과 이혼(GE4)의 해석에도 적용된다.

일반 현황지표 목록(GE)

GE1. 1인당 순국민소득
GE2. 출산율
GE3. 이민
GE4. 결혼과 이혼

자활 (SS)

노동 연령 인구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유급 근로(SS1)는 돈, 주체성(identity), 사회적 상호 작용, 사회 지위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모든 사회 보장 제도는 유급 근로 인력이 지급한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유급 근로 증가를 촉진하는 것은 모든 OECD 국가의 우선 과제이다.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SS2)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근로를 통해 자기 자신과 부양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기 교육은 아동의 향후 자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 유치원 입학률(SS3)은 아동들이 조기 교육의 기관 중심 제도의 혜택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학업 성취도 (SS4)는 아동 생애 주기의 반대편 끝에 있는 인적 자본 축적이라는 중요한 기준을 나타낸다. 높은 학업 성취도는 유급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장기간에 걸친 자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노동시장에서의 장기적 불리함은 초기 성인기의 불리함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비활동 측정치는 자활 근로 주기(SS5)로의 성공적인 전환 가능성을 제공한다.

학업 성취도와 청년 비활동은 학교 교육 제도의 구조와 장점의 설계(사회 지표로 간략화하기 어려움)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공교육 및 사교육비 지출과도 관련이 있다(SS7).

아래 표는 OECD 국가들이 개인과 그 가족들의 자활을 보장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가장 관련도가 높은 사회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활지표 목록(SS)

사회상태	사회적 대응
SS1 고용	SS7. 교육비지출
SS2. 실업	
SS3. 보육	
SS4. 학업성취도	
SS5. NEET	
SS6. 노동활동중단연령	
EQ1. 소득불평등	EQ4. 최저생계급여의 적절성
EQ2. 빈곤	EQ5. 공공사회지출
EQ3. 아동빈곤	EQ6. 총 순사회지출

각주: 이탤릭 체로 표기된 지표들은 다른 하위 섹션에 분류가 되어 있더라도 자활과 관련이 있는 지표들이다.

형평성(EQ)

형평성에는 여러 기준이 있다. 형평성은 사회 서비스 및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실질 소득의 평등도 포함한다. 성과의 공정한 분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또한, 모든 차원에서 형평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 상태 형평성 지표는 재정적 자원의 불평등에 국한된다.

소득 불평등(EQ1)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함에 있어 자연스러운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종종 소득 분배에 있어 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빈곤도(EQ2)도 고려된다. 아동들은 물질적 환경에 대한 선택권의 부족과 빈곤이라는 장기적 발달 결과 때문에 우려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춘 빈곤도(EQ3)을 포함시키는 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

사회 보호 시스템은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도구이다. 모든 OECD 국가들은 사회 내의 자원을 재분배하고, 다양한 우발적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다양한 범위의 사회 보호 제도한 정책을 발전시켰다(또는 발전시키고 있다). 최저생계급여의 적절성(EQ4)은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에 대 대응을 다룬다. 이러한 개입은 사회 지출(EQ5)로 요약된다. 총 순사회지출(EQ6)에는 조세혜택과 소득 환급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수반된다.

형평성지표는 자활지표와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 둘을 같이 놓고 보면, 국가의 사회보장체계가 현재의 정책 딜레마와 어떻게 대립하는가를 알 수 있다: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시민의 자활을 증진하도록 공급 적정성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형평성 지수의 목록(EQ)

사회상태	사회적 대응
EQ1. 소득 불평등	EQ4. 최저생계급여의 적절성
EQ2. 빈곤	EQ5. 공공사회지출
EQ3. 아동빈곤	EQ6. 총 사회지출
SS1. 고용	HE4. 보건의료비지출
SS2. 학업성취도	
SS3. 실업	
HE8. 신장	

각주: 이탤릭체로 표기된 지표들은 다른 하위 섹션에 분류되어 있더라도 형평성 성과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지표들이다.

보건 (HE)

사회와 보건 상태는 강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실,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의료 기술의 지속적 발전에 수반되는 생활, 교육 수준의 향상은 기대 수명(HE1)으로 측정되는 건강 상태의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기대 수명 측정에 있어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이를 보조하는 지표는 사람들의 자가 평가 건강 상태(HE2)이다. 기대 수명 증가는 영아 보건 증진

지표(HE3)로서 영아 사망률 감소 및 저체중 출생아의 감소를 상당부분 반영한다. 비만(HE4)은 사회, 경제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보건 문제 및 비용의 선행지표이기도 하다. 점점 주목을 받고 있는 아동기 누적 신체 건강의 추가적 지표는 성인 신장(HE5)이다. 종종 보건 분야에 있어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며, 정신 건강(HE6)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측정과 데이터 문제가 그 부분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련 문제는 높은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며,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서로 관련이 있다.

보건 지표 목록(HE)

사회상태	사회적 대응
HE1. 기대수명	HE7. 장기요양 수혜자
HE2. 인지도된 건강상태	HE8. 보건의료비 지출
HE3. 영아보건	
HE4. 비만	
HE5. 신장	
HE6. 정신건강	
CO4. 자살	EQ4. 최저생계급여의 적절성
	EQ5. 공공사회지출
	EQ6. 총사회지출

각주: 이탤릭체로 표기된 지표들은 다른 하위 섹션에 분류되어 있더라도 보건성과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지표들이다.

보건 이슈에 대한 대응은 노인에 대한 기관 또는 가정에서의 다른 형태의 장기 요양 서비스(HE7)의 제공이다. 보건 의료비 지출(HE8)은 보건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보건 의료 제도의 정책적 대응의 보다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문제는 보건 정책의 영향권 밖에 있는 고용, 빈곤, 부적절한 주거 등 상호 연관된 사회환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지출 수준 그 자체 이상으로 보건 분야에 대한 개입의 효과는 의료 지원 탐색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의료 보험의 낮은 보장 범위 또는 고용인 부담과 같은 보건 의료 제도의 다른 특징에 달려 있다. 보건 환경과 보건 문제에 대한 개입의 보다 폭넓은 지표는 “OECD 보건 데이터(OECD Health Data)”와 격년으로 발간되는 보고서인 “한 눈에 보는 보건지표(Health at a Glance)”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통합(CO)

사회 통합 촉진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중요한 사회정책 목표이다. 그러나 사회 통합에 대한 널리 채택된 정의가 부재하므로 적절한 지표를 찾아내는 것은 특히 어렵다.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는 시민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일상 활동으로부터 얻는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사회적 배제의 위험으로 내모는 다양한 병리 현상 및 환경에 대해 알려주는 지표 또는 사회적 분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통해 사회통합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CO1)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는 사람들의 웰빙 및 사회 전체의 통

합에 대한 중요한 직접적 척도이다. 직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내는 환경이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CO2)는 핵심 환경에서의 통합 지표인 웰빙의 하위 기준이다. 범죄 행위는 사회 붕괴의 척도이며, 범죄 피해(CO3)는 사회 통합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신뢰 수준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자살(CO4)은 개인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방지할 만큼 사회적 유대가 충분하지 않은 사회에서 개인이 사회를 영구적으로 유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의 젊은 구성원들에게 있어, 학교는 아마도 가족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환경일 것이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CO5)은 학교 환경에서의 사회 통합의 중요한 부정적 지표이다. 청소년층에 있어 사회 통합의 또 다른 지표는 위험 행동(CO6)이다. 물론 일부 위험행동은 정상적이고 어떤 점에서 보면 성장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간 통합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예기치 않은 높은 위험 행동 비율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상태 지표 외에, 환경지표들은 사회적 배제라는 독특한 위험에 노출된 사회 내의 각기 다른 계층과 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사회 통합 이슈에 대한 관련 대응지표를 찾아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 정책(자활, 형평성, 보건)의 다른 측면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도 사회 통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통합 지표 목록(CO)

사회상태	사회적 대응
CO1. 삶에 대한 만족도	
CO2. 직업만족도	
CO3. 범죄피해	
CO4. 자살	
CO5.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CO6. 위험행동	
SS2. 실업	EQ5. 공공사회지출
EQ1. 소득불평등	EQ6. 총사회지출
EQ2. 빈곤	HE2. 보건 의료비 지출
EQ3. 아동빈곤	
HE7. 정신건강	

각주: 이탤릭체로 표시된 지표들은 다른 하위 섹션에 분류되어 있더라도 사회 통합성과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지표들이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이 보고서의 제4-8장에서 다루고 있는 각 분야에 대해, “정의와 척도” 라는 박스 섹션은 관련 지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측정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상호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지표들은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비교 가능성은 잠재적 이슈이며, 박스 안의 내용은 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정의와 척도” 박스 섹션 다음에는 주요 논점이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논의는 국가 간 차이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OECD 평균 및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는 국가의 선정으로 이어진다. 가

능한 경우에는 인구학적, 사회 경제학적 분류도 제시되었다. 그림과 표, 참고를 위해 선정된 “추가 자료”와 지표가 인용된 책자의 제목 등의 형태로 증거가 제시되어 있다.

핵심 자료들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수집된 지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각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OECD 웹사이트 (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에서 제공되며, StatLinks를 통해 각 지표에 접근할 수 있다(기타 국가의 자료도 제공됨).

제4장

일반 현황 지표

1. 1인당 순 국민소득
2. 출산율
3. 이민
4. 결혼과 이혼

4. 일반현황지표

1. 1인당 국민순소득

정의와 측정

1인당 국민순소득 (NNI)은 국민계정체계(SNA)가 제공하는 국가별 경제복지를 비교하는 최고의 지표이다. NNI는 총국민생산에 임금, 급료, 해외로부터의 재산 소득의 총 수령액을 합한 것에서 소모, 파손, 노후화로 인한 고정 자본자산(거주지, 건물, 기계, 운송장비, 물리적 인프라)의 상각을 공제한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1인당 NNI 추산치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민소득 지표인 1인당 GDP 추산치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국제 소득 흐름과 자본 상각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국가간 비교에서, NNI의 국가별 통화 척도는 구매력 평가 교환율(PPPs)을 이용한 공통 함수로 변환된다. 이는 미국에서 미국 달러화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와 동일한 양을 각 국가에서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별 화폐의 양을 반영한다. PPPs 추산치는 각 국가의 2,500 품목 가격을 비교하여 OECD와 유로스타트(Eurostat)가 전산화하였다(Schreyer and Koechlin, 2002). 1인당 NNI는 NNI를 거주 인구 규모로 나눈 것으로, 거주 인구에는 개별 가구 거주자와 기관 거주자가 모두 포함된다. NNI와 PPPs 추산치 둘 다 통계적 오류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5% 이하의 국가간 NNI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2006년 OECD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6,000 US 달러였다. 그 해 35,000 US 달러를 초과하는 OECD 국가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미국 등 3개국이었다. 8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000 US 달러 이하였으며, 2개국(멕시코와 터키)은 11,000 US 달러 정도였다(멕시코의 경우 2004년 통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국민순소득은 실질 NNI 데이터를 제공 가능한 17개국에서 2000년 이후 매년 2.6%씩 증가해 왔다.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NNI는 연간 5% 이상 증가했고, 그리스도 거의 4.5%씩 증가했

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와 독일은 연간 평균 1%에 불과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0년과 2006년의 성장률과 2000년의 NNI 수준에는 별다른 명백한 관계가 없다.

평균 1인당 NNI가 높은 OECD 국가들은 NNI 중 더 많은 비율을 사회 보호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멕시코, 터키, 한국의 경우는 예외적인 위치선으로 인해 상당한 관련성이 발생한 것이다(GE1.3).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은 1인당 국민 소득을 고려했을 때, 예상보다 사회 지출 비용이 높은 편이었다. 이와 반대로, 멕시코, 한국, 터키와 미국의 경우는 예상보다 사회 지출 비용이 낮았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일부 사회 지출 비용은 의료, 육아 등 타인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소득은 다른 소득자들의 소득과 함께 증가하지만, 생산성 증가 및 사회 지출 비용 증가율이 동일하지는 않다(Arjona 외, 2001). 마찬가지로, 복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소득과 비례하는 경향이 강하다.

추가 자료

Arjona, R., M. Ladaique and M. Pearson (2001), "Growth, Inequality and Social Protection",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No. 51, OECD, Paris.

OECD (2008), National Accounts, OECD, Paris.

Schreyer, P. and F. Koechlin (2002), "Purchasing Power Parities - Measurement and Uses", OECD Statistics Brief, No. 3, OECD, Paris, March.

그림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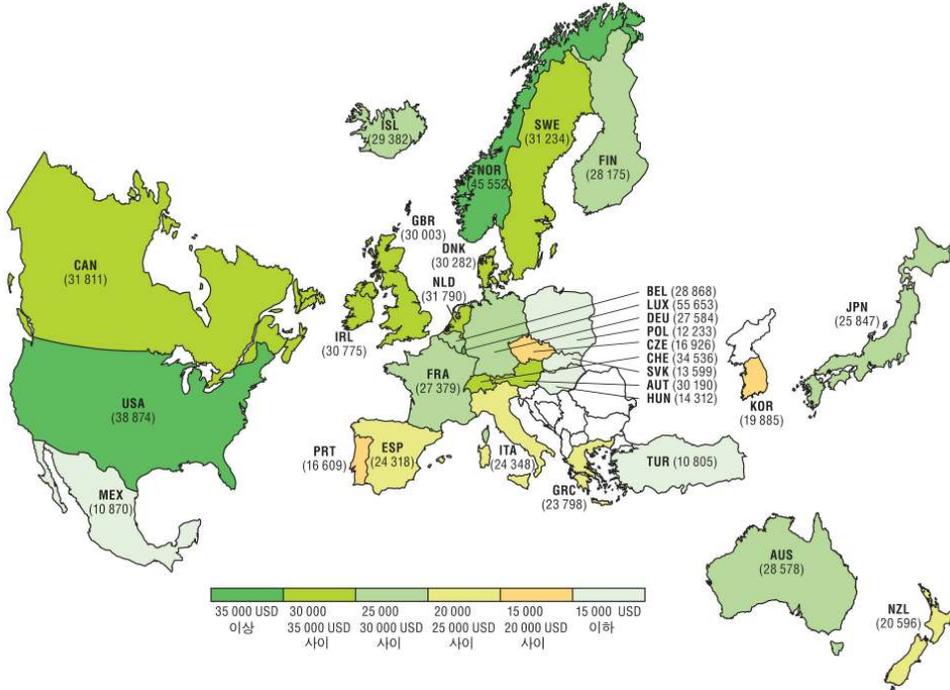
그림 GE1.2: 많은 국가들은 NNI에 대한 가격 디플레이터를 조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 NNI 상승에 대한 데이터는 17개국으로 한정되어있다.

NNI: 국민순소득.

1. 1인당 국민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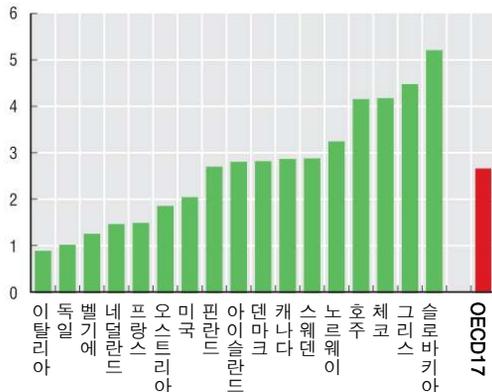
GE1.1. OECD 국가의 1인당 국민순소득은 11,000 US 달러에서 55,000 US 달러까지 국가별로 다르다.

2006년 PPP 지수를 이용하여 현재 미국 달러로 환산한 1인당 국민순소득, OECD평균 = USD 26,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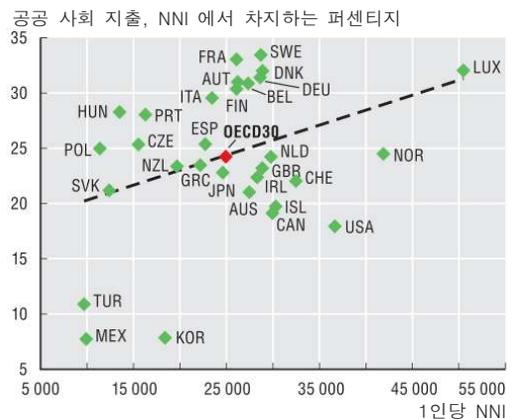
GE1.2. 최근 NNI 증가율은 1%에서 5%사이로 국가별로 다르다.

2000년과 2006년 사이 실질 1인당 NNI의 연간 평균 증가율, 단위: 퍼센티지



GE1.3. 국민순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높다.

NNI 와 1인당 NNI 중 공공 사회 지출의 비율 2005년 USD 구매력 기준



출처: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www.oecd.org/statistics/national-accounts)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002185115>

4. 일반현황지표

2. 출산율

정의와 측정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는 자녀의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이다. 합계 출산율은 5년 주기로 연령별 출산율의 합을 계산한 것이다. 순 이민이 없고 사망률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합계 출산율이 여성 한 명당 2.1명(“인구대치율”)일 때 인구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각 연령대별 출산율을 가중한 연령 평균으로 계산된다. 혼외 출생자의 비율은 당해년도 전체 출생아의 수 중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 관계 외의 출생아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행정, 인구 등록부나 기타 행정 기록에서 발체되며 UN과 유로스타트 권고안에 따라 정렬된다. 출산율 데이터가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터키의 경우는 예외이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출산율이 낮다. 저출산의 이유는 다양하다. 생활방식의 변화, 고용 불안, 적절한 주거 시설 마련의 어려움, 비용 부담이 크거나 질이 낮은 아동 보호 시설, 또는 이러한 시설의 부재, 여성 교육 수준 향상, 직장 내 여성 차별 감소 뿐 아니라 가족들이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실패한 정책 등이 저출산의 원인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약 요인 중 다수가 OECD 국가에서의 장기적 출산율 감소를 설명해 줄 수 있다. (D' Addio, Mira d' Ercole, 2005).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은 인구 대치율을 현저히 밑돌고 있다. 2006년, OECD 국가의 출산율 평균은 1.65이다. 멕시코, 터키 (2.2), 아이슬란드, 미국 (약 2.1)을 포함한 소수 국가에서만 출산율이 인구 대치율보다 높았다.

출산율 감소는 정책적 과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가족 중 육아를 담당하는 고령자의 감소에 대한 대응, 근로 연령대 인구의 재정 연금과 보건 의료비에 대한 증가하는 세금 부담, 고령 노동자, 국내 저축액 감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2002년 이후 출산율이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OECD 1.60이었던 OECD 평균 출산율은

2006년 1.65로 회복되었다(GE2.1). 17개국에서 이러한 회복세가 나타났는데, 출산율 증가폭이 가장 큰 국가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그리고 체코였다. 이 같은 출산율 회복세는 출산율 30대 또는 그 이후로 미룬 여성들의 출산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Sardon, 2006). 가족과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증가 등 정책적 수단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초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초산모의 평균 연령이 1970년 이후 십 년마다 1세씩 늘어나고 있다(표 GE2.2). 초산 연령 증가는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여성이 자녀를 낳지 않을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낳는 등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산모와 자녀의 건강상의 위험도 늘어난다.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2005년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혼외 출생자의 비중도 높다(GE2.3). 그러나 국가별 차이가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자녀 출산이 결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본, 한국, 몇몇 남유럽 국가에서는 혼외 출생자 비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다.

추가자료

D' Addio, A.C. and M. Mira d' Ercole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27, OECD, Paris.

OECD (2008), “SF3.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 available at: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Sardon, J. (2006), “Recent Demographic Trends in Europe and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Population, Vol. 61, No. 3, pp. 197-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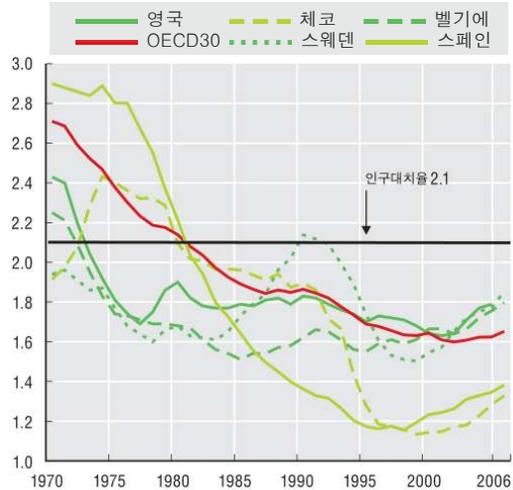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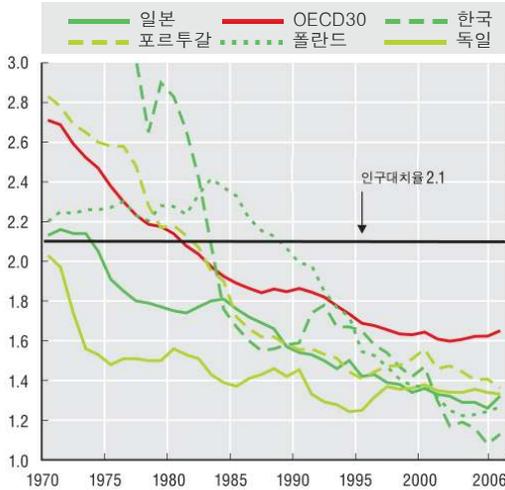
표와 그림설명

표 GE2.2: 각주 1: 1992년 멕시코, 각주 2: 2001년 뉴질랜드; 2003년 멕시코, 각주 3: 2003년 핀란드, 그리스, 스페인, 영국; 2002년 미국; 2004년 뉴질랜드; 2006년 멕시코.

그림 GE2.3: 각주 1: 2005년 호주, 2007년 벨기에.

GE2.1. 전반적으로 OECD 국가의 출산율은 인구 대체율을 밑돌았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부터 2006년까지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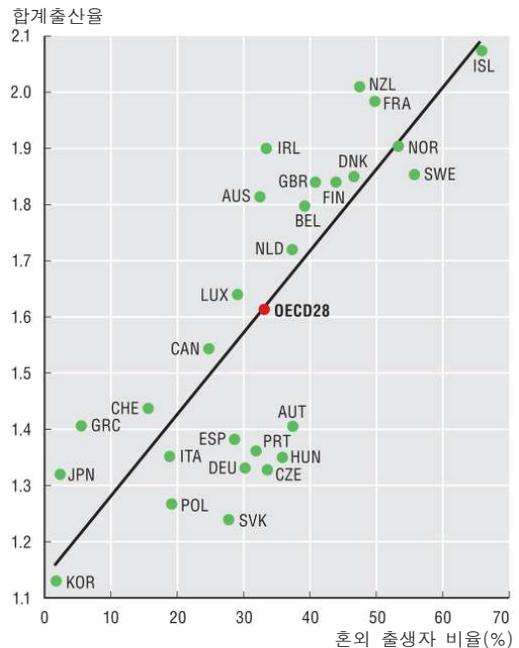
GE2.2. 초산모의 평균 연령 증가

	초산모의 평균 연령			
	1970	1995 ¹	2000 ²	2005 ³
호주	23.2	26.8	..	28.0
오스트리아	..	25.6	26.4	27.2
벨기에	24.3	27.3	..	27.4
체코	22.5	23.3	25.0	26.6
덴마크	23.8	27.4	27.7	28.4
핀란드	24.4	27.2	27.4	27.9
프랑스	24.4	28.1	27.9	28.5
독일	24.0	27.5	28.2	28.1
그리스	25.0	26.6	27.5	28.5
헝가리	22.8	23.8	25.1	26.7
아이슬란드	21.3	25.0	25.5	26.3
아일랜드	..	27.3	27.6	28.5
이탈리아	25.0	28.0	..	28.7
일본	25.6	27.5	28.0	29.1
한국	29.1
룩셈부르크	24.7	27.4	28.4	29.0
멕시코	..	20.9	21.0	21.3
네덜란드	24.8	28.4	28.6	28.9
뉴질랜드	28.0	28.0
노르웨이	..	26.4	26.9	27.7
폴란드	22.8	23.8	24.5	25.8
포르투갈	..	25.8	26.5	27.4
슬로바키아	22.6	23.0	24.2	25.7
스페인	..	28.4	29.1	29.3
스웨덴	25.9	27.2	27.9	28.7
스위스	25.3	28.1	28.7	29.5
영국	..	28.3	29.1	29.8
미국	24.1	24.5	24.9	25.1
OECD16	24.0	26.2	26.8	27.7

출처: Eurostat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GE2.3. 출산율과 혼외 출생자는 상관관계가 있다.

혼외출생자의비율¹과 출산율, 2006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015445534>

정의와 측정

출생지와 국적은 OECD 국가들이 이민인구를 정의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기준이다. 첫 번째 기준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자신이 출생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기준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이며, 본국에서 출생한 사람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외국 출생 인구의 크기와 외국인 인구의 국가별 차이는 각 국의 시민권 획득 관련 규정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외국 출생 인구는 외국인 인구보다 상당히 많다. OECD 국가의 이민 인구의 본국, 특성(나이, 성별, 교육 수준, 체류 기간, 노동 시장 성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21세기 이주인구 개요 라는 발간물에 기재되어 있다.

순 이민자는 특정 연도에 해외에서 귀국한 외국인과 내국인 입국자 수에서 당해연도 외국인과 내국인 출국자 수를 제한 것이다. 유입 및 유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지 않지만, 유입과 유출의 차이로 산정되는 순이민 통계는 유입/유출 통계의 비교 불가능성의 주요 원인인 단기 이동을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OECD 연례 보고서인 세계 이민 전망은 OECD 국가의 최근 동향 및 이민 정책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제시한다.

2006년 기준으로 OECD 인구의 평균 12%가 해외 출생 인구이다. OECD 내에서 이민 인구의 규모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이 전체 인구 중 이민 인구 비율이 10%를 초과한다(GE3.1). 프랑스(8%)와 영국(10%)은 이웃국가인 아일랜드와 스페인에 비해 이민 인구 비율이 적은 편이다. 해외 출생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로 이들 국가의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은 20% 이상이다.

해외로의 이민 유출이 많은 멕시코와 터키의 경우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은 미미하다.

OECD 국가의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의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은 2000년 이후 2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다. 일부 국가에서, 특히 스페인(7%), 아일랜드(6%), 뉴질랜드, 호주(각 4%)는 인구 중 이민 인구 비율에 큰 변화가 있었다.

평균적으로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인구 증가 중 절반은 순 이주 인구 유입으로 인한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순 이민자가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의 대부분(예: 스페인) 또는 전부(예: 이탈리아)를 차지했다(GE3.2). 순 이민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페인이었다.

OECD 국가로의 총이민 유입은 지난 15년간 증가해왔다(GE3.3). 순 이민 유입/유출로 인해 국가 내외의 장기적인 총 인구 유입/유출이 가려지기도 한다. 많은 OECD 국가들이 이민자 및 그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통합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일부 유럽 외 지역 OECD 국가들의 경우, 젊고 숙련되고 건강한 인력의 해외 유출-“두뇌 유출” 현상-이 정책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추가 자료

OECD (2007), Jobs for Immigrants (Vol. 1):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Australia, Denmark, Germany and Sweden, OECD, Paris.

OECD (2008a),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OECD, Paris.

OECD (2008b), A Profile of Immigrant Populations in the 21st Century: Data from OECD Countries, OECD,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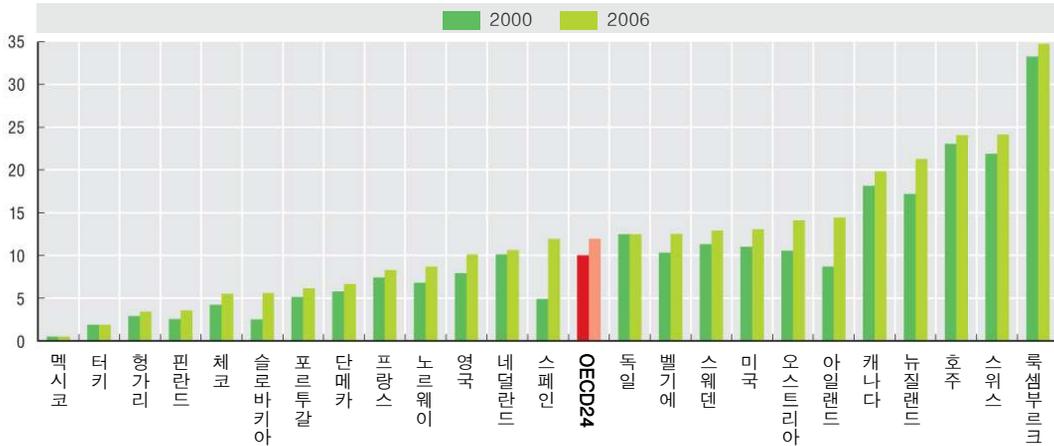
OECD (2008c), Jobs for Immigrants (Vol. 2):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Belgium, France, Netherlands and Portugal, OECD, Paris.

그림설명

그림 GE3.3: EEA: 유럽 경제지역은 유럽 연합 및 (이 데이터에서는 EU15개국)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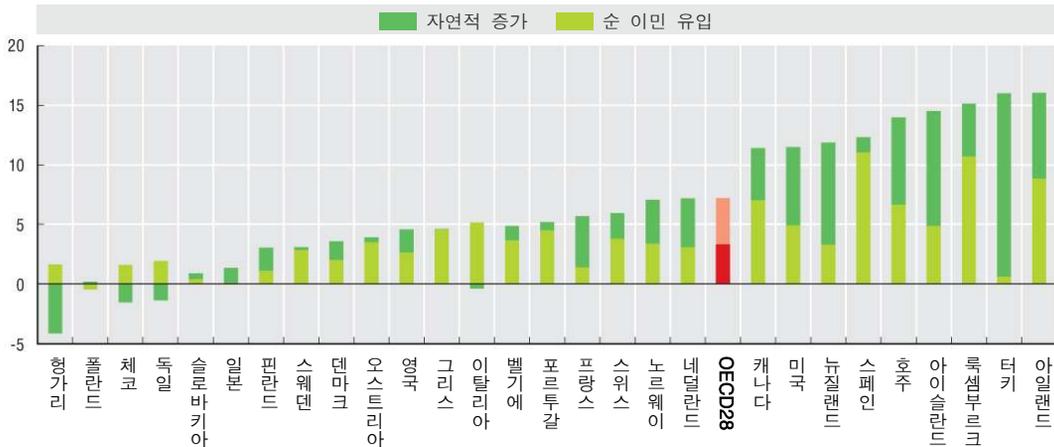
GE3.1.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OECD 국가의 해외 출생 인구 비율

2000년과 2006년의 전체 인구 중 해외 출생 인구 퍼센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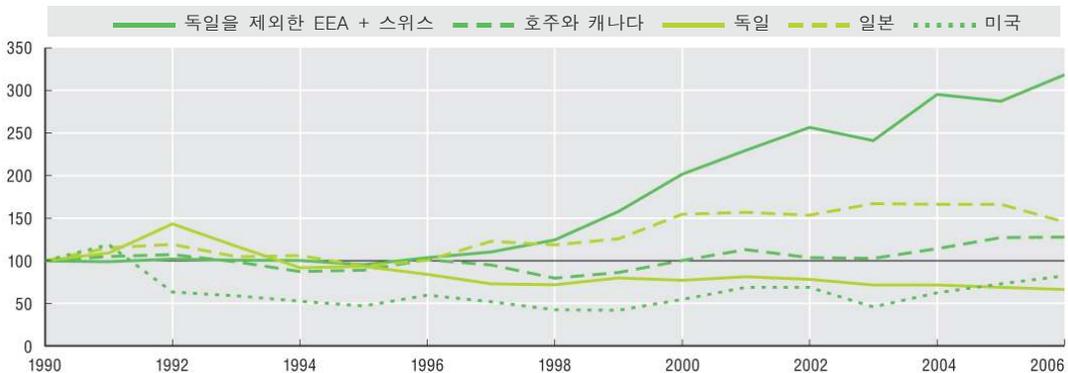
GE3.2.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인구 증가율의 절반은 순 이민 유입으로 인한 것이다.

1996년부터 2006년 사이 인구 변화 퍼센티지와 순 이민 유입으로 인한 인구 변화



GE3.3. OECD 지역으로의 총 이민 인구가 지난 10년간 증가해왔다.

일부 OECD 국가에서의 외국인 유입, 1990-2006, 1990=100



출처: OECD(2008),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OECD, Paris.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026105721>

4. 결혼과 이혼

정의와 측정

조 결혼율은 인구 비율로서의 연간 결혼건수이다. 조 이혼율은 인구 비율로서 연간 법적으로 종결된 결혼 건수이다. 결혼과 이혼 통계는 행정 등록부에 근거한다. 결혼을 산정 시 비공식적인 가족의 성립 및 다른 형태의 법적 결합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혼율은 이와 같이 측정되지 않는 결합의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이혼 건수를 반영하지 못한다.

결혼율과 이혼율은 결혼상태로의 유입 또는 비결혼 상태로의 유출을 나타낸다. 인구의 관계 상태에 대한 정보는 OECD 17개국의 유럽 사회 설문조사 2006-07에서 발췌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함께 거주하며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의 수를 측정할 뿐 아니라, 일부 OECD 국가서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시민 동반자 제도를 택한 커플 및 동거 커플의 수까지 측정한다. 또한 이 데이터는 동거 중이거나 시민 동반자 제도에 속한 동성 및 이성 커플을 포함한다. 표본 집단의 다양성과 높은 무응답자 비율로 인해 설문조사 데이터와 그 외 개별 국가의 결혼 상태에 대한 자료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결혼율은 감소했다. 2006년 OECD 26개국의 조 결혼율은 인구 1,000명당 5.1명으로 1970년에 비해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OECD의 결혼율 감소 속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체코, 한국, 미국의 경우 1990년 결혼율이 급격히 감소했고, 스페인과 스웨덴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안정세를 보이거나 심지어 증가하기도 했다(GE4.1).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혼율은 증가했다. 2005년, 조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평균 2.3명으로 1970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고, 2000년에는 0.2포인트 더 증가했다. 1990년 이후, 미국의 이혼율은 감소했으나, 포르투갈, 폴란드, 스페인, 일본은 이혼율이 증가했다(GE4.2).

OECD 국가들에서 법적 결혼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성인 간의 관계이지만, 인구 중 상당수가 동거를 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 동반자 제도를 택하고 있다(표 GE4.3). 포르투갈과 스위스에서는 성인 인구 중 60% 이상이 결혼을 했으나, 스웨덴의 경우 44%에 불과하다. 시민 동반자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된 국가에서

도 결혼보다는 인기가 낮았으나 벨기에(실제로, 벨기에의 경우 동거 인구 비율보다 시민 동반자 제도를 택한 인구 비율이 더 높다), 네덜란드, 헝가리에서는 성인 인구의 5% 이상이 시민 동반자 제도를 선택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특히 스웨덴과 프랑스는 동거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동거 비율은 슬로바키아공화국, 헝가리, 폴란드의 경우 특히 낮았다. 독신 인구 비율은 프랑스가 가장 낮은 28%였고 폴란드는 가장 높은 42%를 기록했다.

남성들의 경우, 초혼 연령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높은 편이나,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 격차는 국가별로 달랐다. 1990년과 2003년 사이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의 초혼 연령의 성별 차는 증가했다(GE4.4). 이와 반대로, 아일랜드에서는 여성들의 초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남녀간 초혼 연령 격차가 크게 줄었다.

추가자료

Dickmann, A. and K. Schmidheiny (2006),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vorce - A Fifteen-Country Study with the Fertility and Family Survey", Paper presented at the 2004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Morrison, D. and M. Coiro (1999), "Parental Conflict and Marital Disruption: Do Children Benefit When High-Conflict Marriages are Dissolve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1, No. 3, pp. 626-637.

OECD (2008), "SF8. Marriage and divorce rates", OECD Family Database available at: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Smock, P. (2004), "The Wax and Wane of Marriage: Prospects for Marriage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6, No. 4, pp. 966-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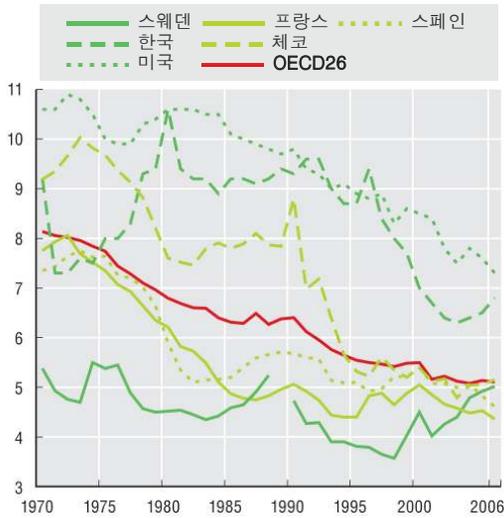
Sobotka T. and L. Toulemon (2008), "Changing Family and Partnership Behaviour: Common Trends and Persistent Diversity across Europe", *Demographic Research*, Vol. 19, No. 6, pp. 85-138.

표 설명

표 GE4.3: 오스트리아의 경우 결혼을 제외한 다른 데이터가 없다. 시민 동반자 제도 데이터의 부재는 이러한 형태의 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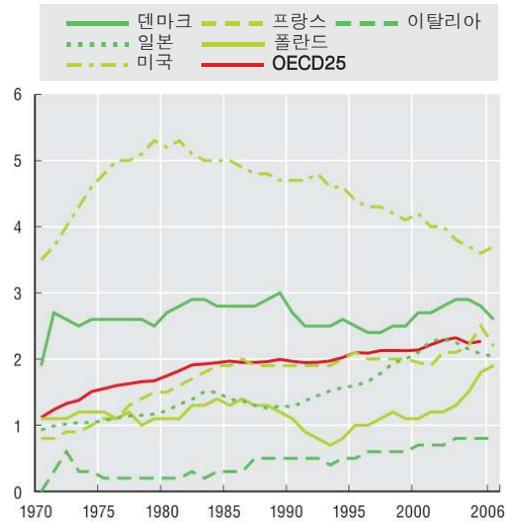
GE4.1. 일반적으로 결혼율은 감소 추세이다

인구 1000명당 결혼건수, 1970-2006



GE4.2. 일반적으로 이혼율은 증가 추세이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 197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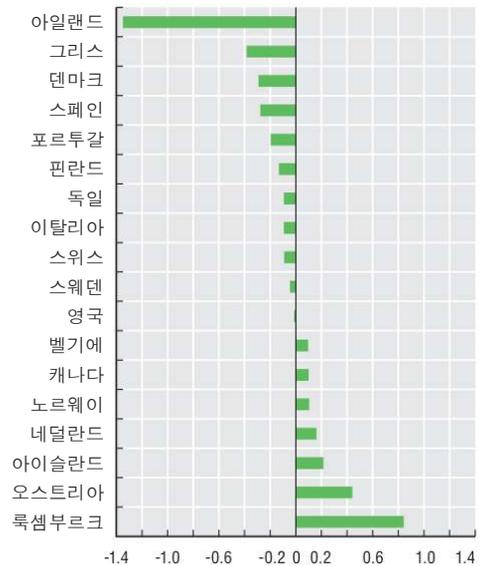
GE4.3. 결혼, 시민 동반자 및 동거

성인 인구 퍼센티지, 2006-07

	기혼	시민 동반자	동거인	미혼	합계
오스트리아	52
벨기에	54	7	6	34	100
덴마크	57	1	13	30	100
핀란드	51	0	15	34	100
프랑스	56	2	14	28	100
독일	54	1	8	36	100
헝가리	53	6	3	37	100
아일랜드	55	0	7	37	100
네덜란드	56	6	8	30	100
노르웨이	50	3	14	33	100
폴란드	56	0	2	42	100
포르투갈	62	0	4	34	100
슬로바키아	56	5	1	39	100
스페인	55	3	4	38	100
스웨덴	44	1	21	35	100
스위스	61	2	6	31	100
영국	54	4	6	36	100
OECD	54	3	8	35	100

GE4.4. 변화하는 남녀간 초혼 연령 격차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남녀간 평균 초혼 연령 격차의 변화



출처: Figures GE4.1, GE4.2, GE4.4 based on Eurostat and national sources; GE4.3 based on European Social Survey 2006-07.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077543104>

제5장

자활지표

1. 고용
2. 실업
3. 육아
4. 학업 성취도
5. NEET
6. 노동활동 중단연령
7. 교육비 지출

1. 고용

정의와 측정

어떤 사람이 임금, 이윤 또는 가족 수당을 받기 위해 질병, 휴가 또는 노동 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재 중이더라도 최소 주당 한 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다면, 고용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OECD 국가의 노동력 설문조사 자료는 설문조사 주간 동안 근로에 대해 위와 같은 정의에 근거하여 수집된 자료이다. 고용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현재 고용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다. 이러한 고용율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및 체류 상태에 따라 분류되어 제시된다.

또한 이 섹션은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근로의 비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시간제 근로는 본업에 주당 30시간 이하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된다. 이 데이터는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대해 답변한 사람들만 포함하고 있다. 고용에 대한 OECD 데이터는 국가별 노동력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노동 연령 인구의 고용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해왔다. 여러 OECD 국가에서, 2007년 고용율은 1980년대 고용율보다 높았다(SS1.1). 1995년 이후 고용율의 증가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5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했고,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경우 10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했다. 이와 반대로, 체코, 폴란드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고용율이 1에서 3포인트 낮았고, 터키의 경우 5포인트 낮았다. 고용율의 국가별 차이는 크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을 포함한 14개국에서 고용율은 70%를 초과했고,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에서는 60% 이하로 떨어졌다(표 SS1.3).

청소년과 고령자는 핵심 연령대 노동자에 비해 고용될 확률이 훨씬 낮았다(SS1. 2, 표 SS1.3). 이러한 연령별 패턴은 모든 OECD 국가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을 받고 있고, 노동 시장에서 활동

하는 청소년의 경우 누적 직무 경력이 거의 없으며, 다수의 고령자들은 65세 이전에 은퇴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될 확률이 현저히 낮다. 2007년 기준 여성의 고용율은 남성 고용율에 비해 16퍼센트 포인트 낮다. 변수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에서는 여성 고용율이 50% 미만인데 반해,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의 경우 70%를 초과한다. 남성 고용율은 국가마다 비슷하다. 고용율의 성별 차가 적은 국가에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포함되며, 터키와 멕시코는 성별 차가 크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을 가질 확률이 훨씬 낮다. 이러한 패턴은 OECD 모든 국가에서 예외 없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OECD 국가의 정부는 자활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민자들은 본국 태생자들에 비해 고용될 확률이 약간 낮다. 그러나 평균적인 OECD 고용 격차는 SS1.3에서 조사된 다른 기준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다. 실제로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의 경우 이민자들은 본국 태생자들에 비해 고용될 확률이 더 높았으나(많은 것은 7퍼센트 포인트 이상), 이와 반대로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에서는 고용 확률이 훨씬 낮았다(많은 것은 15퍼센트 포인트 이상).

최근 금융 위기는 2008년 후반부터 2009년까지 고용율에 하향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율 감소의 폭과 기간은 아직 불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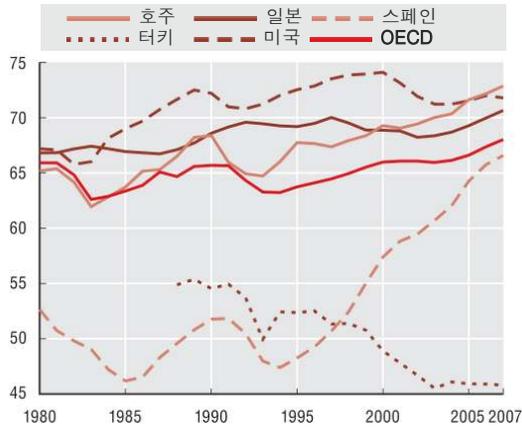
그림설명

그림 SS1.2: 데이터는 여성 고용율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중등 교육 미만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정의되는 저숙련 노동자 데이터는 2006년 기준이다.

표 SS1.3: 각주 1: 2006년 교육 수준별, 각주 2: 2006년 캐나다, 아이슬란드,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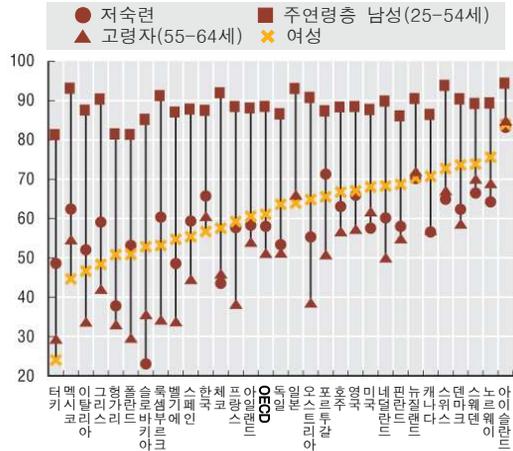
SS1.1. 근로인구 증가

215~ 64세 인구의 고용 비율



SS1.2. 사회-인구학적 계층별 고용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사회 계층별 고용율, 2007



SS1.3. 고용지표, 2007

15-64세 인구의 대비 고용율	인구대비고용율:							전체 근로자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¹			체류 상태 ²		합계	남성	여성	
	15-24	25-54	55-64	남성	여성	중등 교육 미만	중등 교육 이상	고등 교육	본국 태생	해외 출생				
호주	72.9	64.2	80.0	56.7	79.6	66.1	63.5	80.4	84.4	74.9	67.5	24.1	12.4	38.5
오스트리아	71.4	55.5	84.0	38.6	78.4	64.4	55.7	75.8	85.9	72.7	65.0	17.2	5.2	31.5
벨기에	61.6	26.8	79.3	33.8	68.2	54.9	49.0	73.2	83.6	63.5	50.9	18.3	6.3	32.9
캐나다	73.6	59.5	82.2	57.1	77.2	70.1	57.0	76.0	82.8	73.0	70.5	18.2	11.0	26.1
체코	66.1	28.5	83.5	46.0	74.8	57.3	43.9	75.6	85.1	66.1	67.3	3.5	1.7	5.9
덴마크	77.3	67.4	86.1	58.7	81.3	73.3	62.8	81.3	87.4	78.8	62.7	17.7	12.4	23.9
핀란드	70.5	46.4	83.3	55.0	72.4	68.5	58.4	75.6	85.0	70.5	63.5	11.7	8.2	15.5
프랑스	64.0	30.1	82.1	38.3	68.6	59.4	58.1	75.6	83.0	65.3	58.5	13.4	5.0	23.1
독일	69.0	45.9	80.3	51.3	74.7	63.2	53.8	72.5	84.3	70.9	61.1	22.2	7.9	39.2
그리스	61.5	24.2	75.7	42.1	74.9	48.1	59.5	69.7	83.3	60.9	66.6	7.8	4.1	13.6
헝가리	57.3	21.0	74.6	33.1	64.0	50.9	38.2	70.4	81.8	57.2	64.6	2.8	1.6	4.2
아이슬란드	85.7	74.3	89.4	84.9	89.5	81.7	83.6	88.6	92.0	84.6	84.2	15.9	8.0	25.4
아일랜드	69.0	48.8	78.8	54.1	77.4	60.3	58.7	77.3	86.5	68.2	72.9	20.3	7.6	35.6
이탈리아	58.7	24.7	73.5	33.8	70.7	46.6	52.5	74.4	80.6	58.0	65.9	15.1	5.4	29.9
일본	70.7	41.5	80.2	66.1	81.7	59.5	73.1	79.8	18.9	9.2	32.6
한국	63.9	25.7	74.0	60.6	74.7	53.2	66.2	70.3	77.2	8.9	6.3	12.5
룩셈부르크	63.0	22.1	80.1	34.3	72.4	53.5	60.8	73.4	85.2	59.2	71.1	13.1	1.6	28.8
멕시코	61.1	44.2	70.3	54.7	80.9	43.6	62.8	73.1	83.3	15.1	8.1	27.6
네덜란드	74.1	65.4	83.6	50.1	80.0	68.1	60.6	79.1	86.4	77.0	62.4	36.1	16.2	60.0
뉴질랜드	75.4	58.7	82.2	72.0	82.1	69.0	70.6	84.5	84.6	22.0	11.2	34.7
노르웨이	77.5	56.0	85.8	69.0	80.4	74.6	64.7	83.1	89.2	77.2	69.9	20.4	10.5	31.6
폴란드	57.0	25.8	74.9	29.7	63.6	50.6	53.6	65.6	83.5	57.1	36.8	10.1	6.0	15.0
포르투갈	67.8	34.9	81.0	50.9	73.9	61.9	71.7	80.2	86.4	67.3	73.1	10.0	6.3	14.3
슬로바키아	60.7	27.6	78.0	35.7	68.4	53.0	23.5	71.9	84.9	60.7	66.0	2.6	1.2	4.4
스페인	66.6	42.9	76.8	44.6	77.4	55.5	59.8	75.9	83.4	64.4	70.3	10.9	3.8	20.9
스웨덴	75.7	46.3	86.1	70.1	78.0	73.2	66.9	81.9	87.3	76.2	63.1	14.4	9.5	19.7
스위스	78.6	62.6	86.1	67.2	85.6	71.6	65.3	80.1	90.2	80.3	73.7	25.4	8.7	45.6
터키	45.8	30.4	54.2	29.4	67.9	23.8	49.0	62.7	75.5	45.7	48.7	8.4	4.6	19.2
영국	72.3	55.9	81.3	57.4	78.4	66.3	66.3	80.7	88.1	71.8	66.3	23.3	9.9	38.6
미국	71.8	53.1	79.9	61.8	77.8	65.9	58.0	73.3	82.7	69.5	70.8	12.6	7.6	17.9
OECD	68.0	43.7	79.6	51.2	75.8	60.3	58.4	75.9	84.4	68.1	65.1	15.3	7.2	25.6

출처: OECD (2008),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Paris (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 and OECD (2008),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www.oecd.org/els/migration/imo).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148582371>

정의와 측정

고용율은 근로를 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연령인구(15-64세) 대비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직활동 중인 사람들의 비율이다. 이 데이터는 회원국의 노동력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다. 이 설문조사에 사용된 표준화된 ILO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는 일할 능력이 있고 설문조사 이전 4주 동안 구직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설문조사 대상 기간 중 일주일에 한 시간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로 일을 못하는 사람 또는 구직의 희망이 거의 없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이 섹션은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 비율에 대한 데이터도 제시한다. 장기 실업이란 6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사람, 12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사람 등 두 가지로 정의된다.

2007년 OECD 평균 실업률은 5.7%였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의 실업률은 3% 미만이었으며,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터키의 경우는 10%를 상회했다(표 SS2.3).

2005년과 2007년 사이, OECD 평균 실업률은 약 1퍼센트 포인트 감소했다. 2001년 이후부터는 4년 연속 실업률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SS2.1). 그러나 같은 기간 실업률 변화 양상은 국가별로 달랐다. 15개국(특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페인, 폴란드)에서 실업률이 감소한 반면 그 외 15개국(독일, 포르투갈, 스웨덴)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했다. 최근 금융 위기는 많은 OECD 국가의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이민자 및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은 실업의 가능성이 더 높다. 30개국에서 이러한 연령별 패턴을 보인다. OECD 국가의 평균 청년 실업률(12%)은 25-54세의 노동 연령 인구(5%)와 고령자(4%) 실업률보다 훨씬 높다. 이민자의 실업률은 본국 태생자들의 실업률과 비교해 다소 높다(평균 3퍼센트 포인트 높음). 이민자 실업률이 낮은 헝가리, 터키 또는 미국의 경우 이러한 패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딕 국가에서는 이민자 실업률이 본국 태생 인구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다소 높은 멕시코, 한국, 터키를 제외하고는 교육 수준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업률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실업의 확률이 다소 높다. 그러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4개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서 2007년 기준 여성 실업률이 남성에게 비해 3 퍼센트 포인트 이상 높았다. SS2.2는 위의 4개국 중 3개국에서 1990년대 초반에 실업률 성별 차가 2007년에 비해 훨씬 더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는 예외적으로 성별 불균형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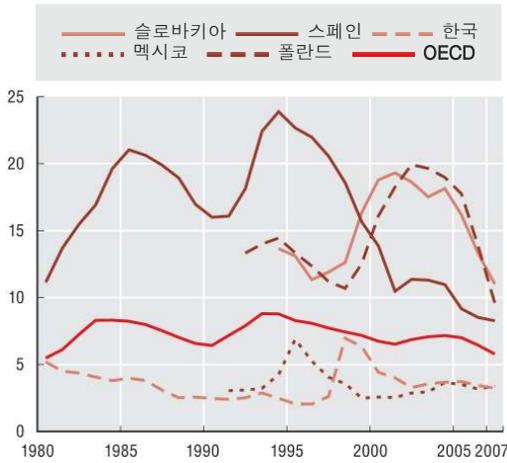
그림과 표 설명

그림 SS2.2: 1990년과 가장 가까운 통계 수치는 1991년 아이슬란드, 스위스, 멕시코, 1992년 헝가리, 폴란드, 1993년 체코, 1994년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임.

표 SS2.3: 각주 1: 2006년 교육 수준별, 각주 2: 2006년 캐나다, 아이슬란드,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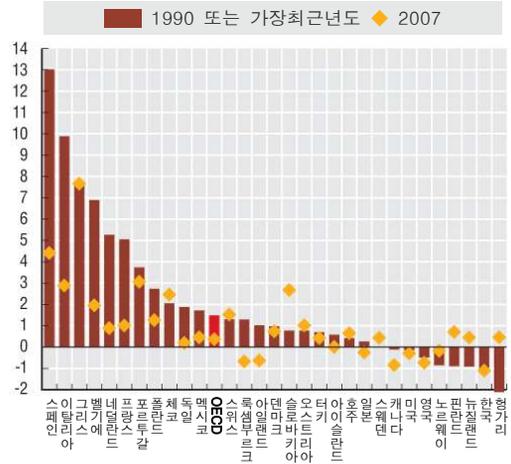
SS2.1. 감소하는 OECD 실업률

15-64세 인구의 실업률, 1980-2007



SS2.2. 감소하는 실업률의 성별차

1990년 또는 자료가 제공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해와 2007년의 남녀 실업률 격차의 퍼센트 포인트



SS2.3. 실업지표, 2007

15-64세 인구의 대비 실업률	인구대비실업률:									실업중 장기실업의 비율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¹			체류 상태 ²		합계	남성	여성	
	15-24	25-54	55-64	남성	여성	중등교육미만	중등교육이상	고등교육	본국태생	해외출생				
호주	4.4	9.4	3.4	2.7	4.1	4.8	6.2	3.9	2.8	4.1	4.7	27.1	15.5	38.5
오스트리아	4.5	8.7	3.8	3.0	4.0	5.1	7.8	3.8	2.9	3.5	9.0	44.2	26.8	31.5
벨기에	7.7	19.2	6.8	3.8	6.7	8.8	11.7	6.9	3.9	6.4	16.4	68.1	50.0	32.9
캐나다	6.1	11.2	5.1	5.0	6.4	5.7	9.9	6.1	4.7	6.5	7.0	14.8	7.5	26.1
체코	5.4	10.7	4.9	4.6	4.3	6.8	23.0	6.4	2.0	5.3	9.0	71.6	53.4	5.9
덴마크	3.6	7.2	2.7	4.2	3.3	4.1	7.8	4.8	3.9	3.4	8.2	29.5	18.2	23.9
핀란드	6.9	15.7	5.3	6.5	6.5	7.3	12.0	8.2	4.7	6.7	14.4	37.9	23.0	15.5
프랑스	8.0	18.7	6.9	5.1	7.5	8.6	12.1	7.6	6.2	7.4	13.4	58.5	40.4	23.1
독일	8.7	11.7	8.0	10.3	8.6	8.9	20.5	11.2	5.5	7.8	14.3	71.3	56.6	39.2
그리스	8.2	22.0	7.6	3.4	5.0	12.8	8.4	9.7	6.9	8.4	8.7	68.2	50.3	13.6
헝가리	7.4	18.0	6.8	4.2	7.2	7.7	10.8	5.0	1.9	7.5	4.3	64.0	47.5	4.2
아이슬란드	2.3	7.2	1.3	0.9	2.3	2.4	3.1	2.8	1.0	2.9	-	11.1	8.0	25.4
아일랜드	4.6	8.7	4.1	2.6	4.9	4.3	6.4	3.2	2.1	4.4	5.9	50.1	30.3	35.6
이탈리아	6.2	20.3	5.3	2.4	5.0	7.9	7.8	5.3	4.8	6.0	7.9	65.4	49.9	29.9
일본	4.1	7.7	3.7	3.4	4.1	3.9	6.7	5.4	3.7	47.5	32.0	32.6
한국	3.4	8.8	3.1	2.2	3.8	2.8	2.6	3.5	2.9	11.7	0.6	12.5
룩셈부르크	3.9	14.9	3.3	0.7	4.1	3.5	5.0	3.8	3.0	3.6	4.6	54.7	33.5	28.8
멕시코	3.5	6.7	2.7	1.6	3.3	3.8	1.9	2.8	3.0	5.4	2.7	27.6
네덜란드	3.7	7.3	2.7	4.1	3.2	4.2	5.7	3.9	2.8	3.1	7.6	59.1	41.7	60.0
뉴질랜드	3.7	9.7	2.5	1.4	3.4	3.9	4.2	2.4	2.4	4.8	6.0	16.7	5.7	34.7
노르웨이	2.5	7.5	1.9	1.0	2.6	2.5	3.6	3.8	2.4	2.3	5.1	25.1	8.5	31.6
폴란드	9.7	21.7	8.4	6.8	9.1	10.4	27.8	17.4	6.2	9.7	9.5	64.3	45.9	15.0
포르투갈	8.5	16.6	7.8	6.5	7.0	10.1	6.4	5.6	4.4	8.4	9.6	67.6	47.3	14.3
슬로바키아	11.0	20.1	10.1	8.1	9.8	12.6	47.7	14.6	4.8	11.2	-	82.3	70.8	4.4
스페인	8.3	18.2	7.2	5.9	6.4	10.9	11.0	9.5	7.3	7.9	10.3	42.6	27.6	20.9
스웨덴	6.2	18.9	4.4	3.9	5.9	6.4	6.5	5.8	4.3	5.3	12.1	27.3	13.0	19.7
스위스	3.7	7.1	3.1	3.1	3.0	4.6	7.2	3.7	2.8	2.6	7.1	56.6	40.8	45.6
터키	10.1	19.6	8.3	3.8	10.0	10.5	8.1	10.1	8.2	8.7	8.3	46.3	30.4	19.2
영국	5.3	14.4	3.7	3.3	5.6	4.9	6.6	3.7	2.2	4.9	7.6	41.5	24.7	38.6
미국	4.7	10.5	3.7	3.1	4.8	4.6	10.5	5.6	3.3	5.3	4.4	17.6	10.0	17.9
OECD	5.7	11.9	4.9	4.0	5.5	6.0	10.3	6.2	3.9	5.7	8.6	42.3	29.1	25.6

출처: OECD (2008), Employment Outlook (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 and OECD (2008),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www.oecd.org/els/migration/imo).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176642218>

3. 육아

정의와 측정

0-2 세 아동의 보육 서비스 이용은 보육 센터, 등록된 보모, 가족 외의 사람이 제공하는 육아서비스와 같은 공식적인 보육 서비스 이용을 가리킨다. 3-5세 아동의 입학률은 공적인 유치원 교육에 참여한 아동 비율 및 일부 국가의 경우 4-5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을 말한다.

0-2 세 아동의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데이터는 OECD Babies & Bosses 리뷰, OECD 교육 데이터베이스, 유로다이스(Eurodce) 데이터베이스, NOSOSCO 리뷰, 국가 통계청 등 출처가 다양하며, 비교 가능성에는 제약이 있다. 3-5세 아동의 입학률은 OECD 교육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제시되어 있다. 이 정보는 공식적인 취학 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실제 숫자에 근거하며, 비율은 인구 데이터를 분모로 하여 산정된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3세 아동 중 5명 중 한 명은 공식적인 보육 시설에 등록이 되어있다(SS3.1).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에서는 어린 아동의 보육 시설 등록율은 10% 미만이고, 노르딕 국가에서는 이 연령대의 아동 중 40% 이상이 보육 시설을 이용한다. 덴마크(62%)와 아이슬란드(59%)는 특히 참여율이 높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공적 보육제도, 육아 휴가제, 여성의 근로 장려 인센티브, 문화 및 가족 구조 등의 차이를 반영한다. 등록율은 보육 시간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아동들이 공식적인 보육 시설에서 머무는 시간 또한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다. 육아의 강도가 아동 발달 결과와 어머니들의 노동 시장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문제로 국가별 비교는 어렵다. 육아의 상당 부분이 사설 보육 센터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가족 외의 사람이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보는 비율이 높은 국가(예: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 미국), 또는 지방 정부가 조기 교육과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예: 캐나다, 멕시코, 스위

스, 미국)의 경우 공적 보육 시설 입소율이 실제보다 낮게 보고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충분한 보고는 입학률의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여러 프로그램에 동시에 등록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 입학률이 이중으로 계산될 수 있고 그 결과 입학률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3-5세 아동 중 70% 이상이 유치원에 출석한다(SS3.2). 이 비율은 더 어린 아동들의 보육 시설 출석률보다 훨씬 높다. 2006년, OECD 국가 중 절반에서, 이 연령대의 아동 중 최소 80%가 유치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유치원 등록율은 보편적이다. 반면, 터키, 폴란드, 한국의 경우는 가족에게 육아의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유치원 등록율이 낮은 편이다.

과거에 비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수는 증가했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3-5세 아동의 유치원 등록율은 69%에서 73%로 4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증가 폭이 큰 국가에는 독일, 멕시코, 노르웨이가 포함된다.

북유럽 국가들과 프랑스, 벨기에는 순 국민 소득 중 육아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중이 가장 컸다(SS3.3). 반면 스위스, 한국, 캐나다, 그리스의 경우는 그 비중이 가장 낮았다. 육아 비용 지출 비중의 차이는 전체 인구 중 아동의 비율, 보육 시설 등록율, 국가 간 아동 한 명당 지출 비용의 차이를 반영한다.

추가 자료

OECD (various issues), Babies and Bosses, OECD, Paris. (www.oecd.org/els/social/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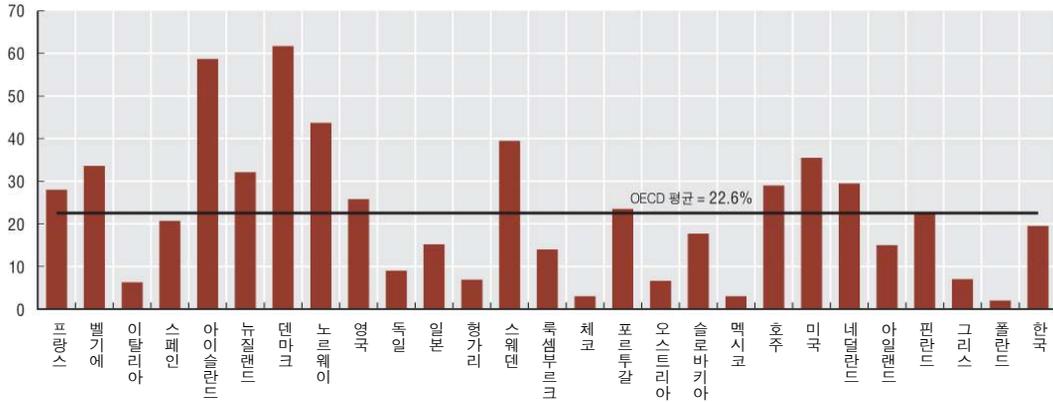
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OECD, Paris.

표 설명

표 SS3.1: 국가들은 3-5세 아동의 입학률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스위스와 터키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2000년; 독일, 폴란드 2001년; 프랑스 2002년;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2003년, 호주, 덴마크, 한국, 미국 2005년, 기타 국가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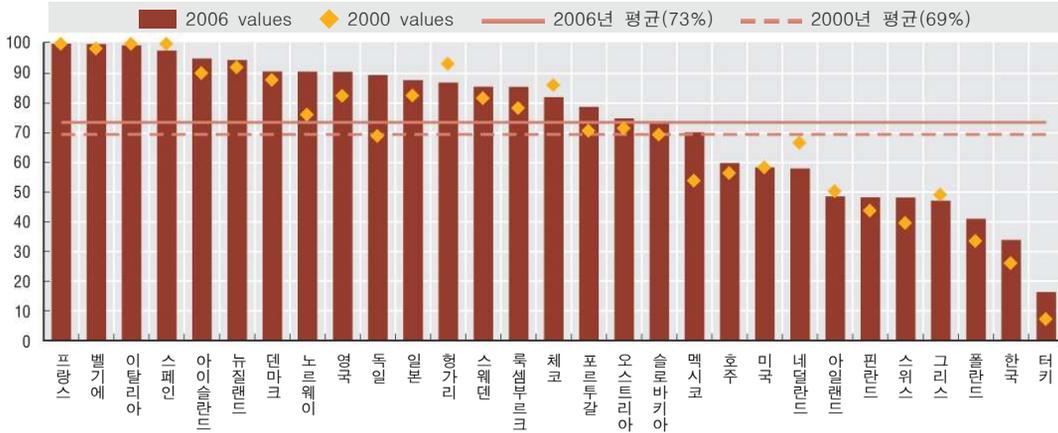
SS3.1. 공식적 보육 시설 입소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3세 이하 아동의 공식적 보육 시설 입소율 평균, 2005년 또는 자료가 제공된 최근 년도,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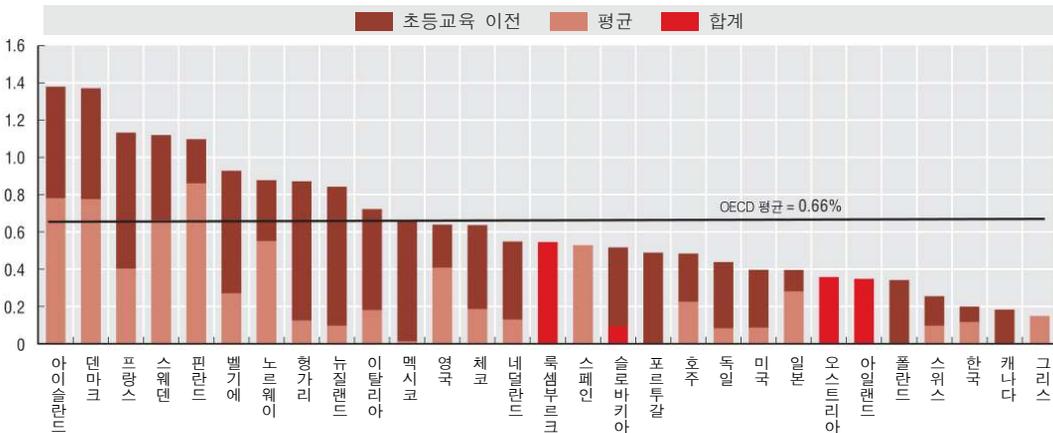
SS3.2. 3-5세 미취학 아동 대부분이 보육 시설에 입소한다.

3-5세 아동의 취학 전 프로그램 평균 등록율, 퍼센트, 2000년, 2005년



SS3.3. 노르딕 국가들은 육아 프로그램 지출 비율이 현저히 높다.

취학 전 교육을 포함한 육아에 대한 공적 지출, NNI 대비 퍼센트, 2005년



출처: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177446630>

■ 4. 학업 성취도

정의와 측정

학업 성취도는 OECD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 (PISA)을 통해 평가된다. PISA 는 의무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포괄적인 국제적 시험이다. 가장 최근의 결과에서, 2006년 OECD 국가의 15세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 시험에 응시했다(미국은 읽기 시험에 포함되지 않음). PISA 비교 시험은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감독되는 환경에서 실시된다. PISA시험은 특정 국가별 교과목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신 학생들은 길 찾기, 전기 제품 사용설명서의 해석, 통계 수치에서 정보 찾아내기 등 실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지식을 활용한다. 매 과목마다 OECD 국가들의 최초 평균 점수는 500이며, 이는 PISA의 주요 도메인이 된다. 이후 OECD 평균은 OECD 국가들의 학업 성취도를 반영한다.

PISA 시험 결과, 2006년 읽기 과목의 점수차는 2000년 실시된 시험의 점수차와 비교되며, 이는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 결과를 제시한다. (과학, 수학 결과는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비교가 불가능하다).

각 국 학생들의 세 과목 평균 시험 점수와 더불어 국가 내에서의 시험 점수 불균형 측정, 변동 계수(평균 점수로 나눈 국가별 표준 편차로 정의됨)가 사용되었다.

15세의 낮은 학업 성취도는 청년 층의 생애 주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습 성과가 낮으면 퇴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인 경력과 관계 전망이 악화되며, 복지 수당에 장기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OECD 국가의 정책 우선과제이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들이 아동들의 교육에 상당한 액수의 공적 기금을 투자한다. PISA 시험의 학업 성취도는 15세에 이르기까지 가족, 학교, 또래 집단, 공동체의 교육적 투자의 누적 효과를 나타낸다. 시험 점수가 성공적인 학교 교육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예를 들어, 사회화도 분명히 중요한 목표이다.), 시험점수는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한 척도로 간주된다.

의무 교육이 끝날 때까지의 학업 성취도의 국가별 차이는 크다(SS4.1). 최상위 국가 (한국은 읽기, 핀란드는 수학과 과학)와 최하위 국가(멕시코) 간의 차이는 140포인트를 초과하는데 이는 표준 편차의 1.5배이다. SS4.1은 읽기 능력이 뛰어난 국가들이 수학, 과학 능력도 뛰어난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읽기, 수학, 과학 점수 간 국가별 상관관계는 모두 0.87 이상이다.

여학생이 강세를 보이는 읽기능력의 성별 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커지고 있다. 2000-2006년 사이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읽기능력의 성별 차는 더 커지고 있다. (SS4.2).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상승 폭은 통계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2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동향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학생들에게 유리한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2006년 시험 결과, 읽기 시험 결과와는 반대로 남학생들은 수학 과목에서 여학생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과학 과목은 뚜렷한 성별 차를 보이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같은 기간 동안 수학, 과학 과목의 성별 차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2000년과 2006년 사이 평균 읽기 점수가 향상된 국가들은 시험 점수의 불균형도 감소했다(SS4.3). 읽기 점수의 변화와 읽기 점수 불균형의 변화(읽기 점수의 변동 계수에 의해 측정됨) 간의 상관관계는 -0.52이다. 한 눈에 보는 OECD 사회지표 이전 판은 PISA 평균 점수가 높은 국가는 시험점수 불균형도가 낮고, 평균 점수가 낮은 국가는 시험 점수 불균형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추가 자료

OECD (2003), Literacy Skills for the World of Tomorrow: Further Results from PISA 2000, OECD,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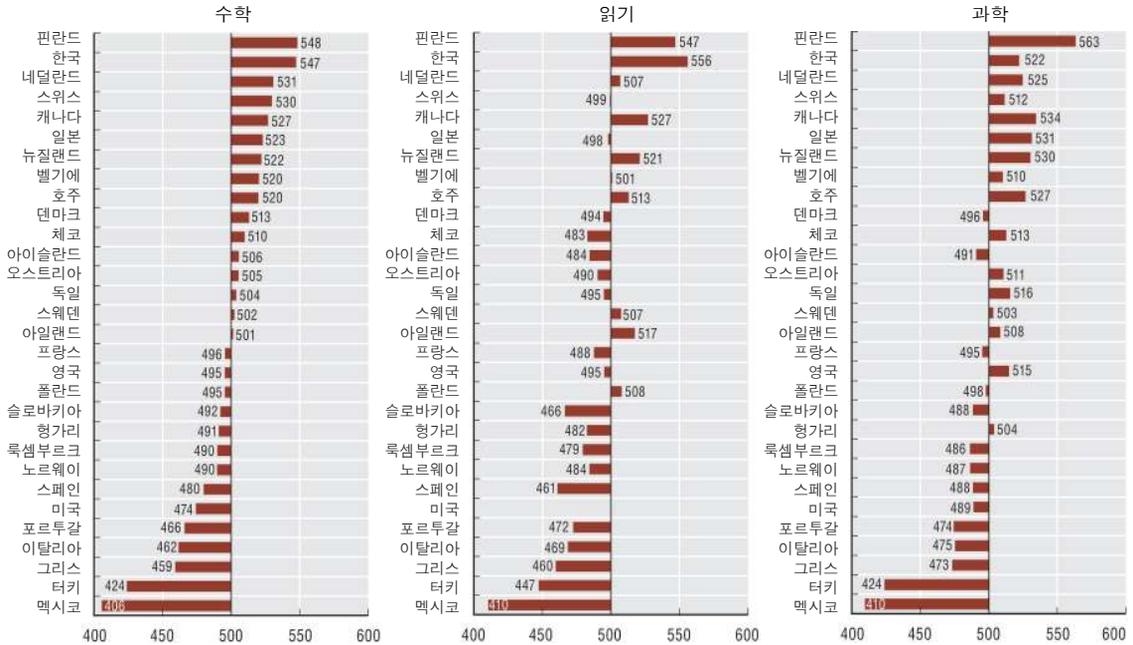
OECD (2007), PISA 2006: Science Competencies for Tomorrow's World, OECD, Paris (www.pisa.oecd.org).

그림 설명

그림 SS4.1: PISA: OECD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 수학 과목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국가들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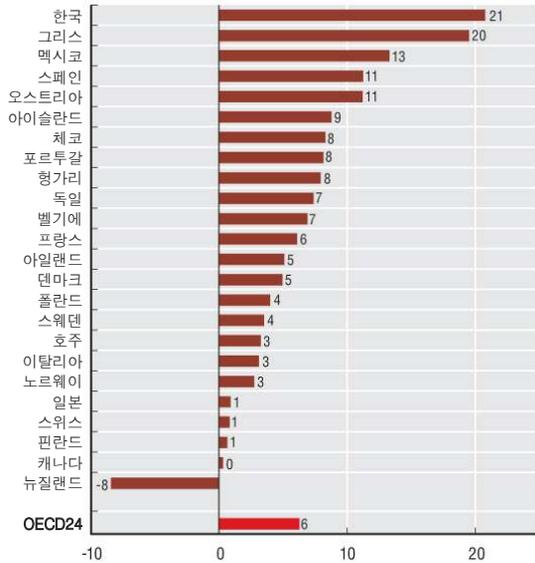
SS4.1. OECD 국가 간 학업 성취도의 큰 차이

수학, 읽기, 과학 과목의 평균 점수, PISA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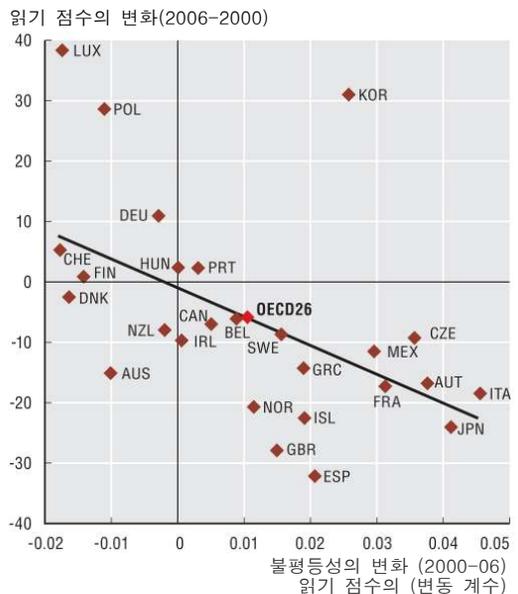
SS4.2. 여학생이 강세를 나타내는 읽기 능력의 성별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2000~2006년 사이 읽기 능력의 성별 차이의 변화



SS4.3. 평균 읽기 점수가 상승한 국가들은 시험 점수의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다.

평균 읽기 점수의 변화와 읽기 점수의 변동 계수의 변화



출처: OECD (2007), PISA 2006: Science Competencies for Tomorrow's World, OECD, Paris (www.pisa.oecd.org).

정의와 측정

이 지표는 15-19세 연령대 인구 중 재학 중이거나 고용 중 또는 훈련기간에 있지 않은 인구(NEET족)의 비율을 기록한다. 지표의 대상 연령대가 15-24세인 일본은 예외에 해당한다. 교육은 시간제, 전일제 교육을 모두 포함하지만, 비공식적 교육이나 교육기간이 매우 짧은 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노동력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고, 설문조사 이전 4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데이터는 표본 오차로 인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1998-2006년까지의 NEET족 비율이 보고되었다. 데이터는 OECD 한 눈에 보는 교육지표 2008에서 발췌되었다.

교육이나 훈련을 받거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NEET족)은 소수이다. 2006년 기준,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약 6%의 청소년들이 교육이나 훈련을 받거나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평균은 국가 간의 큰 격차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의 경우, NEET족 비율이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이와 반대로 노르웨이와 폴란드의 NEET족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OECD 국가에서 NEET족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남성 NEET족은 1998년 8%에서 2006년 6%로 감소했고 여성 NEET족 감소율도 이와 비슷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의 대부분이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발생했다. 이후 평균 OECD NEET족 비율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NEET족 감소의 주요 원인은 슬로바키아 공화국(1998-2002년 사이 남성의 경우 15 퍼센트 포인트, 여성은 8 퍼센트 포인트 감소), 헝가리(남성, 여성 모두 6 퍼센트 포인트 감소)의 NEET족 감소에 기인한다. 같은 기간 남성, 여성 NEET족 비율이 OECD 국가의 동향과 반대로 증가한 국가에는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일본, 그리고 영국이 있다.

OECD 국가들에서 NEET족 비율은 비슷하다. 남성 NEET족 비율은 여성 NEET족 비율에 비해 국가별 차이가 적다.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청소년 중 대부분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SS5.3). 슬로바키아, 체코,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에서만 NEET족 중 절반 이상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멕시코, 터키의 경우, 근로 의지가 있는 NEET족은 15% 미만에 불과했다.

남성 NEET족들은 수동적인 여성 NEET족에 비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젊은 남성 구직자보다 여성 구직자가 더 많은 나라는 폴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여성의 소극적 구직활동의 한 원인은 여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젊은 여성들이 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폴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10대 임신율이 낮은 국가들이다. 구직에 있어 성별 차가 가장 큰 국가는 멕시코와 터키로 이 두 국가의 10대 임신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와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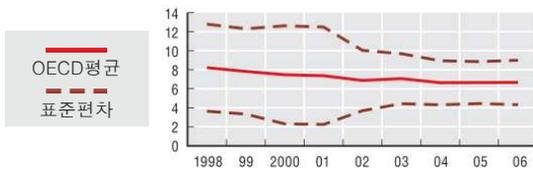
표 SS5.1, SS5.2: 2006년 기준 최신 데이터가 제공된 국가들만 비교 대상에 포함되었다. 일본의 데이터는 15-24세 연령대가 대상이다.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의 데이터는 없다.

표 SS5.3: 일본의 데이터는 15-24세 연령대가 대상이다.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의 데이터는 없다. 근로 능력이 있는 비활동 청소년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고용될 준비가 된 청소년을 의미한다. 슬로바키아의 남성 통계수치와 핀란드, 스웨덴, 그리스의 여성 통계수치는 슬로바키아의 여성 통계 수치, 핀란드, 스웨덴, 그리스의 남성 통계수치 및 합계 수치 보고에 근거하여 추산되었음.

SS5.1. OECD 국가의 남성 NEET족 비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청년 남성 NEET족 비율, 1998-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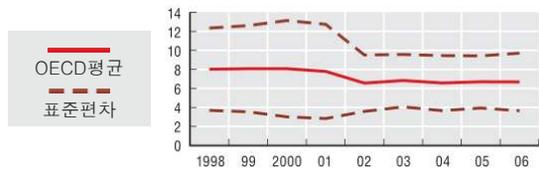
	1998	2000	2002	2004	2006
호주	9.0	6.4	6.9	7.6	6.7
오스트리아	8.1	7.2	7.1
벨기에	10.8	6.7	7.3	5.8	7.5
캐나다	9.1	8.7	8.7	9.8	8.0
체코	6.7	7.3	5.8	5.0	4.7
덴마크	..	1.9	2.4	1.9	4.8
핀란드	5.4	4.1
프랑스	3.5	3.4	3.7	5.7	6.7
독일	..	5.2	4.3	3.5	4.1
그리스	6.9	6.9	5.2	8.7	7.9
헝가리	12.4	8.6	8.3	6.6	6.4
아일랜드	..	4.5	5.2	5.2	5.3
이탈리아	14.5	12.2	10.8	11.1	12.2
일본	5.5	7.3	8.3	8.1	7.5
룩셈부르크	6.4	4.4
네덜란드	2.6	3.8	4.0	3.5	3.3
뉴질랜드	7.7
노르웨이	3.5
폴란드	4.7	5.0	3.5	3.0	3.8
포르투갈	6.9	6.2	7.7	9.0	7.8
슬로바키아	21.7	27.8	17.7	8.6	6.5
스페인	10.1	7.7	6.9	7.3	9.6
스웨덴	6.4	4.7	5.9	6.4	6.2
스위스	4.0	7.3	5.8	7.6	7.7
영국	..	8.2	8.2	9.0	11.5
미국	6.5	6.8	6.4	6.5	6.0



SS5.2. OECD 국가 간 여성 NEET족 비율의 차이는 남성 NEET족 비율 차이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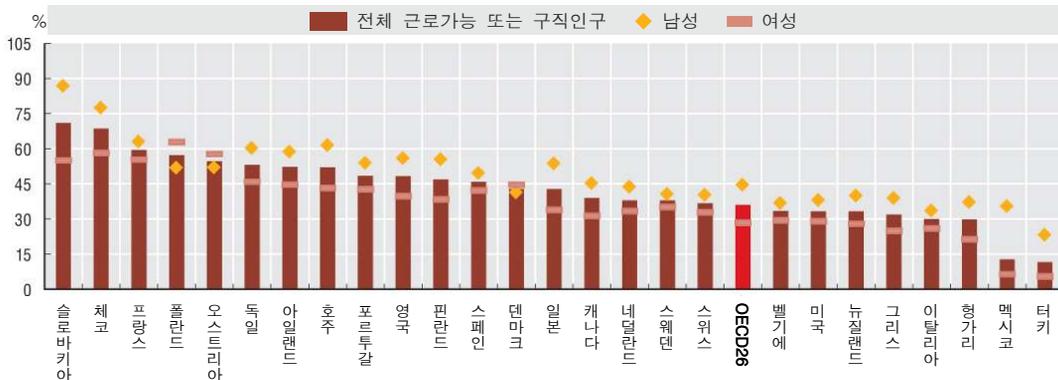
여성 NEET족 비율, 1998-2006

	1998	2000	2002	2004	2006
호주	8.7	7.3	7.2	7.4	7.4
오스트리아	4.4	7.5	6.0
벨기에	10.8	6.3	6.4	3.9	6.7
캐나다	7.9	7.7	7.2	7.6	6.7
체코	7.7	8.5	6.3	6.4	4.3
덴마크	2.1	3.6	2.4	2.3	4.1
핀란드	6.4	3.0
프랑스	2.6	3.2	3.2	4.5	6.2
독일	..	6.3	5.1	3.7	4.3
그리스	12.7	11.2	7.5	11.3	9.8
헝가리	11.1	8.6	7.8	5.8	5.6
아일랜드	..	4.3	4.5	4.6	4.7
이탈리아	15.9	14.1	10.3	10.9	11.4
일본	9.8	10.3	10.6	10.4	10.5
네덜란드	2.9	3.6	3.7	3.4	2.6
뉴질랜드	8.9
노르웨이	3.4
폴란드	4.9	4.0	2.6	2.1	3.7
포르투갈	9.7	9.2	6.8	10.6	7.7
슬로바키아	14.9	24.7	13.5	7.1	6.8
스페인	9.6	8.2	7.5	7.9	10.6
스웨덴	2.9	2.4	3.3	3.2	4.3
스위스	5.7	8.5	5.8	6.8	7.5
영국	..	7.9	8.9	9.0	10.3
미국	8.2	7.3	7.5	7.3	6.7



SS5.3. 젊은 여성 NEET족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다.

성별에 따른 구직자 또는 근로가능자 비율, 2006



출처: 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OECD, Paris (www.oecd.org/edu/EAG20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204735041>

정의와 측정

은퇴는 근로 중단 및 연금 수령과 관련이 있다. 실질 은퇴 연령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장기적 지표 없이는 직접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는 섹션간 데이터를 통한 간접적 비교에 의존해야 한다. 간접적 측정치는 특정 연령 이상의 사람이 설문조사 시점에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을 “은퇴자”로 간주한다. (평균 노동 활동 중단 연령). 순 은퇴 연령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을 하지 않는 고령 인구의 비율의 변화로 대체된다. 간접적 측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OECD 리뷰에 사용된다. 간접적 측정법은 평균 실질 은퇴 연령을 측정한다. 공식적 은퇴 연령은 특히 은퇴 연금이 확정 급부형일 경우, 설명하기가 복잡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OECD (2007)를 참조한다.

연령은 남성, 여성 모두 OECD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인 은퇴 연금 수급자격 연령은 65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은퇴 연령이 더 높거나 낮다(SS6.1 참조). 여성의 기대 수명이 더 높고 남성의 기여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공식 은퇴 연령은 여성(62.7세)이 남성(63.6)보다 낮았다.

은퇴 결정은 공식적 은퇴 연령에만 달린 것은 아니다. 신체적 건강, 노동 시장 환경, 은퇴 소득이 충분한지와 은퇴 소득에 대한 세제, 개인 저축, 가족 부양 의무, 배우자의 근로 여부, 직장에서의 고령자에 대한 태도 등이 은퇴 결정 시 고려하는 요소에 포함된다.

평균 실질 은퇴 연령은 공식적 은퇴 연령보다 낮다 (SS6.1). 예외도 있다. 일본, 한국, 멕시코의 경우, 평균 은퇴 연령이 공식적 은퇴 연령보다 5세 이상 많다. 멕시코 여성들은 공식 은퇴 연령보다 10년 이상 일하고, 멕시코 남성들은 8년 이상 일한다. 한국 남성들도 공식 은퇴 연령보다 10년 이상 일한다. 마찬가지로, 터키와 그리스의 남성, 여성은 모두 공식 은퇴 연령을 넘겨 몇 년 이상씩 일한다.

평균 실질 은퇴 연령의 나라별 격차는 공식적 은퇴 연

령의 나라별 격차보다 크다. 실질 은퇴 연령은 멕시코와 한국이 70세 또는 그 이상으로 가장 높다. 반면, 사람들이 50대 후반에 일을 그만두고 은퇴하는 헝가리, 벨기에, 슬로바키아 공화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경우는 실질 은퇴 연령이 가장 낮았다.

많은 국가에서 특히 여성의 경우 실질 은퇴 연령이 많아지고 있다(SS6.2). 실질 은퇴 연령은 지난 30년간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OECD 국가에서 큰 폭으로 감소해왔다. 기대 수명 증가, 노동 시장 호황, 고령 인구의 근로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사라지거나, 역전되고 있다. 공식 은퇴 연령을 상승시킨 정책적 변화도 일부 국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2-2000년, 2002-2007년 사이에 OECD 13개국에서 여성의 실질 은퇴 연령은 1년 이상 증가했고, 남성의 실질 은퇴 연령도 OECD 7개국에서 1년 이상 증가했다. 여성의 실질 은퇴 연령이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에는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등이 있다. 남성의 실질 은퇴 연령 증가 폭이 가장 큰 나라는 한국, 뉴질랜드, 스웨덴이다. 그러나 기대수명은 늘었으나 실질 은퇴 연령은 줄어든 국가도 있다(예: 여성의 경우 아이슬란드, 남성의 경우 덴마크) 이러한 패턴은 잠재적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실질 노동 활동 중단 연령과 기대 수명 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주요한 법적 장치인 법적 은퇴 연령과 실질 은퇴 연령도 여러 국가에서 강력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상관관계가 0.35에 불과함).

추가 자료

OECD (2007), Pensions at a Glance, OECD,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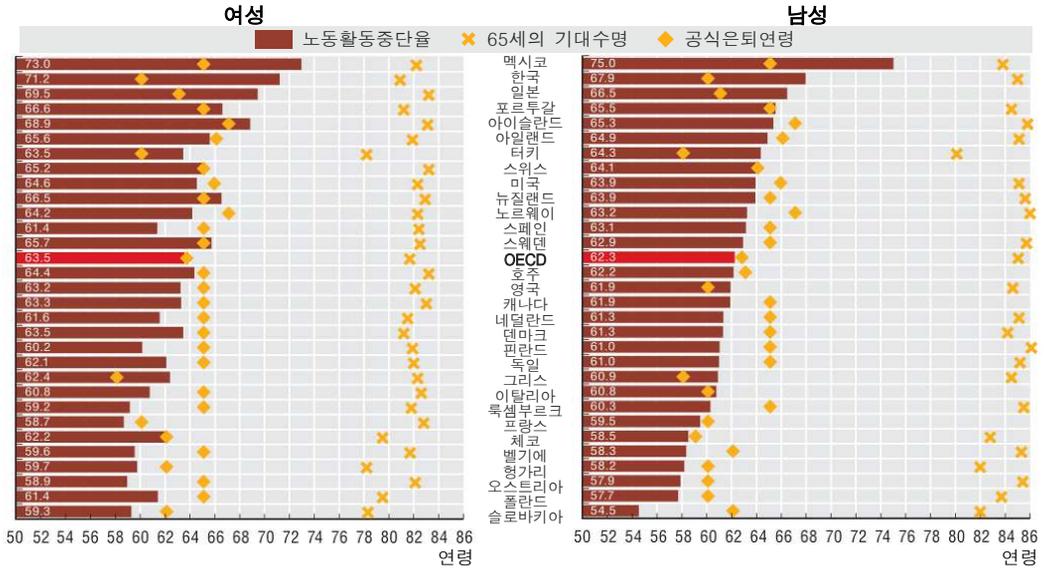
그림설명

그림 SS6.1, SS6.2: 평균 실질 은퇴 연령은 5년간 40세 또는 그 이상 근로자들의(5세 단위로 분류한 연령별 그룹) 노동 시장 참여율의 변화에서 파생됨. 기대 수명은 2005년 기대 수명과 2000-2005년 사이의 기대 수명 변화를 말함.

SS6.1. 노동 활동 중단 연령은 일반적으로 공식적 은퇴 연령보다 낮다.

노동 활동 중단을 대 공식 은퇴 연령,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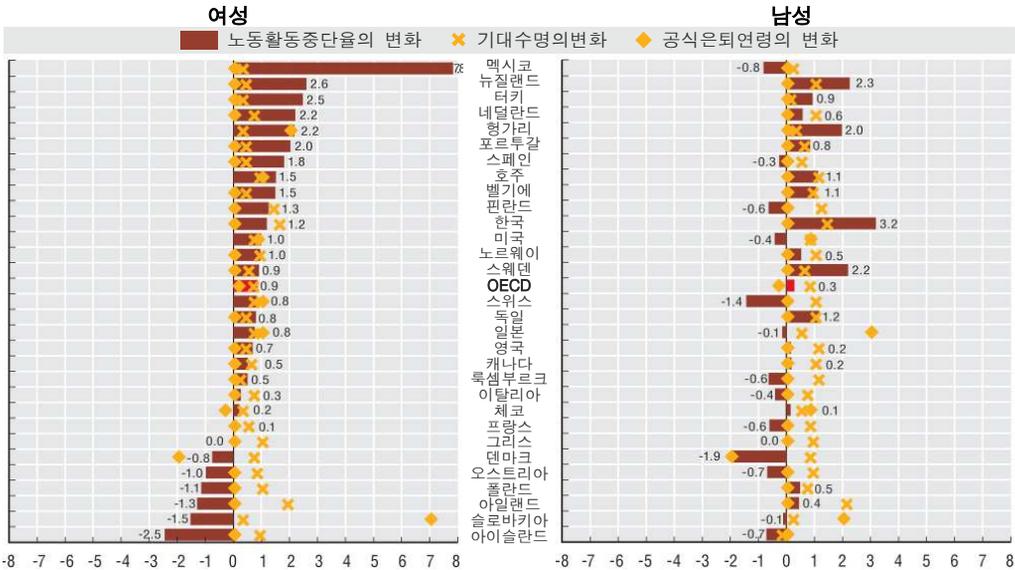
65세의 기대 수명, 2005



SS6.2. 공식 은퇴 연령의 변화 및 노동 활동 중단 연령 변화와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기대 수명

노동활동중단연령 및 공식은퇴연령, 2002-07

65세의 기대수명, 2000-05



출처: OECD estimates derived from the European and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222773834>

7. 교육비 지출

정의와 측정

국민순소득(NNI) 중 교육비 지출 비율은 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통화 자본의 전체 흐름과 관련하여 인적 자본(부모로서의 훈육 시간 투자 또는 현장 직무 학습이나 훈련은 제외)에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되었는지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지표는 교육 기관에 대한 공적, 사적 지출(공공 보조금 포함)을 모두 측정하며, 교육 기관에 지불되는 가족 지출비용도 측정한다. 지출 데이터는 학생 생활비 보조금, 학자금 대출 보조금, 그 외 직접적 개인 지출(예를 들어, 교과서나 통학 교통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 시설에 포함되는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에 지출한 돈도 포함하지 않는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국가별 비교는 구매력 평가 지수 환율과 국민순소득 측정치에 근거한다(GE1. 국민순소득의 경우 “정의와 측정”을 참조). 유념해야 할 것은 GDP가 아닌 NNI가 분모로서 사용됨으로써 교육비 지출 비중이 증가했고, OECD 한 눈에 보는 교육지표의 비교와 분석에서 일부 국가의 순위가 변동이 있었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국민순소득의 7%를 교육비로 지출한다(SS7.1). 이 7%중, 약 1 퍼센트 포인트는 개인적 지출이다. 총 비례적 지출 비용은 가변적인데, 아이슬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한국, 미국은 8%를 초과하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5.5%이하로 감소한다. 교육비 지출은 자녀 수에 영향을 받으며, 교육비 지출이 적은 3개 국가의 경우 OECD 기준으로 출산율이 낮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국가

는 핀란드,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이라는 점이다. 이머 두 나라 모두 PISA 최상위권 국가로, 총 지출을 매우 효과적으로 결합시키지만, 그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OECD 모든 국가에서 1995년과 2005년 사이 NNI 중 총 교육비 지출액은 완만하게 상승했다(SS7.2). 아이슬란드(NNI의 약 2 퍼센트 포인트), 영국과 멕시코(각 1퍼센트 포인트)의 경우 특히 상승폭이 컸다. 그러나 같은 기간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를 포함한 10개 국가에서는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감소했다.

6-15세 연령대의 누적 교육비 지출과 PISA 수학 점수 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SS7.3).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의 강도는 약한 편이다(상관관계는 0.47). 국민순소득에 근거해 볼 때, 가장 탁월한 성과를 보인 나라는 PISA 최상위를 기록한 두 나라인 한국과 핀란드이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역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국민순소득을 고려했을 때 교육 성과가 낮은 국가에는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미국이 포함된다. 그림 SS7.2에 6세 이하 아동의 교육비 지출은 나타나있지 않으나, 핀란드를 제외한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높은 편이나 예상보다 교육 성과는 좋지 않다. 또한, PISA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낸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조기 교육 지출은 매우 낮았다. 조기 교육비 지출 항목의 생략이 약한 상관관계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추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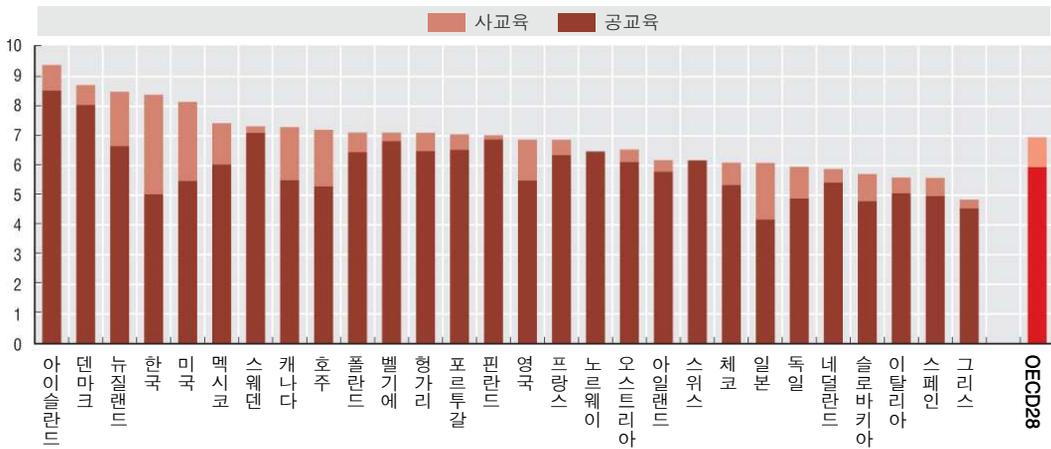
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OECD, Paris.

그림설명

그림 SS7.3: PISA: OECD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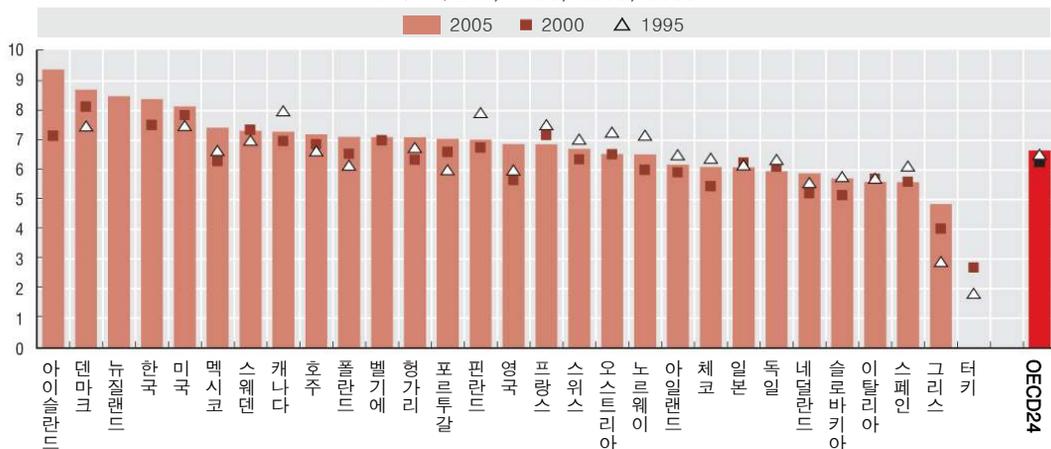
SS7.1. 국민순소득 중 교육비 지출 비중

단위: 퍼센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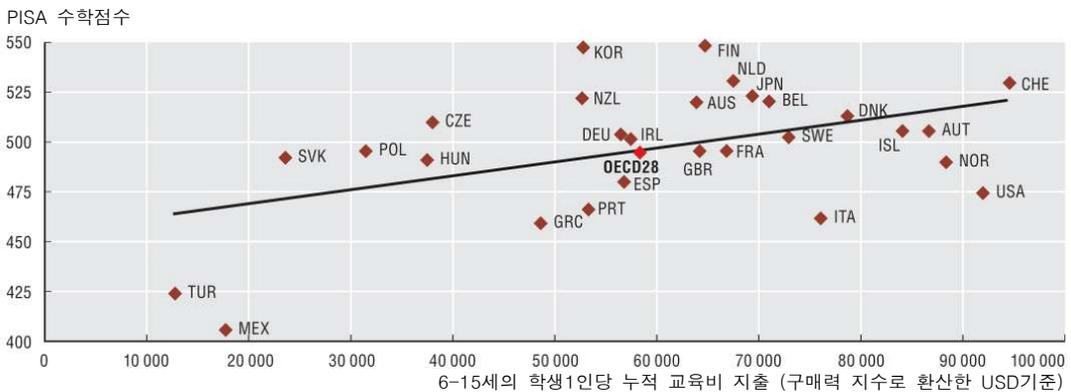


SS7.2. 국민순소득 중 총 교육비 지출 비중, 1995-2005

단위: 퍼센트, 1995, 2000, 2005



SS7.3. 누적 교육비 지출 대 PISA 수학점수



출처: 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OECD, Paris (www.oecd.org/edu/EAG20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244873353>

제6장

형평성 지수

1. 소득불평등
2. 빈곤
3. 아동빈곤
4. 최후수단의 적정성
5. 공공사회지출
6. 총사회지출

1. 소득불평등

정의와 측정

소득불평등의 측정은 가구 가처분소득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가처분소득은 직접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을 공제한 총가구소득이다. 정부 및 민간 주체가 가구에 제공하는 현물서비스와 소비세, 주택소유와 기타 부동산으로 인한 귀속소득은 총 가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구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구소득은 일반적 동등화지수가 0.5라고 가정하여 가구의 크기를 고려해 조정되었다. 여기 사용된 소득분배의 주요지표는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의 값은 “완전한 평등성”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함)의 경우 0에서 “완전한 불평등성” (모든 소득이 인구비율에 따라 분류됨)의 경우 1까지 분포한다. 소득 십분위를, 9번째 십분위의 상한선과 1번째 십분위의 상한선 간 비율이 사용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국가별 컨설턴트가 OECD에 제출한 것이다. 이 데이터는 일반적 방법론과 국가별 미시 데이터에 적용된 정의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국가별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주지만, 국가별 데이터는 적절히 표준화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데이터와 다르다.

OECD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소득불평등의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이었고,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와 터키였다(EQ1.1). 불평등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지니계수는 가장 낮은 국가의 지니계수의 두 배였다. P90/P10 십분위율은 높은 불일치를 보여준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소득 최상위 십분위가 최하위 십분위의 3배 이하이지만, 미국, 포르투갈, 터키에서는 6배 이상이고 멕시코에서는 8배 이상 높았다. EQ1.1에서 사용된 소득불평등의 두 가지 주요 척도간의 상관관계는 높다(0.95이상).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소득 수준비교보다는 소득분배의 변화가 더 관련성이 높다. 그림 EQ1.2는 각기 다른 세 기간 동안의 지니계수의 포인트 변화를 나타낸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EQ1.2의 오른쪽 패널) 전체 기간에 걸쳐 데이터가 제공된 24개 국가 중 19개 국

가에서 불평등성이 증가했다. 불평등성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핀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이다. 불평등성이 감소한 국가는 프랑스, 그리스, 터키, 아일랜드, 스페인(2000년 데이터만 제공됨)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 지니계수의 상승은 하위 50%의 평균 소득의 4%를 상위 50%로 분배한다는 가정과 동등하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불평등성의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많은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커졌고, 그 이후 소득불평등 패턴은 더욱 다양해졌다. EQ1.2의 가운데 및 왼쪽 패널은 기간에 따른 국가 간 소득불평등 동향에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10년 동안(왼쪽 패널), 소득불평등 확대의 주요 패턴은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및 기타 몇 개 국가들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그 이후 10년간은(중간 패널) 불평등성의 변화에 있어 더 다양한 패턴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존재했는데 특히 캐나다,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 이후 기간에는 멕시코와 터키에서 불평등 정도가 크게 낮아졌고, 호주,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에서도 소폭 감소했다.

추가자료

OECD (2008), Growing Unequal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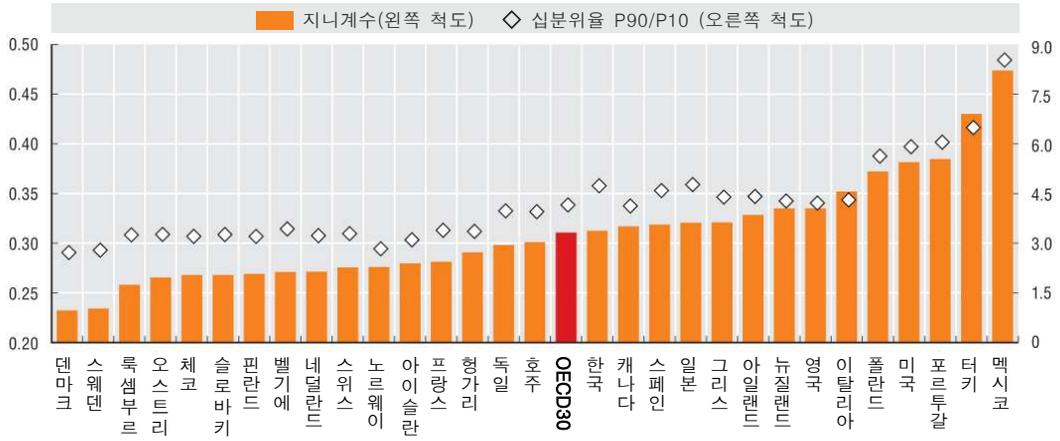
그림설명

그림 EQ1.1: 지니계수가 낮은 국가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다. 사용된 소득 개념은 0.5의 탄력성으로 가구규모를 고려하여 조정된 현금 가처분 가구소득이다.

그림 EQ1.2: 첫 번째 패널에서, 데이터는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독일서부의 199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변화를 나타낸다. (호주, 폴란드, 스위스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두 번째 패널에서 데이터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오스트리아, 체코, 벨기에,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의 변화를 나타낸다(EU-SILC에 근거한 2005년 데이터는 그 전기간 데이터와 비교가 어려워 보인다.) OECD-24는 전체 기간에 걸친 데이터의 단순 평균이다. (호주를 제외한 상위 모든 국가를 포함함) OECD-22에 멕시코와 터키는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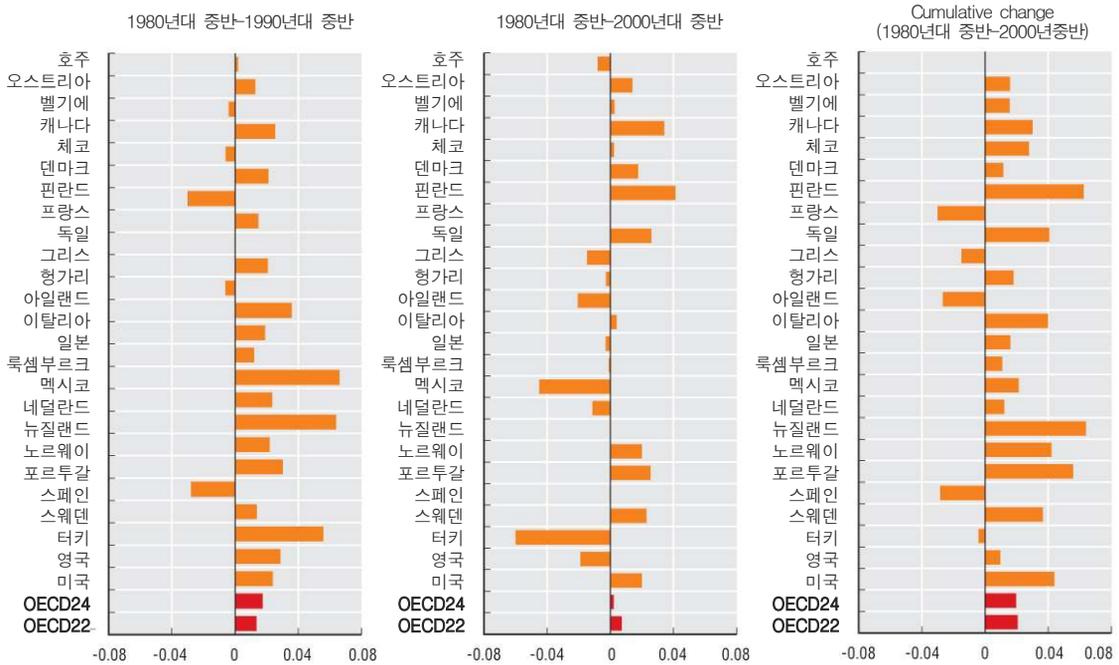
EQ1.1.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OECD의 소득불평등 수준

지니계수와 십분위를 (P90/P10), 2000년대 중반



EQ1.2.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소득불평등

지니계수의 퍼센트 포인트 변화



출처: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365522422>

2. 빈곤

정의와 측정

물질적 어려움을 피하는 것은 사회정책의 일차적 목표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적절한 삶의 수준을 헌법적 권리로 명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절한 삶의 수준”이라는 개념은 국가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다. 따라서 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된 빈곤측정의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불평등과 함께, 빈곤 측정의 시작점은 각 국의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가구원수 보정 가처분소득이다(EQ1. 소득불평등의 “정의와 측정” 참조) 가구원 보정 가구소득이 각 국의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인 개인은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상대적 소득기준의 적용은 부유한 국가일수록 빈곤의 기준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유한 국가의 높은 빈곤기준점은 빈곤 회피가 모든 국가에서 “통상적”이라고 간주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능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빈곤은 빈곤율과 빈곤격차의 측면에서 고려된다. 빈곤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낸다. 빈곤격차는 빈곤계층의 소득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비율을 측정한다. 빈곤격차는 빈곤선과 비교했을 때 소득 부족분의 합계 평균이다.

2000년대 중반 OECD 국가들의 빈곤율은 평균 11%였다(EQ2.1). 국가마다 빈곤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 한국, 아일랜드, 일본은 15%, 멕시코, 터키, 미국은 17-18%의 빈곤율을 기록한 반면, 덴마크, 스웨덴, 체코의 경우는 빈곤율이 6%이하였다. 중위소득의 40%에 설정된 기준에 근거한 OECD 국가들의 평균 빈곤율은 6% 수준으로 떨어진다.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빈곤율은 17%로 올라간다.

2000년대 중반 OECD 평균 빈곤격차는 29%이었다(EQ2.1). 빈곤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멕시코, 미국, 스위스로 약 38%를 기록했고, 반대로 빈곤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핀란드, 네덜란

드, 벨기에로 약 20%를 상회한다.

빈곤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빈곤격차도 컸다. 빈곤율과 빈곤격차는 0.60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동향 내에서 일부 눈에 띄는 예외가 있다. 아이슬란드, 스위스처럼 빈곤율이 낮은 일부 국가의 빈곤격차가 30% 혹은 그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빈곤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호주,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빈곤격차가 평균 미만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전체적으로 빈곤율이 증가했다(EQ2.2). 8개 국가에서 빈곤율이 감소한 반면 16개 국가에서는 증가했다. 빈곤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국가는 벨기에와 멕시코이며, 그 외 국가들에서도 1퍼센트 포인트 이하로 소폭 감소했다. 4에서 5 퍼센트 포인트 사이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에는 빈곤율 증가의 국가별 차이에 뚜렷한 패턴이 없다. 각 하위기간마다 빈곤율이 0.6 포인트씩 증가했다.

추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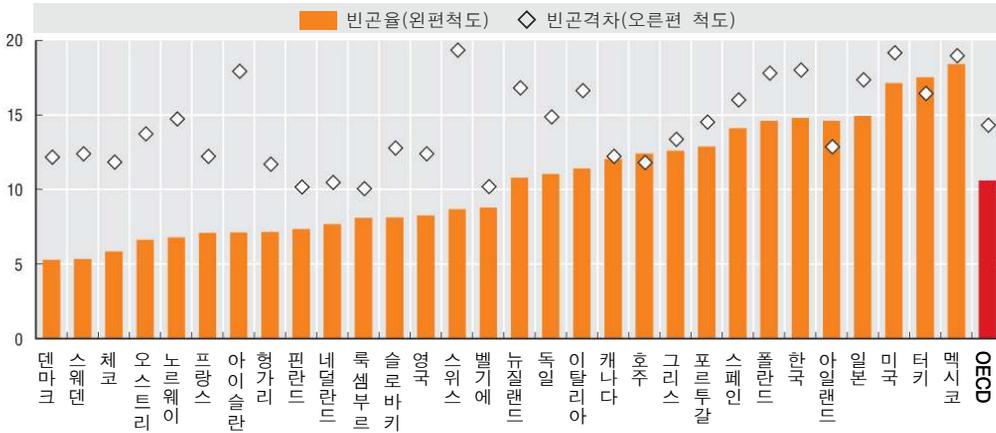
OECD (2008), Growing Unequal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그림설명

그림 EQ2.2: 왼쪽 그림의 데이터는 199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의 빈곤인구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호주, 스위스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중간 그림의 데이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약 2000년까지 호주,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빈곤인구수를 표시한 것이다(EU-SILC에 근거한 2005년 데이터는 2005년 이전 데이터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스위스의 빈곤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OECD24는 전체 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제공한 OECD 국가들의 단순 평균을 말한다(호주와 스위스를 제외한 상기 모든 국가들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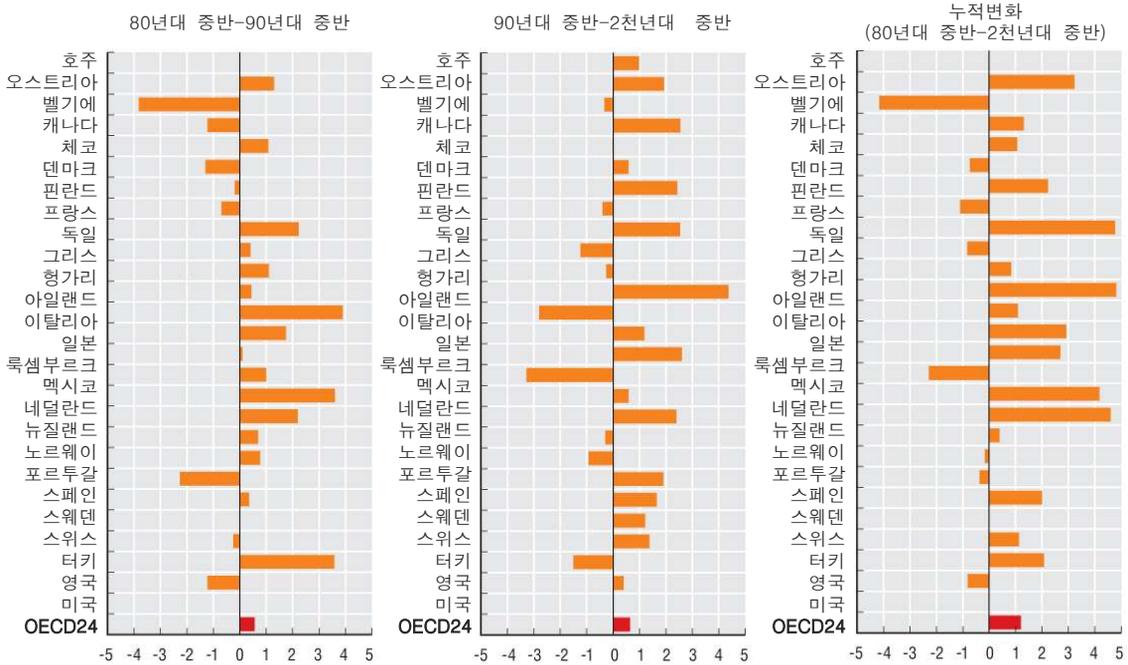
EQ2.1. 빈곤율이 높은 OECD 국가일수록 빈곤격차가 큰 경향이 있다.

2000년대 중반의 빈곤율과 빈곤격차, 빈곤 기준점 50%



EQ2.2.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일반적으로 빈곤율이 상승했다.

빈곤 기준점이 중위소득의 50%일 때 기간별 소득빈곤율의 퍼센트 포인트 변화



출처: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3. 아동빈곤

정의와 측정

특정 국가에서 가구원 보정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아동들은 빈곤아동으로 분류된다(EQ1. 소득불평등의 “정의와 측정” 참조).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들은 다른 가구원들이 버는 소득을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의 기본적 지표는 빈곤율로 가구원 보정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소득 중 아동의 몫을 측정한 것이다.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의 가구원들의 빈곤율도 나타나있다(성인 가구원을 포함함).

다른 연령대의 빈곤율보다 아동빈곤의 통계는 동등화지수 탄력성 값에 민감하다. 여기 제시된 통계는 부모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일부 학생(18세 이하)도 빈곤아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는 가구를 소득이 합쳐지고 공유되는 기본 단위로 간주하며, 가구원 간의 생물학적, 사회적 관계는 나타내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아동이 있는 독신 성인”은 한 부모 외에 기타 가구구성상태(예를 들어 조카와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있는 부부”는 다른 성인과 주거를 공유하는 한부모가정을 포함할 수 있다.

아동빈곤은 OECD 지역에서 특별한 우려사항이다. 아동은 자신이 속한 가족의 물질적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또한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함에 있어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OECD국가들의 평균 아동빈곤율은 12%였다(EQ3.1, 왼쪽 패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아동빈곤율이 5% 이하였으며,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는 8% 이하였다. 미국, 폴란드, 멕시코, 터키의 경우, 아동빈곤율이 20%를 상회했다.

일반적으로 아동빈곤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보다 높다.

아동빈곤율이 전체 인구 빈곤율보다 낮은 국가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이 포함된다. 반면, 캐나다, 체코,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미국은 아동빈곤율이 전체 인구 빈곤율보다 3 퍼센트포인트 이상 높았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아동빈곤율은 상승했다. 일부 OECD 국가에서는 아동빈곤 해소를 목표로 제시하고 빈곤아동 감소를 위한 정책들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빈곤율이 소폭 감소했다. 터키, 독일, 룩셈부르크,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아동빈곤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멕시코,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EQ3.1, 오른쪽 패널).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과 근로소득이 없는 가정의 아동들의 빈곤율이 더 높았다(EQ3.2). 한부모 가정과 아동빈곤율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근로소득 부족에 기인한다. 근로소득이 부족할 경우, 아이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OECD 평균 빈곤율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빈곤율과 비슷하다. 가족 내의 아동수가 증가할수록 빈곤율도 약간 상승한다.

추가자료

OECD (2008), Growing Unequal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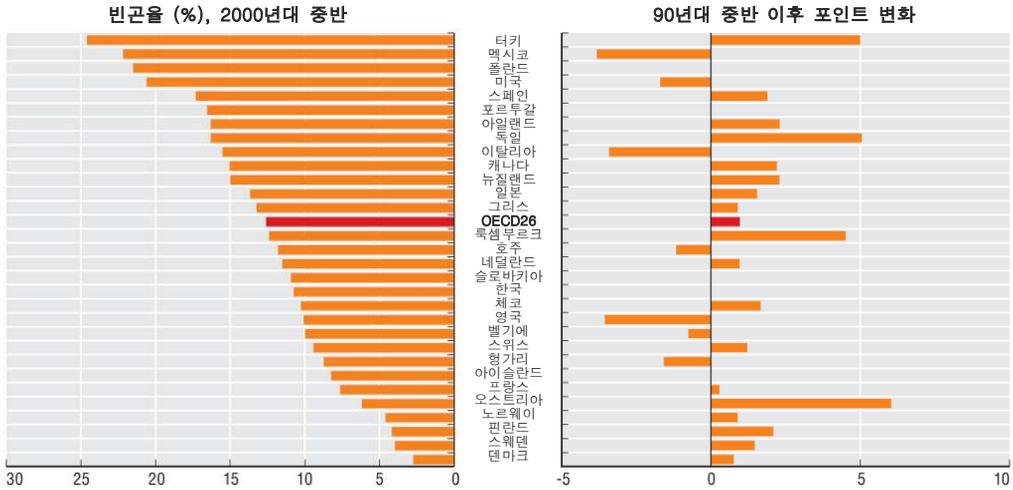
그림과 표 설명

그림EQ3.1: 2000년대 중반의 빈곤율에 따라 국가들은 내림차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정렬되어 있다.

표 EQ3.2: 1995년부터 2000까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변화 및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스위스의 변화를 나타냄. 프랑스의 경우, 현황은 EU-SILC를 말하며, 변화는 Enquête revenus fiscaux (ERF)를 나타냄.

EQ3.1. O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아동빈곤율은 소폭 상승했다.

2빈곤기준점이 중위소득 50%일 때 퍼센트로 표시한 빈곤율 및 빈곤율의 퍼센트 포인트 변화



EQ3.2. 최하부모가정의 아동과 근로소득이 없는 가정의 아동의 빈곤율이 높다

빈곤기준점이 중위소득 50%일 때 퍼센트로 표시한 빈곤율 및 빈곤율의 퍼센트 포인트 변화

	아동빈곤율		아이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과 노동연령대 인구의 수									
	200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이후 변화	합계		독신		부부					
			2000년대 중반현황	1995년 이후 변화	비근로	근로	Level, mid-2000s					
					근로자 없음	근로자 1인	근로자 2인이상	1명	2명	3명이상		
호주	12	-1.2	10	-1.0	68	6	51	8	1	9	10	11
오스트리아	6	6.0	6	6.1	51	11	36	4	3	6	5	6
벨기에	10	-0.8	9	0.1	43	10	36	11	3	7	9	11
캐나다	15	2.2	13	1.6	89	32	81	22	4	11	13	18
체코	10	1.7	8	1.4	71	10	43	9	1	8	6	[..]
덴마크	3	0.8	2	0.7	20	4	21	5	0	2	2	4
핀란드	4	2.1	4	1.9	46	6	23	9	1	5	3	3
프랑스	8	0.3	7	-0.2	46	12	48	12	2	6	7	10
독일	16	5.1	13	4.2	56	26	47	6	1	13	13	14
그리스	13	0.9	12	0.9	84	18	39	22	4	8	13	19
헝가리	9	-1.6	8	-1.1	44	16	22	6	3	5	6	14
아이슬란드	8	..	7	..	23	17	51	29	4	7	6	10
아일랜드	16	2.3	14	..	75	24	55	16	2	12	12	19
이탈리아	16	-3.4	14	-3.1	[..]	16	78	24	1
일본	14	1.6	12	1.2	60	58	50	11	10
한국	11	..	10	..	32	25	59	11	4
룩셈부르크	12	4.5	11	3.8	69	38	27	16	5	7	13	14
멕시코	22	-3.8	19	-2.4	30	34	53	27	11	11	16	26
네덜란드	12	1.0	9	1.2	62	27	65	12	2
뉴질랜드	15	2.3	13	1.5	48	30	47	21	3
노르웨이	5	0.9	4	0.6	31	5	29	4	0	4	2	6
폴란드	22	..	19	..	75	26	51	28	6	15	18	31
포르투갈	17	0.0	14	0.4	[..]	26	53	34	5	10	17	[..]
슬로바키아	11	..	10	..	66	24	66	18	2
스페인	17	1.9	15	1.1	78	32	71	23	5	10	16	29
스웨덴	4	1.5	4	1.5	18	6	36	14	1	4	3	3
스위스	9	1.2	6	1.3	22	8
터키	25	5.0	20	3.6	44	32	28	19	20
영국	10	-3.6	9	-3.7	39	7	36	9	1	4	6	20
미국	21	-1.7	18	-1.1	92	36	82	27	6	14	15	26
OECD	12	1.0	11	0.8	54	21	48	16	4	8	10	15

출처: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407525853>

4. 최후수단의적정성

정의와 측정

세후 근로소득과 비교했을 때, 급여 수혜자의 순소득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측정한다. 빈곤가정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득분할점과 비교했을 때, 급여수혜자의 순소득은 수당제도가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역량에 대해 알려준다.

각기 다른 두 기간(2001년과 2005년, 후자는 확산되는 불평등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선택됨)에 대한 아래의 지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한부모 가정의 소득빈곤 측정(중위 가구소득의 40, 50, 60%)을 위해 사용된 분할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OECD 조세-급여 모형을 적용하였다. 두 경우의 한부모 가정 모두 4세와 6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첫 번째 경우,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고, 노동시장 소득도 얻지 못한다. 따라서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은 가족과 관련된 현금급여와 “최종”의 공공부조 급여이다. 이러한 가족은 과세연도 내내 급여에 의존한다. 두 번째 경우는 동일한 가족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으나, 가족 내에 최저임금의 정규직 일자리가 있는 부모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모든 소득측정치는 세금을 공제한 것이나, 육아와 같은 업무관련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001년, 2005년 모두의 평균가구소득은 확산되는 불평등에서 발췌한 것이다. OECD 발간물인 수당과 임금(2007)은 보다 상세한 방법론적 정보를 제공한다.

중종 최종 급여는 OECD 국가간 빈곤율 비교를 위한 기준의 기준보다 낮게 설정된다(EQ4.1). 모든 OECD 국가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수당수혜자는 상당한 빈곤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2005년 26개 OECD 국가 중 11개국이 직업이 없는 한부모가 50%의 빈곤기준점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2001년, 9개 국가에서 직업이 없는 한부모는 50%의 빈곤기준점 또는 그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2001-2005년 사이 한부모 가정의 빈곤 해소에 대한 공공부조 및 관련 복지급여의 총량의 효율성은 일반적

으로 소폭 상승했다.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 감소와 관련된 효율성의 하락은 명목상 수당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평균 가구소득이 급여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만약, 복지 급여가 국가마다 다른 사이클로 낮은 시간적 빈도로 조정된 것이라면 일부 국가의 효율성 변화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급여를 받다가 일을 시작한 한부모의 경우, 저임금의 정규직 일자리가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 그림 EQ4.2는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영국에서 최저임금의 정규직 일자리가 한부모 가정을 평균소득의 50%로 정의되는 빈곤에서 구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부모 가정의 빈곤해소에 있어 최저임금의 효율성이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는 폴란드, 아일랜드, 헝가리였고 효율성이 가장 많이 떨어진 국가는 호주, 영국, 뉴질랜드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당 패턴과 더불어 변동성은 최저수당 조정의 시기를 반영할 수 있다.

적절한 사회안전망과 강한 근로 인센티브의 결합은 세심하게 균형 잡힌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그림 EQ4.3는 호주, 아일랜드, 영국에서 한부모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을 제공하고 동시에 최종 급여 수혜자를 최저임금의 정규직 근로자로 이동시키기 위한 강력한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함을 나타낸다.

추가자료

- OECD (2007), Benefits and Wages: OECD Indicators, OECD, Paris.
- OECD (2008), Growing Unequal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그림설명

그림EQ4.1: 이탈리아와 터키는 한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급여가 없다. 음영이 있는 부분은 평균 가구소득의 40, 50, 60%로 정의되는 서로 다른 빈곤기준점 사이의 부분을 나타낸다. 순소득은 주거와 관련된 수당을 포함한다. 각 막대의 아랫부분에 있는 수치는 2005년 수치이다.

그림 EQ4.2: EQ4.1에 있는 국가들은 EQ4.2에서 제외된 국가들로 법정 최저임금이 없다. 각 막대의 아랫부분에 표시된 수치는 2005년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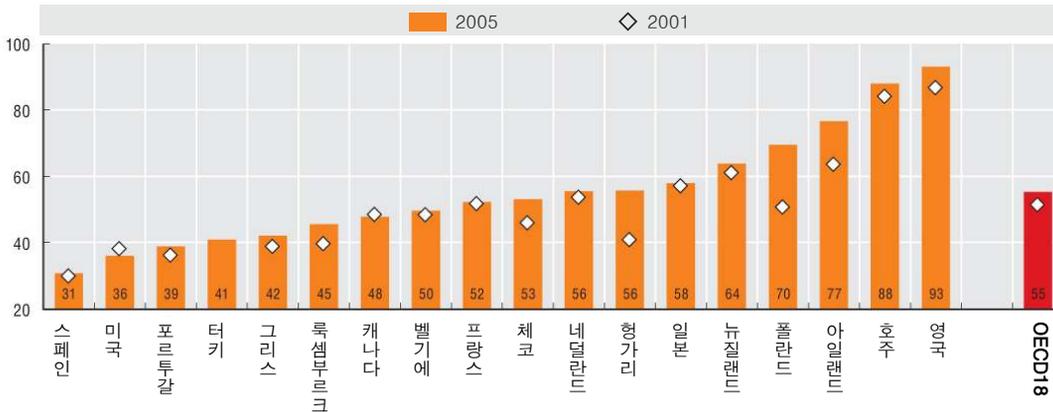
EQ4.1. 일부 국가에서 시장소득의 없는 한부모 가정은 빈곤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사회부조에만 의존하는 자녀가 2명 있는 한부모가정의 순소득/평균 등가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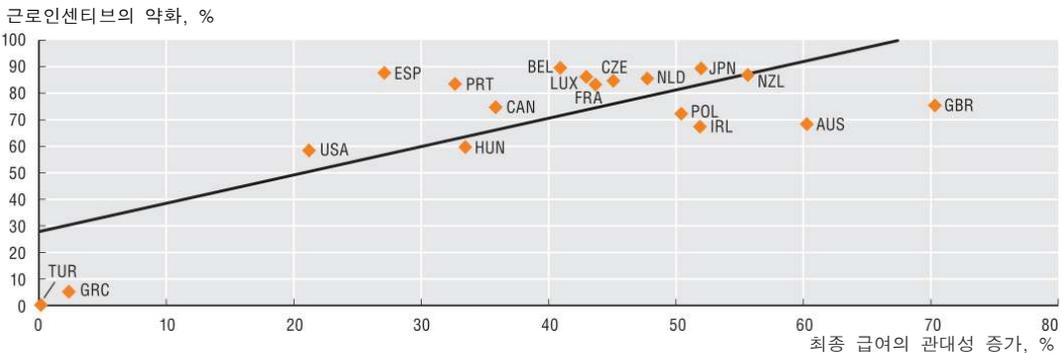
EQ4.2.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이더라도 정규직 일자리를 지원할 경우 빈곤율이 감소된다

최저임금의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2명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순소득/평균 등가가구소득



EQ4.3. 일부 국가는 강력한 근로장려제도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적절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최저임금의 정규직 근로소득과 평균소득과 비교한 최후수단의 퍼센트 포인트 상 차이, 두 명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출처: OECD tax-benefit model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413205665>

정의와 측정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다양한 사람 및 기관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지원 중 상당부분이 (현금급여 및 세금혜택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상품과 서비스의 “현물” 제공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지출의 형태를 띤다. 사회지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수당은 저소득, 고령, 실업, 장애와 같은 문제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지출은 일반적 정부(예: 중앙 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관)가 금전적 흐름을 통제할 때 공적 지출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기금으로 조달된 질병수당은 “공적”인 것으로 간주되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직접 제공한 질병수당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별 비교를 위해, 여기서 사용된 사회지출지표는 순국민소득에서 공공사회지출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지표에서 보여지는 지출흐름은 수당에 부과된 직, 간접세 공제 전에 기록된 것이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금지출이 추가되기 전에 기록된 것이다 (“총지출”). 분권화가 활성화된 국가나 연방국가의 경우 하위단계의 정부에 의한 지출은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다.

2005년, 30개 OECD 국가의 총 공공사회지출은 NNI의 24%이었다(EQ5.1). 지출수준의 국가별 차이는 매우 크다. 멕시코와 한국은 NNI의 8%를 공공사회지출 비용으로 지출한 반면, 스웨덴은 NNI의 26% 이상을 지출했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가 근소한 차이로 스웨덴을 뒤따르고 있다. 현금이전의 경우, 상기 3개국 스웨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다. 상당수 국가들이 OECD 평균 바로 위 또는 바로 아래에 상대적으로 가깝게 밀집되어 있다.

25개 국가에서는 현금수당이 현물서비스보다 많았다. 폴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경우,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를 NNI의 10 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반면, 아이슬란드,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현물급여가 지배적

으로 현금급여보다 최소한 NNI의 3 퍼센트 포인트 많았다.

공공사회지출 비용이 가장 많은 3개 카테고리는 연금(평균 NNI의 9%), 보건(7%), 노동가능연령인구에 대한 소득이전(5%)이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에서는 연금지출이 NNI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에서는 5% 미만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총 공공지출이 5%를 초과하는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뿐이다.

지난 세대에 NNI 중 공공 사회지출 비율은 증가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모든 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EQ5.2). 전반적인 증가율은 평균 5 퍼센트 포인트이다. 이 중 대부분은 1980년부터 1992년까지 기간 동안 상승한 것이다. 그 후에는 뚜렷한 시대적 동향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그림EQ5. 2의 왼쪽 패널은 공공 사회지출이 높은 일부 국가의 변화를 나타내고 오른쪽 패널은 공공 사회지출이 낮은 일부 국가의 변화를 나타낸다. 1992년 이후 나타난 공공 사회지출 비율의 안정세는 1992년 이후 사회지출비용의 대폭 감소와 더불어 사회지출비용이 높은 국가에서 두드러졌는데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한편, 사회지출이 낮은 국가들은 이 기간 동안 꾸준한 지출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OECD 국가들 간 지출 경향의 동일성, 최소한 NNI 대비 사회지출비용의 유사성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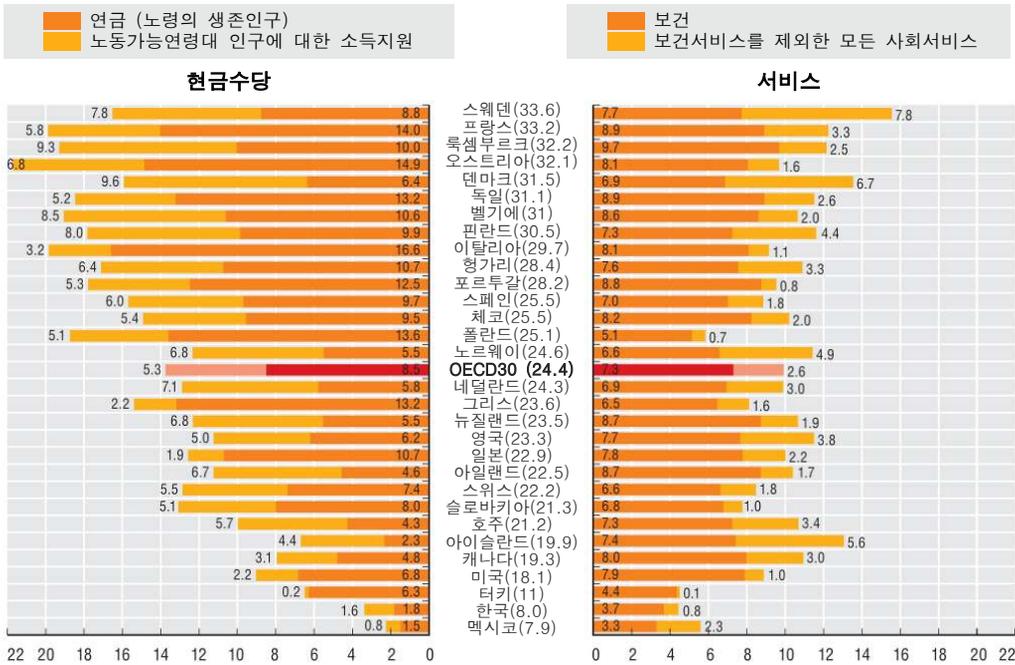
그림설명

그림 EQ5.1: 국가들은 사회지출비용이 NNI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현금/서비스로 분류될 수 없다. 그러나 총사회지출에 포함된다. 2004년 포르투갈 자료

그림 EQ5.2: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정보를 제공한 국가는 23개국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멕시코, 폴란드는 1990년 이후 자료만 제공 가능하다. OECD-30은 헝가리(1999년 이후 자료)와 슬로바키아공화국(1995년 이후 자료)를 제외한 OECD 국가의 비가중 평균이다. 포르투갈의 2005년 데이터는 2004년 데이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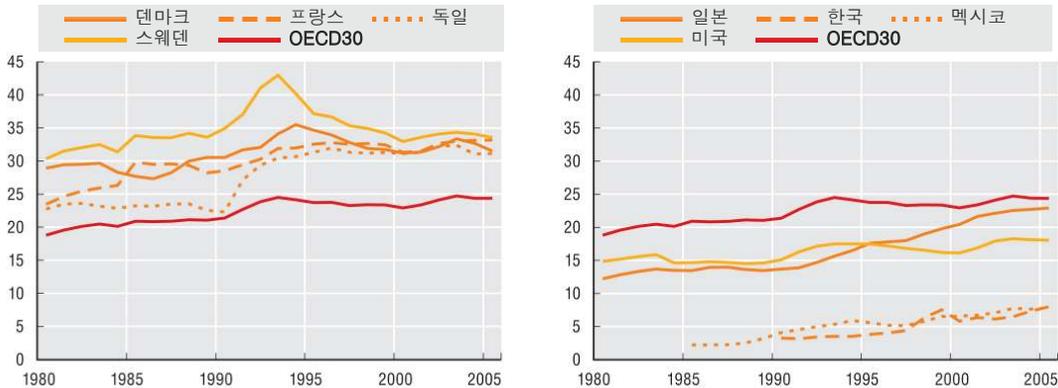
EQ5.1. OECD 국가들에서 공공사회지출은 평균 NNI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포괄적 사회정책분야에서의 공공사회지출, NNI 대비 비율, 2005



EQ5.2. 증가추세에 있는 NNI대 공공사회지출 비율

일부 국가의 공공사회지출, 1980-2005, NNI 대비 비율



출처: OECD (2008),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5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420773523>

정의와 측정

OECD 각국이 사회지원에 사용하는 자원의 총량의 포괄적 산정은 공공, 민간 사회지출 및 세계가 실제로 제공되는 지원의 양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모두 계산해야 한다. 세계가 세전 총 사회지출비용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급여소득의 직접세와 급여수혜자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간접세를 통한 정부환수금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금혜택(예: 아동세금수당)을 통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금혜택은 총 사회지출이 총 지출을 초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공적, 사적 자원에서의 세후 순사회지출은 사회적 목표 달성에 투입된 자원을 더 잘 나타내는 지표이다.

행정 데이터가 자주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지출에 대한 세제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시데이터와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발췌된 통계가 필요하다. 또한 사적 사회지출의 중앙기록은 항상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사회지출 데이터에 비해 오류가 많은 경향이 있다(EQ5참조).

2005년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총 사회지출의 13%를 세금으로 환수했다(EQ6.1). 그러나 순 세금으로 환수한 금액에는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 지출에 따른 국가별 순위는 순 지출순위와는 많이 다를 수 있다. 일부 OECD 국가에서 총사회지출에 대한 세금납부와 세제혜택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패턴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수당소득의 직접세를 통한 총사회지출의 환수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노르딕 복지국가로, 총지출의 5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정부채원으로 환수되고

있다. 둘째, 멕시코, 미국, 한국의 순 공공사회지출은 총지출보다 많았다(캐나다의 경우, 순 공공사회지출과 총지출이 동일했다). 사실, 멕시코의 총 공공사회지출 잉여분은 3개 노르딕 국가의 총사회지출 부족분과 유사한 비율의 절대적 금액만큼 비슷하다

OECD 26개국에서 순사회지출비용은 평균적으로 NNI의 25%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9%, 독일은 33%, 프랑스는 35%였다. 총지출이 낮은 국가는 최하위계층에 대한 세금혜택이 높았고, 총지출이 높은 노르딕 국가는 상당한 액수를 세금을 통해 환수했다. 따라서 공공, 민간 사회수당과 세계의 혜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사회지출비용 비율의 국가별 차이를 크게 감소시켜준다. 그러나 이는 누가 어떤 수당을 받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나타내지 않는 단순한 국가별 평균이기 때문에 보다 비슷한 수준의 국가별 순사회지출은 세금과 수당체도를 통해 이루어진 재분배의 수준도 유사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간 지출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지출비용은 NNI의 28%이다(EQ6.2). 민간 지출을 포함할 경우 NNI 대비 비율은 평균 3 퍼센트 포인트 상승한다. 사적지출을 포함할 경우, 순위가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는 미국인데 미국은 공공사회지출에 따른 국가별 순위에서는 최하위에서 3번째이지만, 사적 지출을 포함하면 NNI의 31%로 OECD 평균을 넘는다. 그 이유는 10퍼센트 포인트의 사적 지출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림과 표 설명

표 EQ6.1: - Zero: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음.

그림 EQ6.2: 국가들은 총 사회지출비용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간접세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사회지출은 시장가격이 아닌 요소비용으로 NNI와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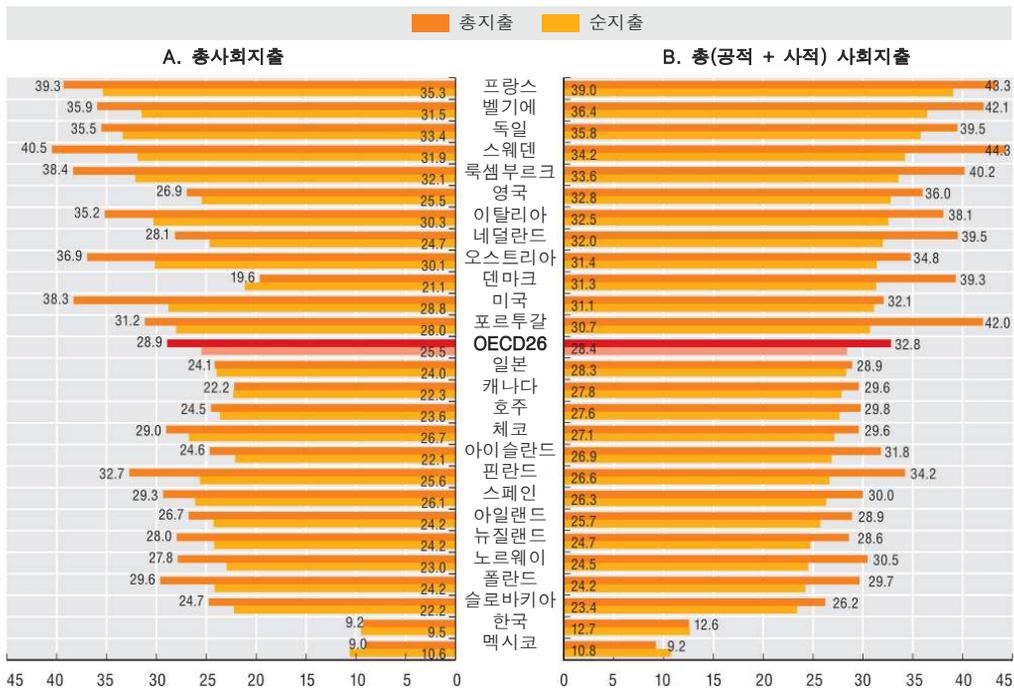
EQ6.1. 총 지출에서 공공사회지출까지

요소비용 NNI 중 퍼센티지, 2005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OECD26
총사회지출	24.5	36.9	35.9	22.2	29.0	38.3	32.7	39.3	35.5	24.6	26.7	35.2	24.1	9.2	38.4	9.0	28.1	28.0	27.8	29.6	33.5	24.7	29.3	40.5	26.9	19.6	28.8
-직접세와 수당소득에 대한 사회부조	0.3	3.3	1.9	0.5	0.0	5.7	3.5	1.9	1.8	1.0	0.3	2.7	0.3	0.0	1.3	-	3.1	1.9	2.3	2.2	1.1	-	1.6	5.5	0.3	0.6	1.8
-수당수혜자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	1.1	3.6	3.2	1.0	3.0	3.9	3.6	3.3	2.6	1.6	2.9	2.6	0.8	0.5	4.9	0.2	2.2	2.0	2.7	3.4	3.3	2.6	2.2	3.2	1.7	0.4	2.4
+비연금 사회복지정책지출에 대한 세금혜택	0.5	0.1	0.6	1.5	0.7	0.0	-	1.3	2.3	-	0.6	0.3	1.0	0.7	0.0	1.8	1.0	0.1	0.1	0.1	0.1	0.6	-	0.5	2.5	0.8	
= 순 공적 사회지출공공사회지출	23.6	30.1	31.5	22.3	26.7	28.8	25.6	35.3	33.4	22.1	24.2	30.3	24.0	9.5	32.1	10.6	23.8	24.2	23.0	24.2	30.4	22.2	26.1	31.9	25.5	21.1	25.5
비망항목																											
연금에 대한 세금혜택	2.8	0.1	0.2	2.3	0.2	..	0.2	0.0	1.2	1.5	2.2	0.0	0.8	0.1	0.8	0.3	0.1	0.2	0.4	0.0	1.6	1.0	..

EQ6.2. 공적지출에서부터 총 순사회지출까지

요소비용 NNI 중 퍼센티지, 2005



출처: OECD (2008),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5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438273480>

제7장

보건지표

1. 기대수명
2. 주관적 건강인식
3. 영아보건
4. 비만
5. 신장
6. 정신건강
7. 장기요양 수혜자
8. 보건 의료비 지출

1. 기대수명

정의와 측정

기대 수명은 가장 일반적이고 잘 알려진 건강 상태 측정지표이다. 기대 수명은 한 사람이 특정 연도에 특정 국가의 특정 연령대 사망률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이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연수로 정의된다. 미래의 연령대별 사망률 감소로 인한 효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대수명을 계산한다. 방법이 다를 경우 국가의 기대수명 측정치도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적 차이가 보고된 측정치의 정확한 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출생 시 기대 수명은 현저히 증가했다. 1960년부터 OECD국가OECD 국가들의 여성 평균 출생 시 기대 수명은 10.9세 증가하여 2006년 81.7세에 도달했다. 남성의 경우, 출생 시 기대 수명이 10.2세 증가해 76.0세였다(HE1.1). 2006년, 여성의 출생 시 기대 수명은 일본(85.8세)이 가장 높았고,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남성의 출생 시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79.4세)였고, 스위스, 일본, 호주, 스웨덴이 그 다음이었다.

기대 수명의 증가는 국가별 차이의 대폭 감소를 동반한다. 한국과 터키에서는 1960년에서 2006년 사이 출생 시 여성과 남성의 기대 수명이 각각 26.7세와 23.3세씩 증가한 반면 멕시코에서는 기대 수명이 18세 증가했다. 이들 국가의 기대 수명 격차 해소는 각 국의 영아 사망률 격차가 현저히 줄었음을 반영한다.

기대 수명 증가가 최고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일본 여성의 출생 시 기대 수명 증가율은 격차 해소 기간 이후 절반으로 줄었으나 계속해서 연간 3%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대 수명의 성별 차는 소폭 확대되었다. 1960년 이후

여성의 출생 시 기대 수명 증가 폭이 남성의 증가 폭보다 커서, OECD 평균 기대 수명의 성별 차는 1960년 5.0년에서 2006년 5.7세로 늘어났다. 그러나 기간별로 동향의 차이가 존재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기대 수명의 성별 차가 크게 증가했으나(1980년 평균 6.7세 증가로 최고점을 기록) 지난 25년간 그 격차는 크게 줄었다. 이러한 격차 해소는 부분적으로 남녀간 위험 요소 행동(예: 흡연)의 확산 정도의 차이가 줄고, 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한 남성 사망률이 감소했음을 반영한다.

고령자들의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달, 특히 심혈관계 질병 치료의 발달에 힘입어 고령자들의 기대 수명이 크게 증가했다. 2006년, 평균적으로 65세 여성은 20.1년 정도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960년에 비해 5.3년이 늘어난 것이다. 동일한 연령의 남성들은 16.7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60년에 비해 4.0년 늘어난 것이다. (HE1.2). 고령자 장수의 성별 차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부 OECD 국가에서 감소해 왔고,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전반적인 수명 증가는 삶의 수준 향상, 영양 상태 개선, 흡연, 음주율의 감소, 교육 수준 향상 및 질 높은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기인한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기대 수명의 증가폭은 작다(OECD, 2004).

추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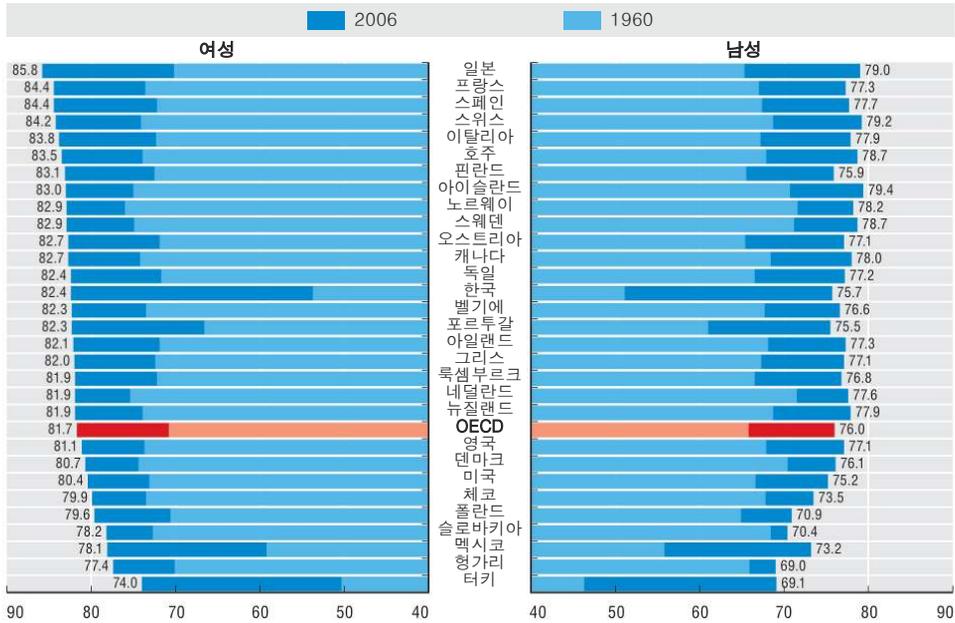
OECD (2004), Towards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 OECD, Paris.

그림설명

그림 HE1.2: 2005년 캐나다, 영국, 미국자료, 2004년 이탈리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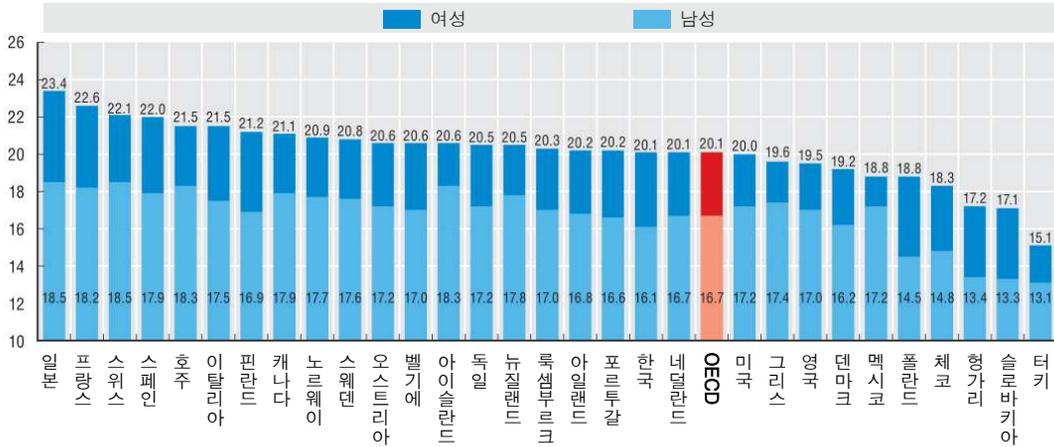
HE1.1. OECD 국가의 출생 시 기대 수명이 크게 증가했다

남성, 여성의 출생 시 기대 수명 증가, 1960년과 2006년



HE1.2. 최근 폭으로 증가한 고령자의 기대 수명

65세 기준에서 기대여명, 남성과 여성, 2006년



출처: OECD (2008), OECD Health Data 2008, CD-Rom, OECD, Paris (www.oecd.org/health/health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470572014>

2. 주관적 건강인식

정의와 측정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귀하의 전반적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포함한 보건 인터뷰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응답자들은 이 질문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중에서 답을 선택한다. 질문의 포괄적이고 주관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건강 인식 지표는 사람들의 향후 의료 시설 사용 및 사망을 예상하는 좋은 선행지표가 되고 있다 (Miilunpalo 외, 1997).

두 가지 이유로 주관적 건강 인식 상태의 국가별 비교를 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는 “실제” 건강 상태와 별개로 문화적 배경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주관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질문과 응답의 카테고리가 다르다. 특히,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사용되는 응답 척도는 “매우 탁월함, 탁월함, 좋음, 보통, 나쁨”의 5개 응답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긍정적인 면으로 편향되어 있다. 보고된 자료는 상기 3개의 긍정적 응답 카테고리 (“매우 탁월함”, “탁월함”, “좋음”) 중 하나를 선택한 응답자들을 말한다. 반면,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이라는 응답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응답 척도는 대칭적이다. 이들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는 첫 번째 두 개의 카테고리 (“매우 좋음”과 “좋음”)를 선택한 응답자들만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OECD 전체 국가 중 절반에서, 성인 인구의 75% 이상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 또는 “매우 좋다” 탁월하다고 평가했다(HE2.1).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는 자신의 건강이 “좋다” 또는 “매우 좋다”고 평가한 성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3개국으로 성인 인구 10명 중 9명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좋은 결과는 가상적인 데이터 일수도 있다. (위의 “정의와 측정” 참조). 멕시코, 스페인, 핀란드에서 성인 인구의 약 3분의 2가 자신의 건강을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평가했다. 측정 기준의 제일 하단에 있는 슬로바키아 공화국, 일본, 포르투갈, 헝가리, 한국의 성인인구 중 절반이 자신의 건강을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평가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스스로 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건강상태가 여성만큼 좋거나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HE2.2). 당연히, 사람들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나이가 들에 따라 감소했다. 많은 국가에서, 45세 이후 자신들의 건강을 긍정적 평가가 특히 많이 감소했고, 65세 이후에 더 감소했다. 모든 OECD 국가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또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건강 상태가 좋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해지고 있다.

긴 시간에 걸쳐 데이터가 수집된 국가들에서, 자신들의 건강을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평가한 성인 인구의 비율은 지난 25년간 변화가 없었다(HE2.3). 이는 65세 이상 연령대 인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는 인구의 주관적 건강 인식 비율과 지난 25년간 꾸준히 상승한 기대 수명의 공존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사람들의 수명은 늘었으나, 반드시 더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해석은 건강 상태가 증진되면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자료

Miilunpalo, S. et al. (1997), “Self-rated Health Status as a Health Measure: The Predictive Value of Selfreported Health Status on the Use of Physician Services and on Mortality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Vol. 50, No. 5, pp. 517-528.

그림설명

그림 HE2.1 과 HE2.2: 각주 1: 설문지의 방법적 차이로 인해 다른 국가와 직접적 비교가 불가능한 국가들의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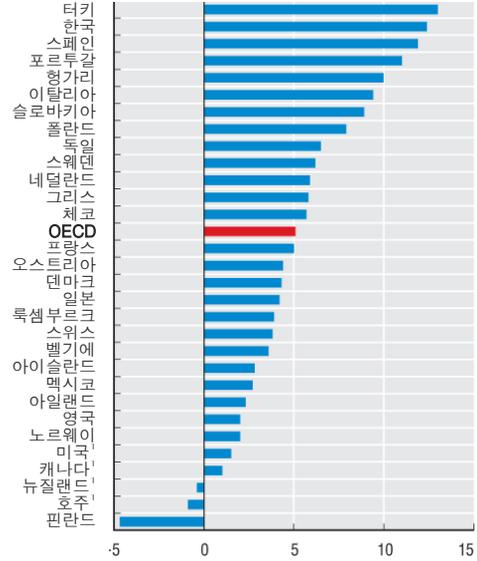
HE2.1. 대부분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함

15세 이상 인구 중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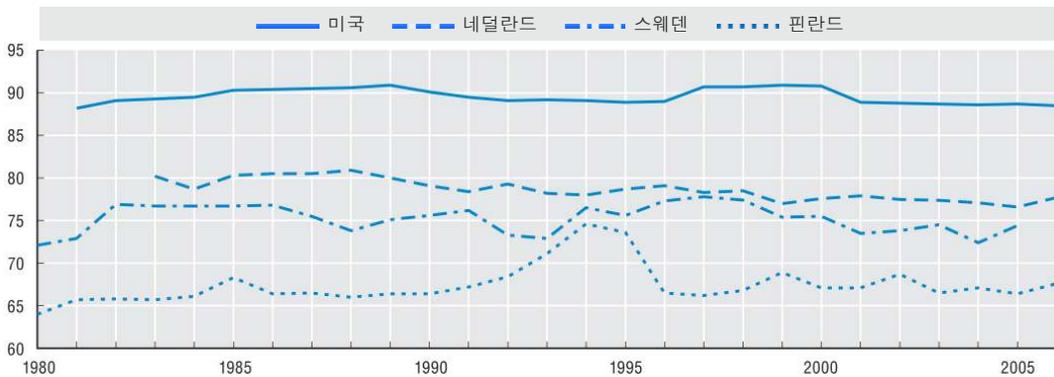
HE2.2.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함

자가평가 건강 상태의 성별 차, 2006(또는 자료가
제공된 최근 연도)



HE2.3. 장기간에 걸쳐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에 큰 변화가 없다.

15세 이상 인구 중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출처: OECD (2008), OECD Health Data 2008, CD-Rom, OECD, Paris(www.oecd.org/health/health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481682415>

정의와 측정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2,500그램 이하의 출생아를 저체중 출생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증가하는 신생아 사망 위험과 관련한 역학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저체중 출생아의 수는 전체 출생아 중 비율로 표시된다. 데이터 대부분은 출생 등록부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터키의 데이터는 국가별 보건 인터뷰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발췌한 것이다.

영아 사망률은 한 해 출생아 1,000명 중 1세 이전에 사망하는 신생아 수이다. 신생아 사망률에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출생 후 생존하는 아동에 대한 정의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EURO-PERISTAT Project 2008)의 경우 임신 기간과체중 제한은 없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르웨이(출생 후 사망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신 기간이 12주 이상이어야 한다), 체코,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의 경우 최저 임신 기간 22주 그리고/또는 체중 기준점 500g이라는 최소한의 한계가 적용된다. 호주, 뉴질랜드는 임신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OECD 국가간 균형요건은 명확하지 않지만,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체중 출산과 영아사망률은 둘 다 영아 보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저체중 출생아는 건강이 나쁘거나 발달 상 어려움이 있을 위험이 크다. 저체중 출산과 영아 사망률 모두의 위험 요인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출산 연령, 다산, 산모의 음주 및 알코올 소비, 양질의 산전 관리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 등을 포함한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출생하는 아이들 15명당 1명이 저체중 출생아이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한국은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이 4.5%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았다. 터키, 일본, 그리스는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전체 신생아 중 9%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HE3.1). 멕시코, 헝가리, 미국이 전체 신생아 중 8%가 저체중 출생아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출생한 아동 200명 중 1

명이 영아기에 사망한다. 2006년 OECD의 영아 사망률은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룩셈부르크, 일본의 경우 출생아 1,000명당 사망아 3명으로 최저 수준이고, 멕시코와 터키는 각각 출생아 1,000명당 사망아 수가 18명, 23명으로 최고 수준이다(HE3.2).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미국도 상대적으로 영아 사망률이 높았다. 모든 OECD 국가들은 지난 40년간 영아 사망률 감소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포르투갈과 한국의 감소율은 특히 괄목할만하다.

일부 OECD 국가에서는 지난 세대 동안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증가했다(HE3.3).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불임 치료의 증가로 다생아가 늘었다. 둘째, 여성들이 점차 출산 연령을 늦추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저체중 출생아를 낳을 위험이 증가한다. 셋째, 새로운 의학 기술과 발달된 산전 관리가 저체중 신생아의 생존율을 증가시켰다.

저체중 출생아의 비중이 낮은 국가들은 영아 사망률도 낮았다(HE3.4).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가장 높으나 영아 사망률이 낮은 일본은 예외이다. 일본은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1970년대 후반 전체 신생아의 5%이던 것이 2006년에는 10%에 육박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젊은 일본 여성의 흡연률이 증가했고, 일본 여성의 출산 연령이 증가했기 때문이다(Jeong과 Hurst, 2001).

추가 자료

EURO-PERISTAT Project (2008), European Perinatal Health Report, www.europeristat.com/publications/europeanperinatal-health-report.shtml.

Jeong, H.S. and J. Hurst (2001), "An Assess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Japanese Health Care System",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56, OECD, Paris.

그림설명

그림 HE3.1 과 HE3.2: 캐나다, 일본, 미국,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생존 확률이 낮은 조산아들도 생존아 출생으로 등록되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영아 사망률이 실제보다 높게 나온다.

그림 HE3.1: 2005년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미국. 2004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2003년 룩셈부르크, 터키
그림 HE3.2: 2005년 벨기에, 캐나다, 미국. 2004년 이탈리아, 2002년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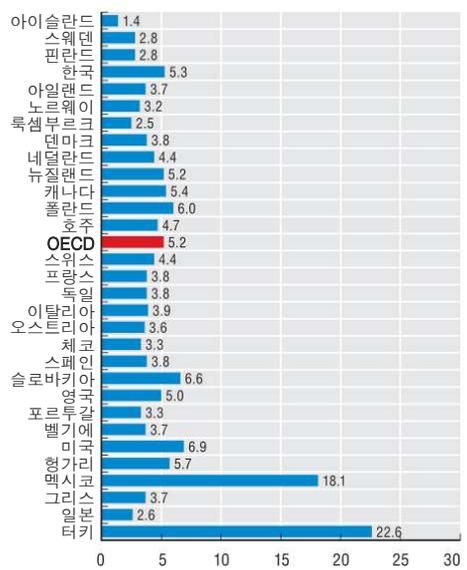
HE3.1. OECD 출생아 15명당 1명이 저체중으로 출생

2,500 g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비율,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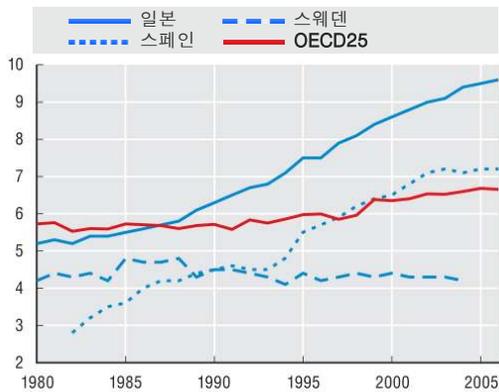
HE3.2. OECD 국가 출생아 200명당 1명이 영아기에 사망

출생아 1,000명 중 사망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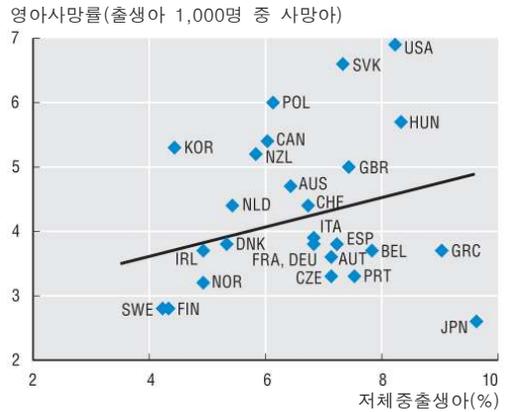
HE3.3. 지난 세대에 일부 OECD 국가에서 저체중 출생의 비율이 증가했다

2,500 g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비율, 2006



HE3.4.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영아 사망률도 낮다

2006



출처: OECD (2008), OECD Health Data 2008, OECD, Paris(www.oecd.org/health/health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600314458>

4. 비만

정의와 측정

과체중 또는 비만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체질량 지수(BMI)이다. BMI는 체중/신장²으로 정의된다(체중은 킬로그램, 신장은 미터 기준). BMI지수가 25-30인 사람들은 과체중, 30이 상인 사람은 비만으로 분류된다(WHO, 1997). 이러한 분류는 모든 인종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성인기준은 아동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체중과 비만을 측정치는 보건 인터뷰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자가 보고 신장 및 체중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체중과 비만을 측정치가 실제 신장과체중에 근거하는 호주, 체코,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영국, 미국은 예외이다. 신장과체중 측정에 기초한 BMI 측정치는 일반적으로 더 높고 자가 보고에 비해 신뢰성이 크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대면 인터뷰에 근거한 성인 비만율은 22%였으나, 같은 해 실제 측정에 근거한 비만율은 31%였다.

많은 OECD 국가에서 비만율 증가는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만은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천식, 관절염 및 일부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이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만으로 인한 비용은 흡연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비용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Sturm, 2002). 비만으로 인한 보건 의료 비용은 1990년 후반 미국의 전체 보건 의료비 지출의 5-7%를 차지했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2-3.5%를 차지했다(Thompson, Wolf, 2001). 미국의 통계는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의 보건 의료 서비스 비용은 36%, 약제비는 77%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Sturm, 2002).

대부분 OECD 국가들에서 인구 중 다수가 과체중이나 비만이다. 멕시코, 미국, 영국, 호주, 그리스,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체코, 캐나다, 독일, 포르투갈, 핀란드, 스페인, 아이슬란드는 성인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OECD의 두 아시아 회원국(일본, 한국)과 일부 유럽국가(프랑스, 스위스)는 과체중, 비만 인구가 적었다. 과체중보다 더 큰 건강 위험요인인 비만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비만 유발율은 국가마다 달라서 많게는 10배의 차이를 보이는데 비만율이 가장 낮은 한국, 일본은 4%, 미국, 멕시코에서는 30% 이상이였다(HE4.1).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과체중, 비만율이 낮았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과체중, 비만남성의 비율이 높

았고(그리스), 반면 과체중, 비만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국가(멕시코, 터키)도 있다(HE4.2).

비만 및 과체중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비만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호주에서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영국에서는 3배 이상 증가했다(HE4.3). 많은 서부 유럽 국가의 비만율도 지난 10년간 상당히 증가했다.

모든 인구 집단에서 과체중 및 비만 인구가 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영국의 증거 자료는 과체중 및 비만인구가 사회경제적 약자,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2004년 캐나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통계).

과체중 및 비만 아동도 늘고 있다. 대부분 OECD국가에서 아동 비만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데 스페인의 경우 13-14세 아동의 3분의 1이 비만이고(2000-2002), 영국의 5-17세 아동 중 29%가 비만이다(2004). 그리고 이탈리아의 5-17세 아동 중 4분의 1(1993-2001), 벨기에의 5-15세 아동 중 4분의 1(1998-99)이 비만이다(세계비만연구협회, 2007).

추가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4), Australia's Health 2004, AIHW Cat. No. AUS 44, Canberr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Obesity (2007), "International Obesity Taskforce Database", available at www.iof.org/documents/Europeandatable_000.pdf (accessed on June 11, 2007).

Statistics Canada and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4), Joint Canada/United States Survey of Health, 2002-2003, Statistics Canada Cat. 82M0022-XIE, Ottawa.

Sturm, R. (2002), "The Effects of Obesity, Smoking and Drinking on Medical Problems and Costs", Health Affairs, Vol. 21, No. 2, pp. 245-253.

Thompson, D. and A.M. Wolf (2001), "The Medicalcare Burden of Obesity", Obesity Reviews, Vol. 2, pp. 189-197.

World Health Organisation (1997), Obesity: Preventing and Managing the Global Epidemic, WHO, Geneva.

그림설명

그림 HE4.1과 HE4.2: 각주1: 호주, 체코,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경우 수치는 자가 보고가 아닌 실제 측정된 신장과체중에 근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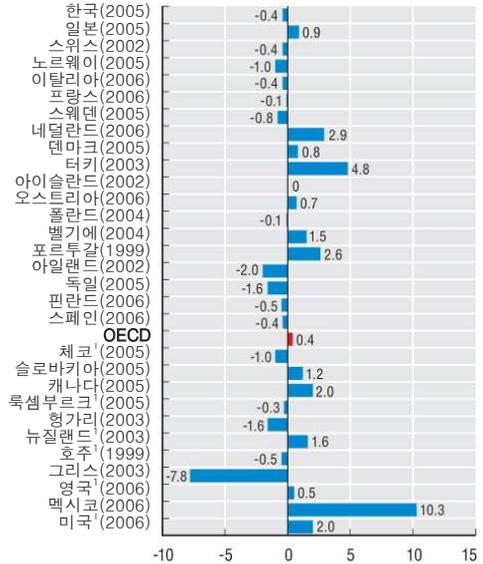
HE4.1. 여러 OECD 국가의 높은 비만을

BMI30이상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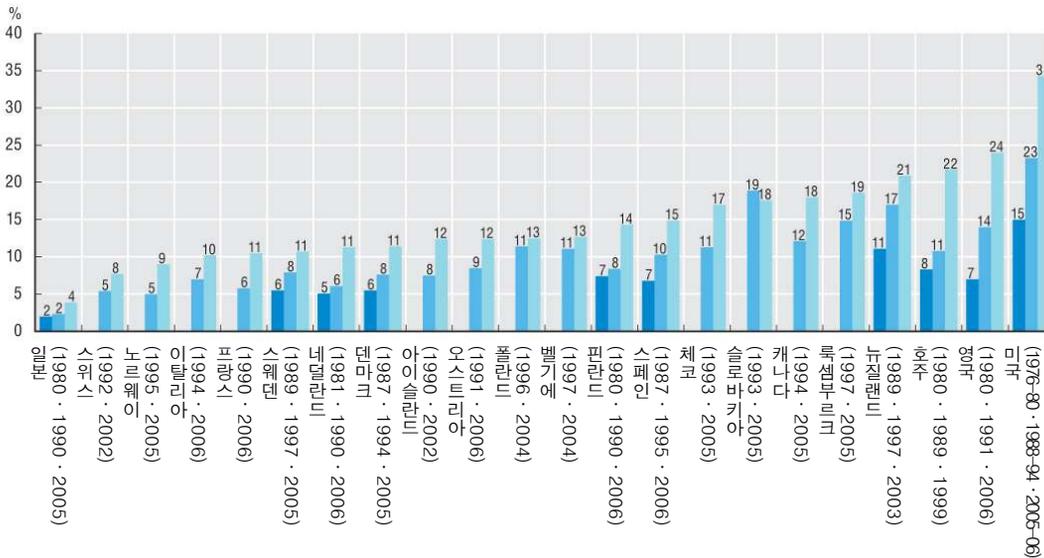
HE4.2. 남성은 여성에 비해 비만율이 낮다.

BMI30이상 인구 비율



HE4.3. OECD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비만을

체질량 지수가 30이상인 성인 인구의 비율



출처 : OECD (2008), OECD Health Data 2008, CD-Rom, OECD, Paris (www.oecd.org/health/health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600403726>

5. 신장

정의와 측정

신장 데이터는 20-49세 인구에 초점을 맞춘다. 20세 이전에는 신장이 계속 자랄 수 있고, 50 이후에는 신장의 감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측정된 신장은 스스로 보고한 신장에 비해 선호되는데 응답자들은 자신의 신장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Gorber 외, 2007).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인터뷰 방법, 설문조사 목적에 따라 이러한 편향성은 달라진다. 최근 제도적 리뷰에서 발췌한 자료는 일반 성인 남성과 여성의 신장 과대 평가치 비가중 평균은 각 1cm라는 것을 보여준다(Gorber 외, 2007). 최근 성인 신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20-24세 연령대의 신장은 45-49세 연령대의 신장과 비교했을 때 이 측정 오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거되었다. 가능한 한 데이터는 전문화된 공적 보건 설문조사에서 직접 발췌했다.

성인 신장은 유전적 잠재성과 아동기의 영양 상태의 결합에 따라 결정된다. 영양은 총 영양의 질과 양에서 육체적 활동이나 질병으로 인한 영양 손실을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성인 신장의 환경적 요소는 아동의 섭식과 질병 환경의 누적 개요라고 할 수 있다(Steckel, 1995; Silventoinen, 2003). 섭식과 질병 환경이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면, 성인 신장의 국가별 비교는 국가 내에서 아동의 환경적 불평등성을 나타내는 지표도 될 수 있다.

OECD 국가별로 성인 신장에는 큰 차이가 있다. 북유럽 국가와 북유럽 국가의 남성들이 1.8미터를 초과해 가장 키가 크다(HE5.1). 멕시코, 포르투갈, 한국, 일본의 경우 성인 남성의 신장이 가장 작았는데, 가장 신장이 큰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0cm이상 작았다. 그림 HE5.1은 여성의 신장도 유사한 국가별 패턴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신장이 가장 큰 국가의 여성 평균 신장은 1.68미터, 가장 작은 국가의 경우는 1.54미터였다. 북유럽 국가와 북부 유럽 국가의 큰 신장은 부분적으로 효과적인 보건 의료 및 복지 제도에 기인한다. 신장이 작은 국가들 중 멕시코는 1인당 소득이 비교적 낮았고, 반면 일본과 한국은 나머지 OECD 국가들과 더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국가간 신장차이는 국가별 평균 유전적 요소에 기인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Deaton, 2007). 전반적으로, 남성은 항상 여성보다 키가 크다. 남성과 여성의 신장 비율은 포르투갈의 경우 1.06,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에서는 1.09였다.

이러한 성별 차는 강력한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신장이 커지고 있다. 45-49세

연령대와 20-24세 연령대의 비교를 통해 OECD 평균 신장이 지난 25년간 남성은 3cm, 여성은 2cm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인 신장의 증가는 아동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가장 증가세가 두드러진 국가는 한국으로 남자청소년 신장이 아버지 세대에 비해 6 cm 크며, 여자청소년 신장은 어머니 세대에 비해 4 cm 크다. 신장 증가 폭이 가장 작은 국가는 미국으로 지난 세대 동안 신장 증가가 없었다(Komlos, 2008). 최근 상대적으로 신장이 작은 사람들의 이민 유입은 미국의 신장 스테그네이션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신장이 작은 국가들은 신장이 큰 국가들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그림 HE5.2의 흠어진 점들은 원래 신장이 작았던 한국, 멕시코, 스페인, 포르투갈인의 신장이 키가 큰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인구의 신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 신장의 국가별 차이는 여성 신장의 국가별 차이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국가별 신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 선은 멕시코, 일본, 미국의 부진을 나타낸다. 초기 출발점을 고려할 때 신장 증가세가 두드러진 나라는 남성의 경우 한국, 스페인, 아일랜드, 여성의 경우, 한국, 스페인, 벨기에이다.

추가 자료

- Deaton, A. (2007), "Height, Health, and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04, pp. 13232-13237.
- Gorber, S.C. et al. (2007), "A Comparison of Direct vs. Self-report Measures for Assessing Height, Weight, and BMI: A Systematic Review", Obesity Reviews, Vol. 8, No. 4, pp. 307-326.
- Komlos, J. (2008), "Stagnation in Heights amongst Second-Generation U.S.-born Army Personnel",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89, No. 2, pp. 445-455.
- Silventoinen, K. (2003), "Determinants of Variation in Adult Height",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Vol. 35, pp. 263-285.
- Steckel, R. (1995), "Stature and the Standard of Li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3, No. 4, pp. 1903-1940.

그림설명

그림 HE5.1: M = 측정된 신장, S = 스스로 보고한 신장
U = 알려지지 않은 신장측정방법

정의와 측정

첫 번째 사용된 데이터는 세계 보건 기구의 세계 정신 건강 설문조사 이니셔티브(WMHSI)의 일환으로 시행된 대규모 전염병 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설문조사는 2002-2005년 사이에 10개 OECD 국가에서 시행되었다(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3개 OECD 국가에서 추가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의 발생 빈도와 그 특징 및 강도, 제공되는 치료법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진단 도구인 WHO 정신장애진단도구(CIDI)를 사용한다.

고려되는 장애에는 불안 장애, 기분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알코올 및 약물로 인한 장애 등이 포함된다. 모든 장애는 중증, 보통, 경증으로 분류된다.

WMHSI 데이터는 보통 18세 이상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연령 제한은 뉴질랜드의 경우 16세 이상, 일본은 20세 이상, 멕시코는 18-65세이다. 표본크기는 2,000명(네덜란드)에서 13,000명(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응답률도 50%(벨기에)에서부터 80%(뉴질랜드)로 나라마다 다르다. 설문조사 표본은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집단이지만, 멕시코에서는 모든 도시지역, 일본에서는 4개의 광역권을 의미한다. 유럽의 설문조사는 양극성 장애, 약물 남용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아서 비교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두 번째 데이터는 유럽 생활, 노동 환경 개선 재단이 2007년 후반에 수집한 유럽 삶의 서베이에 발췌한 것이다. 이 데이터는 훨씬 많은 회원국을 포함하지만, 유럽과 터키에 한정된다. 이 결과 지표는 짧은 WHO 지표에 근거한 우울 증상을 진단하는 5가지 질문에 대한 자가보고에 기초한다.

정신장애는 장애를 겪는 사람과 대중에게 큰 부담이다. 치료비 및 생산성 손실로 인한 간접 비용, 근로 손실 일수 등을 포함한 정신 건강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영국의 경우 GDP의 2% 이상, 캐나다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추산된다(WHO, 2007).

정신 건강 문제는 흔하게 발생한다. 지난 1년 간 어떤 형태로든 정신 건강 장애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이탈리아는 8%, 미국은 26%에 이른다(HE6.1).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정신 건강 장애를 겪었다고 보고하며, 그 비율은 이탈리아와 일본은 18%, 뉴질랜드, 미국은 40% 수준으로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모든 나라에서 가장 흔한 정신장애는 불안장애였고 그 다음이 기분 장애였다(HE6.2). 충동 조절과 약물 사용으로 인한 정신 건강 장애는 흔하지 않았다. 정신 장애의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되나, 조사 대상 국가의 인구 중 4%가 보통 수준의 장애, 인구 중 3% 중증 장애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미국의 경우 중증 장애의 비율이 3%의 두 배 이상이다.

대부분의 정신장애는 치료를 받지 않는 채로 있다(HE6.3). 평균적으로 중증 장애와 보통 수준의 장애의 경우 치료를 받는 비율이 높다(각각 48%, 31%) 한편, 다수의 중증 질환자들이 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21개 국가를 비교한 정신건강지표는 터키의 정신 건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노르웨이는 양호한 수준임을 나타냈다(HE6.3). 정도는 덜하지만 이탈리아와 폴란드도 정신 건강이 열악했고,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은 정신 건강이 양호했다. 정신 건강 지표상 중간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국가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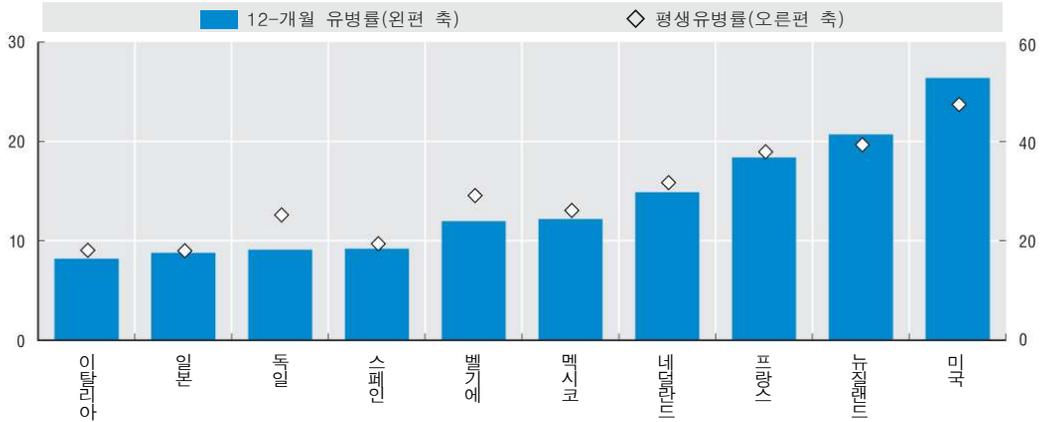
추가 자료

Kessler, R.C. et al. (2007), "Lifetime Prevalence and Age-of-Onset Distributions of Mental Disorders in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World Mental Health Survey Initiative", World Psychiatry, Vol. 6, October.

OECD (2008), "Are All Jobs Good for Your health? The Impact of Work Status and Working Conditions on Mental Health",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Paris.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 Consortium (2007), "Prevalence, Severity, and Unmet Need for Treatment of Mental Disorders in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World Mental Health Surveys",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91, No. 21, June.

HE6.1. 10개 OECD 국가의 연간, 평생 정신질환 유병률



출처: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 Consortium (2007).

HE6.2. 10개 OECD 국가의 정신 질환 종류, 강도 및 그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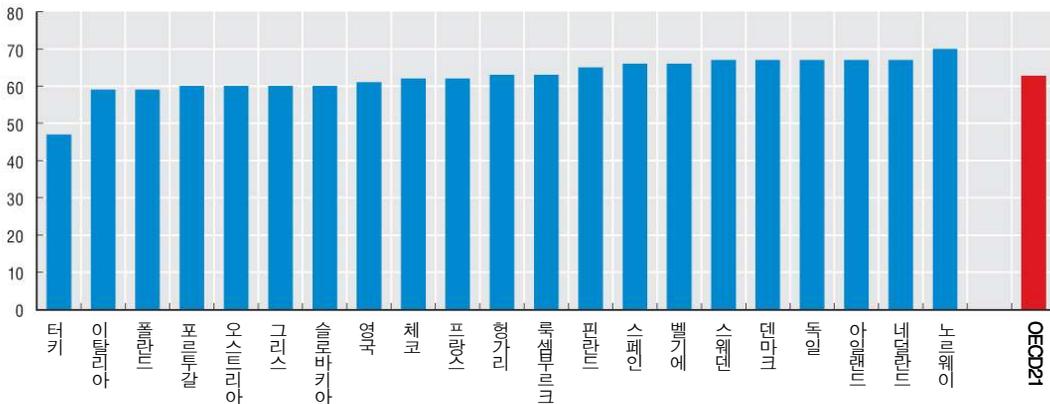
퍼센트, 2007, 값이 높을수록 정신 건강이 양호함

	12개월 유병률, 전체 인구 중 퍼센티지 비율					정신 질환 치료를 받는 비율							
	종류					강도			강도			무	합계
	불안	기분	중등 조절	약물	모든 장애	중증	보통	경증	중증	보통	경증		
벨기에	7	6	1	1	12	2	3	6	54	50	28	7	11
프랑스	12	9	1	1	18	3	6	10	63	36	22	8	12
독일	6	4	0	1	9	1	3	5	50	31	28	5	8
이탈리아	6	4	0	0	8	1	3	4	..	31	19	2	5
일본	5	3	1	2	9	2	4	3	..	17	11	5	6
멕시코	7	5	1	3	12	4	4	5	20	19	10	3	4
네덜란드	9	7	1	3	15	2	4	9	50	35	27	7	11
뉴질랜드	15	8	1	4	23	0	0	0
스페인	6	5	1	0	9	1	3	5	65	38	35	4	7
미국	18	10	7	4	26	8	9	9	52	34	23	8	15
Average	9	6	2	2	15	3	4	6	48	31	21	6	9

출처: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 Consortium (2007).

HE6.3. 21개 유럽 OECD 국가의 정신건강지표

퍼센트, 2007, 값이 높을수록 정신 건강이 양호함



출처: Second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07, www.eurofound.europa.eu/publications/htmlfiles/ef0852.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627528424>

7. 장기요양 수혜자

정의와 측정

장기요양 수혜자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 문제로 인해 연장된 기간 동안 공식적인 유료 요양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수혜자는 목욕, 옷 입기, 식사,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의자에 앉고 일어나기, 화장실 사용 등의 활동을 돌봄에 의존한다. 돌봄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함께 제공된다. 장기요양은 집 또는 시설에서 받을 수 있다.

국제 데이터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일년 중 특정 일자의 데이터를 말하는데, 덴마크의 경우 일년 중 한 주, 일본은 일년 중 한 달, 헝가리와 뉴질랜드의 경우 일년 전체의 데이터를 의미하고, 체코와 스위스의 경우는 재가장기요양을 받는 수혜자의 데이터를 말한다. 체코,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는 모든 연령의 장기요양 수혜자에 관한 자료가 제공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폴란드에서는 고령자 기준(65세 대신) 60세이며 노르웨이에서는(65세 대신) 67세, 폴란드에서는(80세 대신) 75세이다. 셋째, 데이터는 일부 국가(체코,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스위스, 영국, 그리고 미국)의 자부담 장기요양 수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OECD 국가별로 장기요양 제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광범위한 장기요양제도를 갖추고 있다. 2006년 북유럽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 수혜자 비율은 15%이다(HE7.1). 장기요양 제공 대상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다른 국가에서도(예: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장기요양 수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장기요양에 대한 공식적 합의가 널리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 이탈리아, 동유럽 국가들(헝가리 제외)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 수혜자 비율이 0.6%에서 3.6% 사이였다.

고령의 장기요양 수혜자 비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2000년 장기요양 수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호주, 벨기에,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에서 전체 장기요양 수혜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반면, 2000년 장기요양 수혜자 비율이 OECD 평균을 상회했던 국가들에서는(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그 비율이 감소했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가정에서의 요양이 지배적이었다.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웨덴에서는 시설 요양에서 재가요양으로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들이 재가요양을 선호하며 비싼 시설요양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OECD,2005). 그러나 독일의 경우,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Gibson과 Redfoot, 2007).

“나이가 더 많은” 고령자일수록 장기요양을 훨씬 많이 받는다. 최고령 연령대(80세 이상) 인구의 장기요양 수혜자 비율은 65-79세 연령대의 수혜자 비율의 5배 이상 많다. 호주, 아이슬란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80세 이상 연령대의 수혜자 비율은 감소했다(HE5.2). 65-79 세 연령대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수혜자 비율이 감소했다.

남성에 비해 여성 장기요양 수혜자의 비율이 더 높다. 65-79세 여성 인구 중 평균 수혜자 비율은 남성 수혜자 비율보다 3분의 1이상 더 많다. 이러한 격차는 80세 이상 연령대에서 더 확대되어 여성 수혜자비율이 남성 수혜자 비율의 1.5배 이상이다(HE5.3). 이처럼 일반적으로 여성 수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령 여성의 높은 장애 유병률 때문이다(Lafortune 외., 2007).

추가자료

Gibson, M.J. and Redfoot, D.L. (2007), Comparing Long-Term Care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hat Can We Learn From Each Other?, AARP, Washington, DC.

Lafortune, G. et al. (2007), “Trends in Severe Disability Among Elderly People: Assessing the Evidence in 12 OECD Countries and the Future Implication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26, OECD, Paris.

OECD (2005),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OECD, Paris.

그림설명

그림 HE7.1부터 HE7.3: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미국의 재가요양 수혜자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음. HE7.1의 경우 스위스의 재가요양 수혜자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음 시설요양 수혜에 대한 데이터는 2000년 데이터 대신 제공된 1999년(미국), 2001년(아일랜드) 데이터와 2006년 데이터 대신 제공된 2003년(캐나다), 2004년(미국) 데이터를 말한다. 시설 및 재가요양 수혜자의 데이터는 2000년 데이터 대신 제공된 2001년(영국), 2002년(호주, 일본) 데이터, 2006년 데이터 대신 제공된 2003년(호주, 프랑스, 슬로바키아 공화국), 2004년(벨기에, 한국, 영국) 데이터, 2005년(호주, 스위스) 자료를 말한다. 기타 구체적인 데이터는 Statlink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참조한다. 각주 1: 데이터는 서로 다른 연령 구분을 적용함. 프랑스의 경우 재가요양 수혜자 데이터는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시설요양 수혜자 데이터는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상응하는 인구데이터가 노르웨이를 제외한 국가의(67세 이상이 아닌) 65세 이상 인구 중 수혜자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됨. 이로 인해 추정치가 실제보다 낮을 수 있음. 각주 2: 데이터는 일 년 중 특정일자의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 아님. 이로 인해 과대평가가 발생할 수 있음. 각주 3: 데이터는 민간 자원으로 요양료를 완전히 지불하는 수혜자를 포함함. 체코의 경우 재가요양 수혜자 데이터만이 사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혜자를 포함함.

정의와 측정

총 보건 의료비 지출은 보건 의료 상품 및 서비스의 최종 소비와 보건 의료 인프라에 대한 자본 투자를 합한 것이다. 개인 보건을 위해 사용된 공적, 사적 지출과 집단적 보건 서비스(공공보건 및 예방 프로그램과 관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트레이닝, 연구, 환경적 건강 등 보건관련 지출은 제외된다.

국가별, 시대별로 보건 의료비 지출을 비교하기 위해 1인당 보건 의료비 지출은 국가별 가격지수에 의해 디플레이트되었고, 구매력지수(PPP) 환율을 이용한 미국 달러로 환산되었다.

OECD의 1인당 평균 보건 의료비 지출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2006년, OECD 국가 중 보건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1인당 6,714달러를 지출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미국 다음으로는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의 보건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으며 모두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400-3,600달러 구간에 밀집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보건 의료비 지출이 가장 낮은 4개국(터키,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공 보건 지출 수준의 차이는 총 보건 지출 수준의 차이와 유사하다. 그림 HE8.1은 미국이 보건 의료비 지출액이 가장 적은 포르투갈, 터키를 큰 폭의 차이를 보이며, 가장 지출을 많이 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점점 더 많은 자원이 보건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1995년부터 2006년 사이, 1인당 OECD 평균 보건 의료비 지출은 연간 약 4%씩 증가했다(HE8.2). 같은

기간 경제 성장률은 2.5%였다. 그러나 OECD 평균 이면에 국가별, 시대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아일랜드와 같이 보건 의료비 지출 증가 폭이 큰 국가들은 과거에 1인당 보건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두 국가의 보건 의료비 지출 증가는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을 크게 초과했다. 이와 반대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는 1995-2006년 사이 지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비용 절감안과 경제 성장 둔화에 기인한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보건 의료비 지출이 많다. 그림 HE8.3는 OECD 국가의 1인당 평균 소득과 보건 의료비 지출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국가 소득이 보건 의료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평균 소득이 낮은 OECD 국가에서는 이 상관관계가 더욱 강하다. 평균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도 보건 의료비 지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독일은 평균 소득 수준이 비슷하지만 1인당 보건 의료비 지출액은 상당히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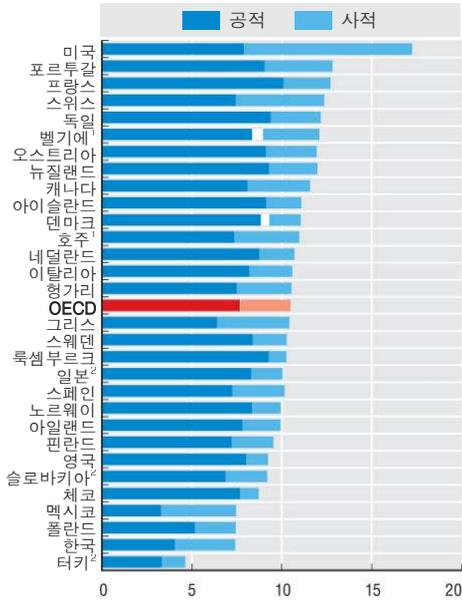
보건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기대 수명이 높다.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덜 두드러지지만, 일반적으로 1인당 보건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출생 시 기대 수명이 더 길다는 상관관계가 있다(HE8.4). 보건 의료비 지출 수준을 고려할 때, 일본은 상대적으로 기대 수명이 길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기대 수명이 짧다.

그림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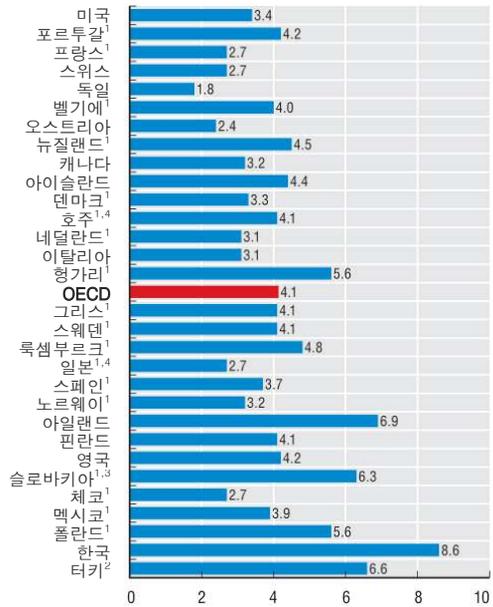
그림 HE8.1: 벨기에와 덴마크: 공공, 지출은 자본지출을 제외시킨다. 각주 1: 20 05/0 6 . 각주 2: 2005.

그림 HE8.2: 각주 1: 시리즈별 분류. 각주 2: 1999-2005. 각주 3: 1997-2005. 각주 4: 1995-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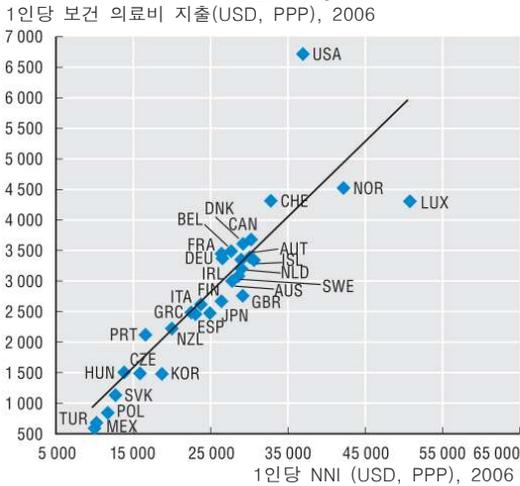
HE8.1. NNI중 보건 의료비 지출, 2006
국가들은 NNI중 보건 의료비 지출이 높은 순으로 정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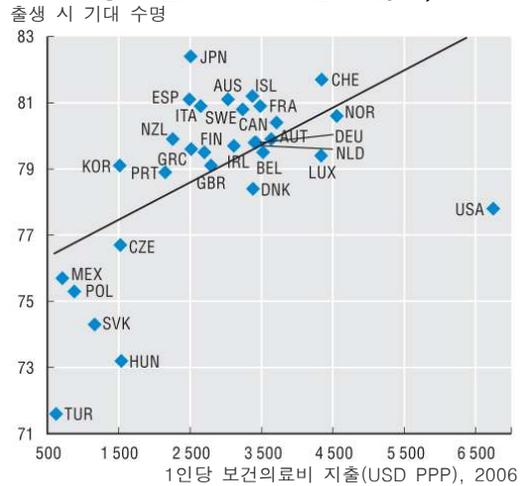
HE8.2. 1인당 연간 보건 의료비 지출 증가, 1995-2006



HE8.3. 부유한 국가일수록 1인당 보건 의료비 지출이 많다. 2006



HE8.4. 기대 수명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보건 의료비 지출이 많다. 2006



출처: : OECD(2008), OECD Health Data 2008, OECD, Paris (www.oecd.org/health/health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650860842>

제8장

사회통합지표

1. 삶의 만족도
2. 직업 만족도
3. 범죄 피해율
4. 자살
5. 집단 따돌림
6. 위험행동

1. 삶의 만족도

정의와 측정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도 측정에 사용되는 주요지표는 2006 갤럽월드조사(Gallup World Poll 2006)이다. 갤럽월드조사는 각국을 대표하는 15세 이상 인구 대상의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극대화시켰으나, “삶의 만족도”라는 영어 개념이 OECD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어느 범위까지 번역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행복과 관련한 질문보다는 국가별 인식 차이의 문제가 적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질문이 갤럽월드조사에 이용되었다.

갤럽월드조사는 응답자들에게 “11단계로 나누어진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의 제일 아래 단의(0)은 최악의 삶, 사다리 제일 윗 단의(10)을 최고의 삶이라고 가정했을 때, 당신은 어느 단계에서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다. 이 섹션에서 사용된 주요 지표는 국가별 평균 점수이다

사회 인구학적 특징별 갤럽월드조사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 갤럽과 같이 일반전화를 이용한 인터뷰를 하는 것은 휴대폰 사용이 높은 국가들의 자료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삶의 만족도 변화와 관련하여 유로바로미터 조사(Eurobarometer Survey)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등 다양한 출처에서 인용한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된 자료가 이용되었다.

국가별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CO1.1).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3개국인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는 11단계로 분류되는 삶의 만족도 척도에서 최하위 3개국(슬로바키아공화국, 이탈리아, 터키)에 비해 평균 2.7단계가 더 높았다.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는 지역별 또는 문화권 별로 광범위하게 분류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6개 국가 중 3개국이 노르딕 국가이나, 아이슬란드는 중간수준에 머물면서 예외이다. 서유럽 대륙국가들과 동유럽 OECD 회원국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나,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예외이며, 이보다 정도는 낮아도 벨기에와 스페인의 삶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영어를 사용하는 OECD 회원국(영국, 아일랜드,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의 삶의 만족도가 상위 50% 이내였으며, 노르딕 국가들이 그 뒤를 바짝 뒤따르고 있다.

부유한 OECD 국가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CO1.2). 상관관계는 강하다. 그러나 그 상관관계는 비선형적(non-linear)이다. 비선형적 관계는 부유한 국가일수록 소득 증가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기선(regression line)에서 흥미로운 예외가 있다. NNI 수준을 고려해볼 때, 멕시코, 뉴질랜드, 덴마크는 예상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터키는 삶의 만족도가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전체 인구가 동등하게 높은 삶의 만족도를 공유하는 경향이 강했다(CO1.3). 개인별 점수의 표준 오차를 측정했을 때, 평균적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국가 내의 삶의 만족도의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이 상관관계는 매우 강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다. 그림 CO1.4는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가 11단계 척도에서 평균 0.28단계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23개 OECD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는 상승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했으며,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 국가는 포르투갈, 헝가리, 미국, 캐나다, 일본뿐이었다. 터키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한 점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추가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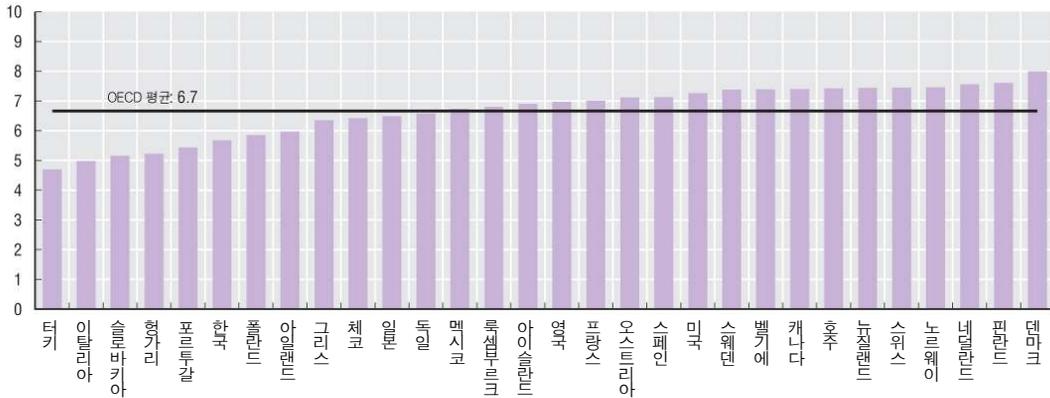
Deaton, A.(2007), “Income, Aging,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NBER Working Paper No. 13317, Cambridge, MA.

그림설명

그림 CO1.4: 대부분의 경우, 삶의 만족도 변화 데이터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 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예외인 출처와 국가는 제1장의 박스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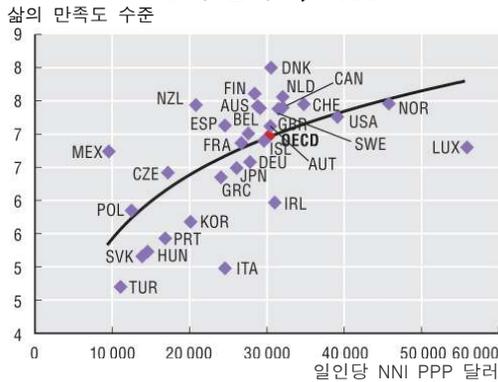
CO1.1. 국가별로 삶의 만족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0-10의 11단계 사다리로 분류된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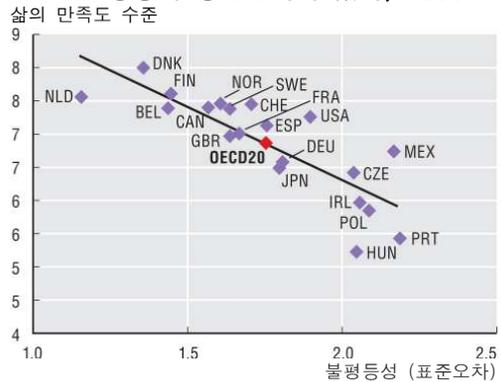
출처: Gallup World Poll.

CO1.2. NNI 증가와 함께 상승하는 삶의 만족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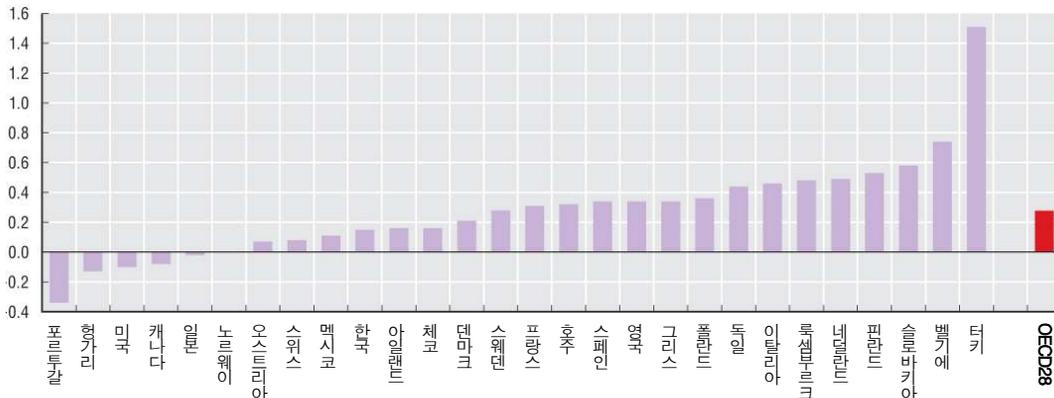
출처: Gallup World Poll; OECD National Accounts (www.oecd.org/statistics/national-accounts).

CO1.3. 낮은 삶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 불평등과 상관관계가 있다, 2006



CO1.4.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

11단계 사다리로 분류한 삶의 만족도 변화 점수, 2000-06



출처: World Happiness database (<http://worlddatabaseofhappiness.eur.nl>).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664800231>

정의와 측정

직업만족도(work satisfaction) 측정치는 제3차 세계 사회과학 프로그램(Wave III of th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Programme)에서 인용되었다. 최근 ISSP의 직업 오리엔테이션은 2005년에 실시되었다. 그 이전에는 1989년, 1997년에 각각 실시됐다. 이 설문조사는 피고용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하는 16세 이상의 근로인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1개 OECD 국가가 최근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비응답율이 높고 국가별, 시대별로 비응답율의 차이가 크며, 국가별 표본추출 프레임도 달라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직업만족도의 기본 지표는 (7개의 응답 카테고리 중에서) 자신들의 본업에 “완전히”, “매우” 또는 “상당히” 만족한다고 응답한 피고용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이 보고한 직업 가치와 직업 성과도 나타낸다. 직업 가치는(6개의 응답 카테고리 중에서) 여러 요소들이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기초한다. 마찬가지로, 직업 성과는 응답자들이(6개 응답 카테고리 중에서) 현재 자신의 직업에 대한 묘사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묻는 질문에 근거한다. 두 경우 모두, 질문은 카테고리 간 순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표본크기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작다. 벨기에의 데이터는 플랜더스 지역, 독일 데이터는 서부 랜더 지역에 국한되어있으며, 영국 데이터는 북아일랜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다 (CO2.1). 21개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자신의 직업에 완전히, 매우 또는 상당히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80%에 가깝다. 수치범위는 한국의 70% 부터 멕시코와 스위스의 90% 이상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응답자 중 12%는 자신의 직업에 완전히 만족, 30%는 매우 만족, 40%는 상당히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7년 이후, 비교가 가능한 11개 OECD 국가에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약 5포인트 상승했다. 스웨덴에서는 이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에서는 하락했다 (CO2.1).

직업만족도의 성별 차와 연령차는 거의 없었다. 2005년 설문조사 대상이었던 21개 OECD 국가에서 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남성과 거의 동일했다. 포르투갈, 스위스, 벨기에, 한국, 독일, 일본, 미국의 경우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았고, 체코 공화국, 호주, 멕시코, 핀란드에서는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높았다.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65세에 이르기까지 삶의 만족도는 조금씩 상승한다(ISSP 2005).

고용 안정은 근로자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요소였다. 국가별로 정략적 차이는 있지만, 높은 소득, 발전 기회, 탄력적인 근로시간이 그 다음 순위였다 (ISSP 2005).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자신들의 근무 시간과 급여의 조화에 만족하고 있다. 현재와 동일한 급여를 받고 동일한 시간 근무를 할 것인지, 근무시간을 늘리고 더 많은 급여를 받을 것인지,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급여도 더 적게 받을 것인지 물었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현재와 동일한 급여를 받고 동일 시간 근무하겠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3분의 1은 근무 시간을 늘리고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멕시코와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응답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반면, 덴마크에서는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덜 받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근무 시간을 늘리고 급여를 더 받겠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노르딕 국가들과 스웨덴에서는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미미했다 (ISSP 2005).

추가읽기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5), Work Orientations III, Data and Documentation, www.gesis.org/en/services/data/survey-data/issp/modules-study-overview/work-orientations/2005/.

Vecernik, J.(2003), “Skating on Thin Ice: A Comparison Work Values and Job Satisfaction in CEE and EU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44, pp. 444-471,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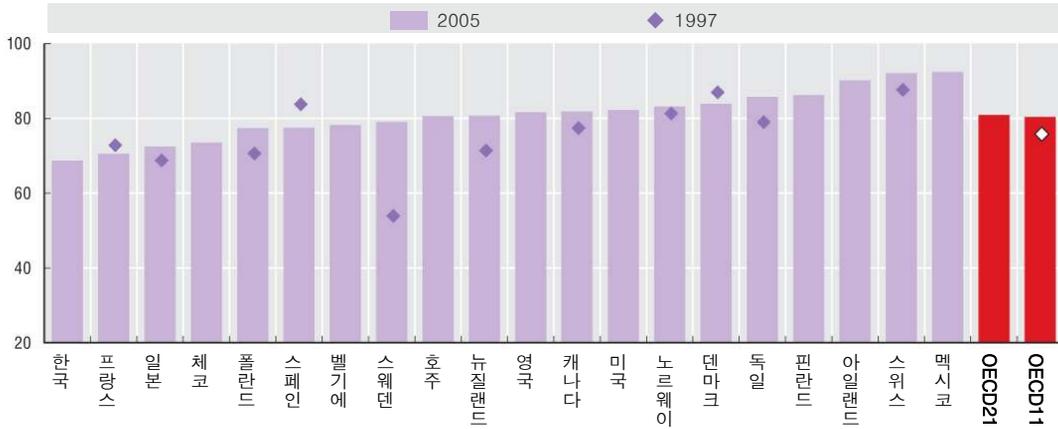
그림과 표 설명

그림 CO2.1: 국가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표 CO2.2: 데이터는 열린 응답의 코딩이 아니라 선택된 결과에 기반한다.

CO2.1. 모든 OECD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업만족도

직업에 완전히, 매우 또는 상당히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 2005



CO2.2. 응답자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직업의 속성 및 특징, 2005

모든 직업의 중요한 속성				응답자들 직업의 특징							근무시간의 선호도		
직업 안정성	고소득	발전의 가능성	근무시간의 결정 권한	직업 안정성	고소득	발전의 가능성	고된 업무				업무에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	
							업무에 지친 채 귀가	고된 육체 노동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	위험한 환경			
호주	95	71	83	55	64	24	25	90	45	85	29	67	33
벨기에	96	80	81	64	65	23	26	80	45	81	34	69	31
캐나다	91	82	82	60	64	34	31	86	40	85	29	78	22
체코	94	86	57	54	51	17	14	88	48	62	32	78	22
덴마크	81	59	41	61	74	41	23	87	48	81	29	82	18
핀란드	94	82	47	72	60	30	20	84	47	84	36	72	28
프랑스	92	82	77	57	51	13	12	92	52	87	33	61	39
독일	96	77	76	54	71	25	23	86	46	81	28	39	61
헝가리	99	93	67	47	55	15	15	94	59	71	47	31	69
아일랜드	94	79	88	58	75	33	36	82	42	66	25	62	38
일본	85	78	27	52	61	24	10	74	43	72	25	74	26
한국	97	93	91	68	40	16	25	83	69	87	39	21	79
멕시코	98	92	97	79	71	26	44	80	47	60	32	16	84
뉴질랜드	93	70	83	61	68	30	31	84	48	78	33	71	29
노르웨이	93	70	52	61	62	18	13	86	42	86	33	67	33
포르투갈	97	93	93	69	62	16	36	88	49	73	29	47	53
스페인	97	95	88	78	69	26	24	79	51	72	37	63	37
스웨덴	93	74	49	70	65	19	21	86	51	89	33	83	17
스위스	93	60	65	69	68	32	34	82	40	76	25	60	40
영국	95	74	78	54	68	20	27	90	51	86	24	72	28
미국	93	81	88	53	74	27	38	85	47	79	32	54	46
OECD21	94	80	72	62	64	24	25	85	48	78	32	60	40

출처: ISSP Work Orientation, wave III (2005).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708264007>

정의와 측정

실제 범죄 피해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별 범죄 비교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된 범죄 통계는 유엔 지역간 범죄 처벌 조사기관(UNICRI)과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가 실시한 2005 범죄 피해 설문조사에 근거한다. 유럽 국가들에 대한 ICVS 데이터는 갤럽 유럽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조직한 유럽 범죄와 안전에 대한 설문조사(www.european-safetyobservatory.eu/euics_rp.htm for detail 참조)에서 발췌한 것이다. 범죄 피해 변화에 대한 데이터는 수 년에 걸친 것이다.

ICVS는 10가지 종류의 “전통적” 범죄(ISVS 분류에 따름)에 초점을 맞춘다.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가정이 전통적 범죄의 피해경험을 묻는다. 이러한 범죄는 차량 관련 범죄(차량 절도, 차량 내·외부에서의 절도, 자전거와 오토바이 절도), 주거 침입(완료 또는 미수), 개인 재산의 절도, 접촉 범죄(강도, 성범죄-여성에게 의해서만 보고됨, 모욕 또는 협박)를 포함한다. ICVS는 약물관련 문제와 증오범죄, 공공 영역에서의 부패, 소비자 사기(인터넷 사기와 신용카드 절도)와 같은 “비전통적” 범죄도 다루고 있다. 또한 ICVS는 범죄에 대한 대응, 범죄에 대한 공포, 예방책 사용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국가별 대표 표본 집단에 근거하고 있으나, 결과는 인터뷰 방법이나 인터뷰 기간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표본크기는 일반적으로 작다(대부분의 국가에서 2,000명).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이나 성적 특성을 가진 범죄의 경우, 비교가능성 문제와 축소보고라는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사기와 부패 등의 범죄를 경험할 수 있으나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축소 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OECD 국가 국민 6명 중 1명은 전통적인 범죄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CO3.1). 2004-05년, 아일랜드,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영국에서는 범죄 피해율이 20%를 초과했다. 반면, 일본, 스페인의 경우 범죄 피해율이 10% 미만이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범죄 피해율은 최소 10가지 전

통적 범죄 카테고리에서 감소했다. 정보를 제공한 20개 OECD 국가 중 18개국에서 범죄 피해율은 감소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스웨덴, 프랑스에서는 범죄 피해율 감소 폭이 5포인트를 초과했으며, 스위스와 노르웨이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심각하지 않은 범죄가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CO3.2). 평균적으로 표 CO3.2에 포함된 모든 OECD 국가에서 인구의 3.7%가 개인재산 절도와 소매치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아일랜드의 경우 이 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 일본은 낮았다. 또한 자전거절도와 모욕 또는 협박을 당한 인구 비율은 각각 3.1%, 2.9%였다.

직접적 접촉을 동반한 범죄 피해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일어난다. 모욕이나 협박 피해자의 비율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는 5%정도,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는 1% 이하로 국가별 차이가 있었다. 평균적으로 인구 1%가 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는데, 멕시코와 아일랜드에서는 이 비율이 훨씬 높았다. 여성 응답자의 1.8%가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에서는 이 비율이 3% 또는 그 이상 더 높았다.

의외로, 비전통적 범죄가 전통적 범죄보다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응답자 중 11%가 소비자 사기를 경험했으며, 그리스의 경우, 소비자 사기 피해자 비율이 25%에 가까웠고 일본에서는 2% 미만이었다. 직접 부패를 경험했다고 신고한 비율은 평균적으로 낮았으나, 그리스, 멕시코의 경우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높았다.

추가 읽기

Van Djik J., J. Van Kesteren and P. Smit Paul(2008), “Criminal Victimizat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 Key Findings from the 2004-2005 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 and European Survey on Crime and Safety”, WODC Publication No. 257, January.

그림과 표 설명

그림 CO3.1: 각주 1: 1996년 오스트리아, 1992년 이탈리아, 뉴질랜드, 1989년 노르웨이, 독일, 스페인.

표 CO3.2: 여성에 대한 성 범죄율은 여성 인구만 대상으로 조사한 비율이다.

정의와 측정

자살률(suicide rates)에 대한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망 원인에 근거한다. 이 데이터는 국가별, 시대별 연령 구조 변화를 감안한 1980년 OECD 인구 구조를 이용하여 표준화되었다. 자살률은 인구 100,000명 당 자살자 비율로 계산한다.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적 통계 분류(ICD)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사망의 근본적 원인에 따라 자살을 기록하는 절차가 다르며, 이러한 절차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또한, 자살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로 인해 자살은 축소 보고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규범은 국가별/시대별로 다를 수 있다.

자살 통계의 신뢰성(reliability)을 평가하는 연구는 오류의 원인이 임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가별, 인구학적 그룹별 또는 시대별 자살률 비교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Sainsbury and Jenkins, 1982).

자살률은 1970년대에 증가해 1980년대 초에 가장 높았다(CO4.1).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패턴을 보였으나, 일본, 한국, 아일랜드는 이러한 패턴을 따르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자살률은 1960년대보다 낮으나, 1997년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인구 100,000명당 20명). 한국의 자살은 1990년 후반부터 급증하였다. 현재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인구 100,000명당 22명). 아일랜드는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해 2000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후 꾸준히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은 감소했고, 성별 차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이 비슷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자살률의 성별차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여전히 남성의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 평균적으로, 여성 한 명당 3명의 남성이 자살한다. 그러나 자살률 성별 차에도 국가별 차이가 존재한다(CO4.2).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경우

자살률의 성별 차가 커서 여성 한 명이 자살할 때마다 최소 5명의 남성이 자살한다. 이와 반대로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는 여성 한 명이 자살할 때 2명의 남성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률 성별 차이가 적은 편이었다.

고령자일수록 자살할 확률이 높았지만, 이러한 패턴이 모든 OECD 국가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고령자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자살할 확률이 높은 국가로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이 있다(CO4.3).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가장 강한 국가는 한국이었다. 한국의 연령별 자살률은 45-34세 연령대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나아가, 연령대가 가장 높은 그룹(75세 이상)은 15-24세 연령대 인구에 비해 자살률이 10배 이상 높았다. 최근 한국의 자살률 증가 경향은 고령자의 자살률 급증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반면,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소수의 OECD 국가에서는 젊은 층의 자살률이 고령인구에 비해 높았다.

보통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의 성별 차가 커진다. 예를 들면, OECD국가의 15-19세 남성인구의 자살률은 평균적으로 동일한 연령대 여성의 자살률에 비해 2.7배 높았다. 그러나 75세 이상 남성의 자살률은 동일 연령대 여성의 자살률의 5.3배였다(CO4.4). 이러한 패턴은 고령여성에 비교해 고령남성의 결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적 파트너십의 와해에 뒤따른 사회 고립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반영할 지도 모른다.

추가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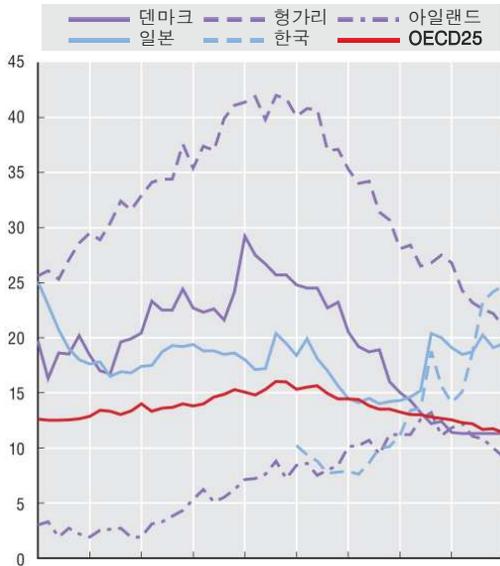
Sainsbury, P. and J.S. Jenkins(1982), "The Accuracy of Officially Reported Suicide Statistics for Purposes of Epidemiological Research",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 36, pp. 43-48.

그림설명

그림 CO4.1부터 CO4.4: 2004년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2003년 호주, 이탈리아, 포르투갈; 2001년 덴마크; 1997년 벨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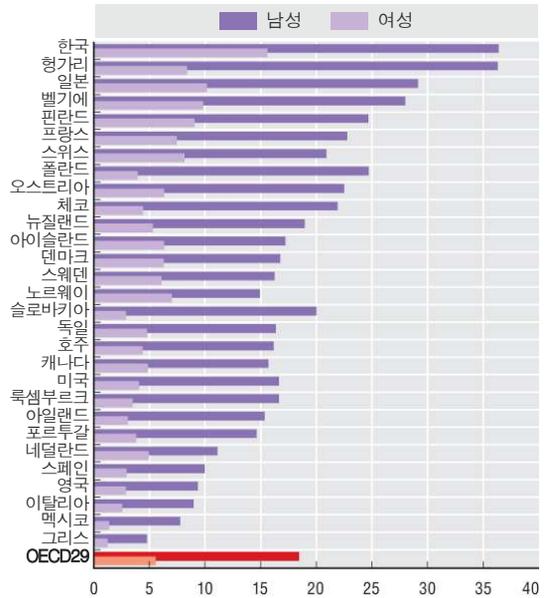
CO4.1. 대부분 OECD국가에서 감소하는 자살률

연령대별 인구 100,000명당 자살자 비율,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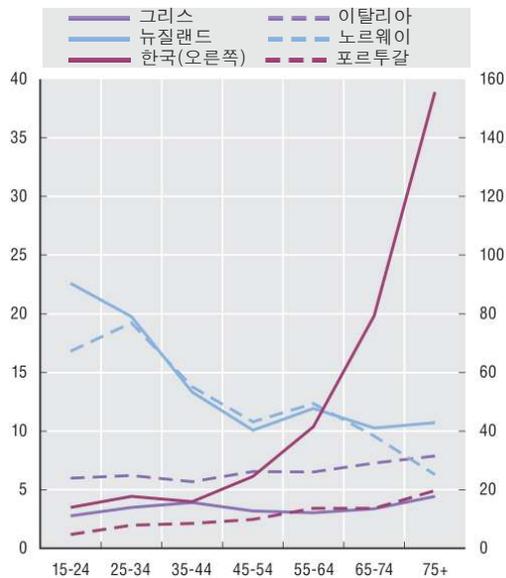
CO4.2. 여성보다 높은 남성 자살률

국가별, 남녀별 인구 100,000명당 자살률,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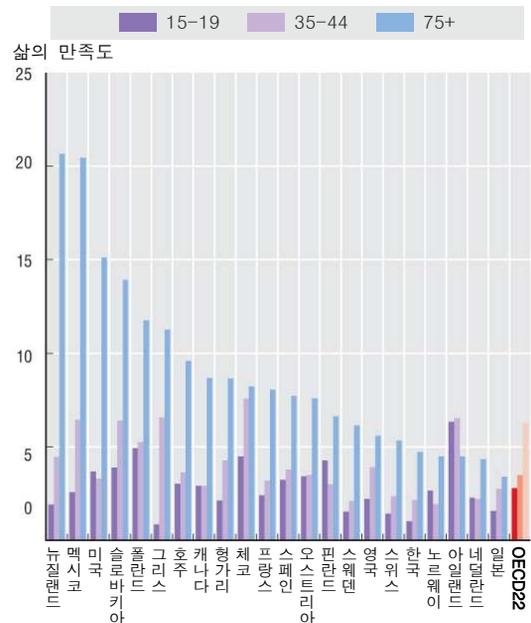
CO4.3.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연령대별 자살 패턴

연령대별 인구100,000명당 자살률, 2005



CO4.4. 고령자의 자살률 성별차가 큼

특정 연령대별 남성대 여성의 자살비율, 2005



출처: Suicides from WHO Mortality database (www.who.int/healthinfo/morttables/en/index.html).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724182187>

정의와 측정

따돌림(bullying)은 구타, 괴롭힘 및 대화 및 놀이에서 소외시키는 수동적 형태를 포함한다. 집단 따돌림은 동등하게 힘이 센 아동들 간의 싸움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집단 따돌림의 광범위한 정의는 어떤 국가에서 어떤 형태의 집단 따돌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가와, 집단 따돌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은 보여주지 않는다.

데이터는 2005-06 학령기 아동의 보건 행동 설문조사(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에서 발췌한 학생 표본집단에서 추출된 것이다. 집단 따돌림 통계는 11, 13, 15세 소년과 소녀의 표본 숫자를 가중한 집단 따돌림 가해 또는 피해 보고율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15세의 1세대 이민자 학생의 집단 따돌림 비율은 OECD PISA 2006 결과의 일환으로 발표된 출생국에서의 자가 보고 통계에 근거한 것이다.

따돌림 가해 또는 피해는 드물지 않다. OECD 아동 10명 중 1명 정도가 최근에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집단 따돌림 가해아동 비율도 이와 비슷하다. 그림 CO5.1는 터키와 그리스 아동들이 집단 따돌림을 가장 많이 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웨덴과 스페인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가해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와 오스트리아였고 가장 낮은 국가는 체코와 아이슬란드였다.

따돌림 가해자 및 피해자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았다. 오직 헝가리, 그리스에서만 집단 따돌림 피해를 당한 여자 아동 비율이 남자아동과 같거나 더 많았다. 집단 따돌림 가해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많은 국가는 없었다.

따돌림 가해아동수가 피해 아동 수보다 약간 더 많으며, 이는 따돌림이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돌림에 대한 관찰연구 중 80-90%의 경우, 따돌림에는 제3의 아동이 참여하며, 이 중 4분의 3이 집단 따돌림 행위를 더 지지하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Atlas 외, 1998; Hawkinst 외, 2001). 남자아동의 경우, 국가별로 따돌림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수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 여자 아동의 경우, 집단 따돌림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비율이 더 많았으며, 이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을

집단 따돌림 시키거나, 여자아동들이 집단 따돌림을 목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돌림은 일반적으로 아동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가한다(CO5.2). 연령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따돌림의 패턴이 변화한다. 남자 아동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따돌림이 증가하는 비율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그리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의 경우 이런 경향이 강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따돌림 비율이 감소하는 국가는 터키뿐이었으나, 터키의 절대적 집단 따돌림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15세의 이민 아동이 많은 국가일수록 15세 아동의 집단 따돌림 비율도 높아진다(CO5.3).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동이 그룹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집단 따돌림이 정상적인 집단행동의 일부일 경우, 다른 집단 또는 개인과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우정이 형성되고 유지된다(Duffy, Nesdale, 2008). 국가별 증거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추가읽기

Atlas, R. et al.(1998), "Observations of Bullying in the Classroom",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92, pp. 86-99.

Currie, C. et al.(2008), Inequalities in Young People's Health: HSC International Report,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Copenhagen, Denmark.

Duffy, A. and D. Nesdale(2008), "Peer Groups, Social Identity and Children's Bullying Behaviour", Social Development, pp. 1-19.

Hawkins, L. et al.(2001), "Naturalistic Observations of Peer Interventions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Vol. 10, No. 4, pp. 512-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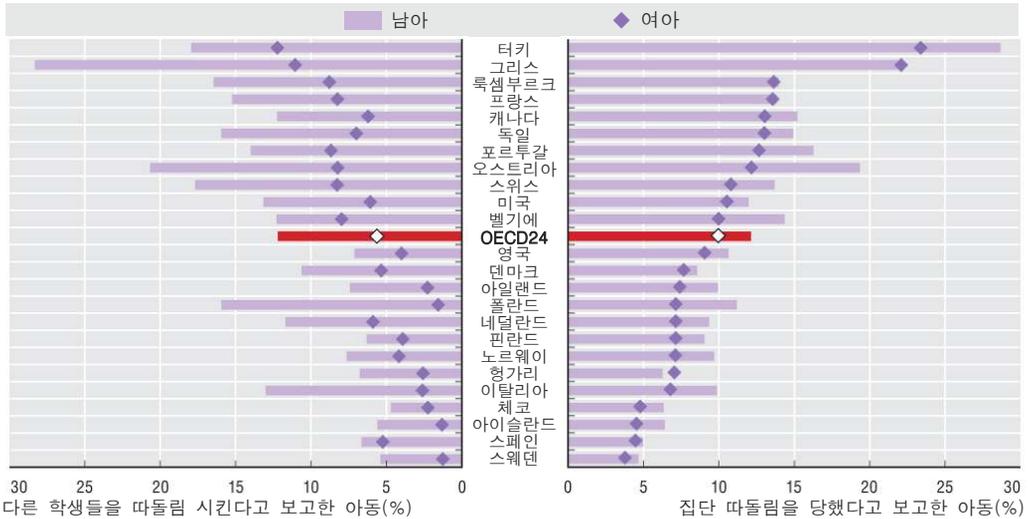
OECD(2008), PISA 2006 Database, OECD, Paris.

표 설명

표 CO5.2: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미국, 터키, 멕시코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벨기에 데이터는 플랜더스 지역 데이터만 포함한다. 영국 데이터는 북아일랜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CO5.1. 대개 소년들이 따돌림에서 더 많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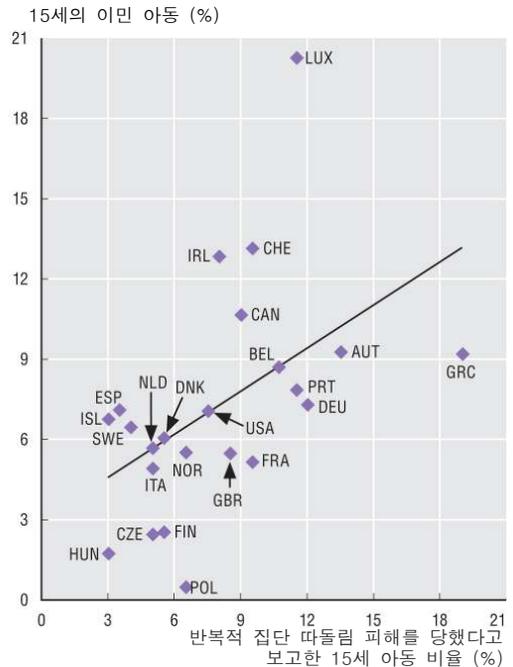
성별 피해 및 가해정도, 총평균 가해율에 따른 국가 순위



CO5.2. 나이가 많은 아동에서의 집단 따돌림 비율이 더욱 높다.

	소녀			소년		
	11세	13세	15세	11세	13세	15세
오스트리아	5	11	11	11	26	26
벨기에	6	6	7	12	11	14
캐나다	6	8	5	10	13	13
체코	2	3	2	3	6	5
덴마크	2	6	5	7	11	15
핀란드	2	4	2	5	6	8
프랑스	6	11	8	13	15	18
독일	5	7	9	9	17	21
그리스	8	13	12	16	28	38
헝가리	2	4	2	3	7	10
아이슬란드	2	1	1	5	6	6
아일랜드	2	3	2	6	7	9
이탈리아	7	6	5	13	12	14
룩셈부르크	7	9	10	8	16	24
네덜란드	3	4	5	11	12	12
노르웨이	1	1	3	8	5	10
폴란드	4	6	6	15	14	18
포르투갈	8	9	8	14	15	13
스페인	4	6	6	5	8	7
스웨덴	1	1	2	3	4	9
스위스	5	10	10	13	19	21
터키	16	13	7	21	19	13
영국	2	5	6	4	8	10
미국	8	9	7	11	14	14
OECD24	5	6	6	9	12	14

CO5.3. 이민 1세 아동 비율이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비율이 높다



출처: Inequalities in Young People's Health: HBS International Report(Currie et al, 2008). OECD PISA(20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735513761>

정의와 측정

위험행동(risky behavior)이란 일반적으로 성인의 행동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아동이 취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들은 아동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각 국의 위험 행동 수준은 아동이 나이에 적합한 행동과 관련한 적절한 지도나 정보를 제공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위험 행동 지표는 사춘기 초기의 과도한 음주와 주기적 흡연 비율과 이러한 행동의 자가 보고 동향을 포함한다. 또한, 위험 행동은 이른 성경험,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예방을 위한 콘돔의 미사용에 대한 자가보고 비율을 포함한다.

위험행동 지표에 대한 데이터는 학령기 아동의 보건 행동 설문조사(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2005/06 (HBSC)에서 발췌되었다. 25개 OECD 국가가 이 설문조사의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아동들에게 음주, 흡연 또는 성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별 통계는 15세 소년과 소녀의 보고 비율과 표본숫자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13세 아동의 음주 비율도 포함되었다.

상당수의 남녀 아동이 흡연과 음주를 한다.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흡연을 많이 한다. 2005-06년에는 오스트리아 소녀들과 핀란드 소년들의 흡연률이 특히 높았고, 미국과 캐나다 소년들의 흡연률은 가장 낮았다. 국가별 성별 비율은 7%에서 30%에 이른다 음주 비율의 성별 차는 이렇게 크지 않다. 영국, 덴마크 소년들의 반복적 음주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와 스위스 소녀들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CO6.1).

15세 아동의 알코올 및 담배 소비는 1990년 후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다. 소녀들의 흡연률과 남녀 아동의 음주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위험 행동의 국가별 차이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남녀 아동의 흡연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으로 흡연을 하는 아동이 5명 당 1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 아동의 흡연률은 지난 10년 중 최저를 기록했다. 역사적으로 알코올 남용 수준이 높았던 덴마크, 핀란드, 영국의 음주율이 크게 감소했다. 국가별 수준에서는 소년들의 음주율 증가는 흔치 않았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 5개국은 남자 아동의 음주율이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이 중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원래부터 소년들의 음주율이 높았던 국가이다.

이보다는 덜 놀랍지만 소녀들의 음주율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헝가리의 경우 소녀들의 음주율이

증가하였으나, 소년들의 음주율은 유사한 증가치를 보이지 않았다.

15세 남녀 아동의 4분의 1이 이른 성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됐다(CO6.2). 국가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성별 평균에 약 10%의 차이가 있었다. 남녀간 이른 성경험에는 매우 분명한 지역적 구분이 있었다. 소년들의 이른 성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지중해 국가들이었고 소녀들의 이른 성경험 비율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가장 높았다.

이른 성경험을 한 15세 남녀 아동 중 4분의 1은 가장 최근의 성경험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 국가가 16개국 밖에 되지 않아 콘돔 사용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HBSC 설문조사에 참여한 9개 OECD 국가들은 자국의 15세 아동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최근 성경험에서 적절한 보호도구를 사용했다고 보고한 아동은 성경험을 한 아동의 약 4분의 3으로 최저 70%에서 최고 90%까지 국가별 차이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녀들의 콘돔사용률이 소년들에 비해 낮았다.

추가읽기

Currie, C. et al.(2008), Inequalities in Young People's Health: HBSC International Report,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Copenhagen, Den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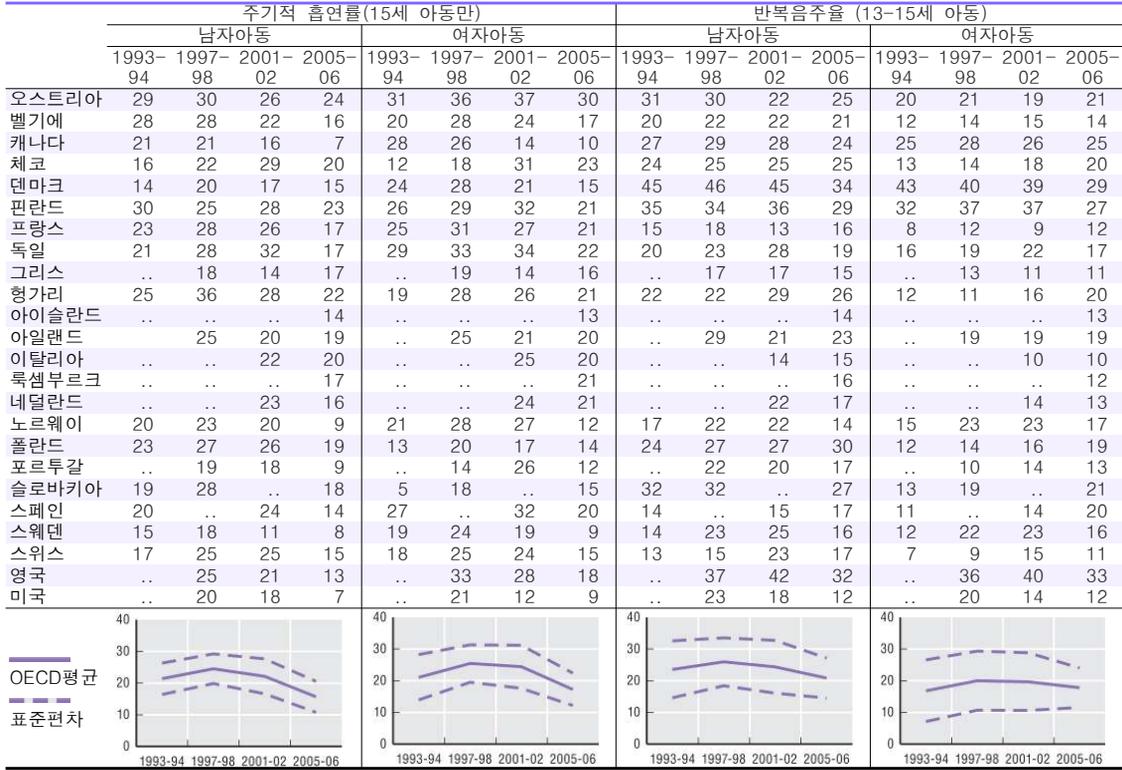
그림과 표 설명

표CO6.1: 영국 통계는 잉글랜드 지역만 포함한다. 벨기에 통계는 불어사용 벨기에 지역이 참여하지 않은 1997-1998년 조사를 제외하고는 플란더스 지역과 불어사용 지역의 단순 평균이다. OECD 평균은 각 조사에서 보고된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담배 흡연은 지난 1주 동안 15세 아동들이 최소한 담배 한 개피 이상을 피웠는지 조사한 비율이다. 음주는 13-15세 아동 중 2-3번 또는 그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을 나타낸다(표본 비중은 연령대별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실제 질문은 "정말 취할 정도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한 적이 있는가?" 이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한국 자료는 제외되었다.

그림 CO6.2: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미국, 터키, 멕시코 자료는 제외되었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체코, 이탈리아는 아동들에게 콘돔 사용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 벨기에 데이터는 플란더스 지역만 포함한다. 영국 데이터는 북아일랜드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15세 아동들에 대한 성경험 질문은 실제로 성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다. 콘돔사용 질문은 "최근 성경험을 가질 때 당신 또는 파트너가 콘돔을 사용했는가?"를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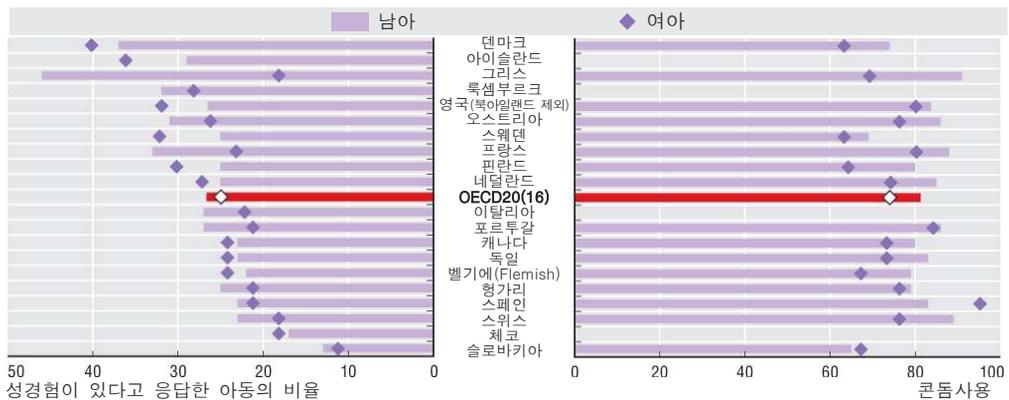
CO6.1. 10대 아동의 흡연 및 음주율이 1990년 최고를 기록한 후 감소하고 있다

10대 남녀 아동의 흡연률 및 반복 음주율, 1993-94년부터 2005-06년까지



CO6.2. 성경험이 있는 15세 남녀아동 중 4분의 1이 적절한 보호도구 없이 성관계를 갖는다.

15세 아동의 성적 활동과 콘돔사용, 퍼센티지



출처: Inequalities in Young People's Health: HBSC International Report (Currie et al., 20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550737414418>